

여성이 살리는 세상
창간준비호
summer 2012

4	발간사	여성이 꿈꾸는 정의 평화 생명 세상을 열며	차경애
6	주제글	세상을 살리는 공동체와 여성의 역할	이효재
10		소통의 시대에 주체적인 줄씨알로 거듭나길	한완상

세계상 오글린 여성이 이야기

14	YWCA에 바란다	보존과 혁신의 가치로 살펴보라	강남순
17		창립 90주년 새로 나는 한국YWCA	김형완
21	우리가 바라는 YWCA	YWCA에 바란다	주선애 김영정 문복희 임희옥
26	YWCA 여성이야기	김필례의 생애와 YWCA	홍승표
68	YWCA 영성이야기	YWCA 운동노래이야기	이천진
75	YWCA 회원 운동이야기	광주YWCA에서 만난 여·세	김기동



여성이 만든 세상 이야기

85	YWCA 비전	순례자의 길	장윤재
105	임영신의 정의여행	정의로운 여행은 가능한가?	임영신
113	여성이 살리는 식문화	안전한 먹거리로 생명의 밥상을	이종임
116	여성이 지키는 생명윤리	인간 존엄에 대한 윤리적 성찰	정동신
120	이슈 정의포럼	YWCA정의운동의 신학적, 시민운동론적 배경과 의미	최만자
125		YWCA 역사와 목적에 기초한 YWCA 정의 운동 제안	정유진
129	정른지 기획대담	‘정의’를 묻다	편집실
138	정른지에 바란다		김재화 원영희 최숙자
144		편집후기	편집실

여성이 살리는 세상 여·세

창간준비호	2012년 여름호	발행인	차경애
발행일	2012년 8월 2일	편집인	유성희
발행	한국YWCA연합회	책임편집위원	김기동
발행처	서울시 중구 명동 1가 1-3	편집자문위원	이종임, 신희운, 김영희, 이은영, 정동신, 김진형
전화	02-774-0230	편집기자	박은실, 이주영, 정서연
팩스	02-774-9724	편집디자인	안그라픽스(02-763-2303)
홈페이지	http://www.ywca.or.kr	인쇄	

여성이 꿈꾸는 정의 평화 생명 세상을 열며

차경애.
한국YWCA연합회 회장

『여·세』는 한국YWCA의 목적 즉 정의·평화·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의 건설을 위해 기독여성들이 함께 나아가야 할 바를 찾아가는 한국YWCA 정론지입니다.

‘여’와 ‘세’ 글자 사이에는 하나의 점이 찍혀 있지만, 그 사이에는 많은 의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열려 있습니다. ‘여성이 만드는 좋은 세상(Good World by Women)’, ‘여성이 함께하는 정의, 평화, 생명 세상’, ‘좋은 세상을 위해 모으는 여성들의 세력(勢, Empowerment)’,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여세(Open)’ 등 무한한 ‘여세’가 가능하기에, 이 책을 만나는 사람들의 꿈을 담고, 여성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 새롭게 열어나가는 좋은 세상의 모습을 담고자 합니다.

한국YWCA는 올해로 창립 90주년을 맞았습니다. 하나님은 1922년 김필례, 김활란, 유각경 세 분의 여성 선각자를 통해, 일제 치하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실

의에 빠져있는 여성들을 일깨워 용기와 희망을 갖게 하고, 여성들이 바르게 설 때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확실한 비전으로 YWCA를 창설하게 하셨습니다. 젊은 나이에 샘골로 가서 천곡(泉谷)학원을 세워 열정을 다해 몸을 아끼지 않고 한글을 가르치던 최용신 선생이 생을 마감하면서 남긴 마지막 유언은 YWCA 정신을 되새기고 나누는 일을 계속하여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세』는 이러한 뜻을 받드는 마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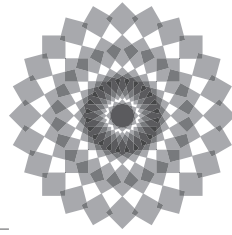
창립 90주년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90주년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YWCA에 있어 90주년의 의미는 단순히 ‘역사가 오래되었음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Y의 처음 정신을 회복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대를 앞서가는 새로운 비전으로 도약하는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100주년을 맞이할 앞으로의 10년 동안 생명의 세상, 정의와 평화의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 음성을 들으려 합니다.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일들을 찾고, 더 헌신할 수 있는 여성지도력을 키우며 생명과 정의, 평화가 뿌리내릴 수 있는 기름진 토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여·세』는 90주년을 넘어 여성운동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한국YWCA의 어제, 오늘, 그리고 미래의 발걸음을 함께 걸으며 성찰하는 거울이 되고자 합니다. 하지만 『여·세』는 한국YWCA만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 정신은 생명이 위협받고 갈등과 소외, 폭력과 억압, 불균형으로 얼룩진 이 땅, 이 시대를 회복하고 살리기 위해 시급하게 되찾아야 할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세』는 기독여성이 주체가 되어 이웃과 함께 정의 평화 생명의 세상을 살리고자 꿈꾸는 영적 갈망과 지혜를 수렴하고 제안하는 장이 되고자 합니다.

한국YWCA 정론지 『여·세』는 시대가 요구하는 큰 사명과 기대들을 모아 창간준비호를 시작합니다. 『여·세』를 통해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만나고, YWCA회원을 비롯하여 정의, 평화, 생명을 갈망하는 이 땅의 모든 여성들이 함께 만나는 열린 트랙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

문화적 다양성 인정하고 공존의 가치 생활화 해야



이효재,
전 이화여대 교수

창립 90주년을 맞이한 한국YWCA에서 여성운동 100년을 향한 정론지 창간의 주제글로서 “세상을 살리는 공동체와 여성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원고청탁을 해왔다. 정의·평화·생명존중이라는 이 시대적인 민주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기독여성이 주체가 되어 이웃과 함께 세상을 살리는 힘을 믿고 꿈꾸는 영적갈망과 지혜와 용기를 수렴하고 제안하는 장”을 마련하려는 계획이다. 우리 여성계에 요구되는 참으로 뜻깊고 중요한 취지이다. 본인은 이 소식을 환영하는 한편 제한된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것임으로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한국 Y의 90년 역사와 같은 시대를 살아오면서 여성·가족 문제 연구를 하며 여성운동에 참여해 온 본인으로서의 책임과 공감을 저버릴 수 없어 부족한데도 이 글을 쓰기로 하였다.

이 시대에 우리 여성들이 시급하게 인식하고 대처해야 할 문제는 너무나 많다. 그러나 국제화·세계화로 좁아진 지구촌의 다문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로써 우리 앞에 다가선 다문화 사회 공존의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 최근 다문화 가족의 현실과 정책을 연구해온 젊은 여성연구자들 중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다급한 현실과 이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은 것에 대한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이들의 제안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민주사회의 여성 시민으로서 더욱이 기독여성단체로서 함께 다같이 평화롭게 공존해 가야할 사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준비와 역할을 겸허하게 생각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최근 TV 프로그램 중 KBS의 “러브 인 아시아”를 나는 좋아한다. 매주 화요일 저녁 될 수 있는 한 찾아서 보고 있다. 근년에 와서 이 프로는 나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우리 역사에서 조선조시대 뿌리내린 혈통중심 가부장제 문화속에 동남아를 비롯해 남미·아프리카·중동 등 각 지역에서 온 혼인으로 맺어진 며느리·사위들이 부부관계와 가족관계를 어떻게 이뤄가는지 궁금하였다. 그 위에 그들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각자의 외가·친가를 부모와 함께 방문하며 할아버지·할머니 및 수많은 친척들을 만나고 돌아가신 집안 어른들의 무덤에 성묘하는 모습에서 지구촌의 다문화 시대를 그들을 통해 체험하는 새로움과 재미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광복이후 우리 어린이들과 여성들이 해외로 대거 떠나기 시작한 것은 6.25전쟁 이후부터이다. 소위 전쟁으로 인한 고아들의 해외입양과 미군과 혼인한 여성 그리고 미국유학생들이었다. 이 과정에서 증가한 국제결혼에 대해 단일민족의 자부심과 집안혈통 보전을 중요시한 순혈주의로서 국제결혼을 외면하거나 집안에 수치스런 일로 평가절하해 왔었다.

국제화·세계화 과정에서 산업발전과 민주발전을 이룩한 남한사회는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노동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다인종, 다종교, 다문화 사회로서 지구촌이 직면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다가 온 것이다.

다문화 가족의 현실과 국가정책을 연구해 온 정일선 박사(경북여성개발원, 정책개발)

발설장)는 1990년대 이후 우리사회에서 가장 놀라운 변화는 국제결혼 및 이주노동자 급증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증가현상임을 지적한다. 1990년 약 5만 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거주자가 2011년 128만 6천명으로 증가했다. 2010년 현재 결혼하는 부부 10쌍 중 한 쌍은 국제결혼이라는 것이다. 이 추세대로라면 2020년에는 전체 인구의 5%가 될 것이며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의 수가 65만 3천명을 넘어설 것이다. 이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80~90%나 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 젊은이들이 취직·유학·관광·봉사활동 및 그 외 다양한 국제적 사업과 문화 활동으로 인해 세계로 뻗어가는 현실에서 지구촌은 그들의 삶의 터전인 것이다.

한류의 영향으로 외국 젊은이들의 유학 및 기타 목적으로 한국과 교류하는 추세를 볼 때 국제결혼의 수는 더욱 빨리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증가하는 통계 숫자만으로 우리사회가 다문화 사회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문화 사회라는 것은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상호문화를 존중하고 인정하려는 태도를 전제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 나라의 문화적 토대를 알고 이를 바탕으로 그 사람의 행동양식 및 의식구조를 이해하려는 적극적인 수용태도가 필요하다.”고 정일선 박사는 강조한다. 다문화 사회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새로운 인식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준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지금 지구촌이 직면한 다종교, 다인종간의 전쟁과 테러리즘 및 종교적 갈등과 인권침해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다문화 사회 속에서 살아 가야 할 우리들로서는 가족과 지역사회 그리고 종교·인종을 포함한 여러 문화집단 사이에서 다함께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민주사회로의 발전이 시급함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과 정책을 여성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가 정부와 함께 준비해 가야 할 것이다.

정일선 박사는 인권과 공존의 평등의식이 박약한 우리 현실에서는 국가가 주도하는 다문화 정책이 실제로는 순혈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인 동화정책일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국사회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갑작스런 관심과 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정책이 우리 사회의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의 해법으로 인식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민여성들의 가정문제에 대한 온정적 인식에서 북돋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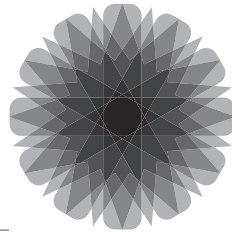
지는 것임을 염려하고 있다. “점차 이민자의 수가 커지고… 압력집단을 형성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우리가 있는 단계에서는 온정적 시적이 거두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된 필리핀 출신 이자스민 씨에 대한 일부 시민의 인종주의적 욕설과 반 다문화적 항의 등에서 다문화 사회의 위협성과 갈등의 측면을 볼 수 있으며 이에 관심을 갖고 대비하는 성숙한 시민역량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북대 정치학과 김태일 교수는 다문화 정책이란 단순한 동화정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새로 맞이하는 문화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서로 깊이 이해하는데서 창조적으로 융합하는 과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화적 배타주의 반다문화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시민교육을 제안한다. 터키와 같은 선진 다문화 사회의 사례를 연구하고 배우는 노력으로 독단주의와 배타주의를 극복하고 평등과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관용과 공존의 가치를 생활화하는 시민역량을 키워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는 비교적 단순한 단일민족의 문화전통으로 인식해 왔지만 지난 한세기 동안 기독교가 뿌리내려 주요 종교집단이 됨으로서 기독교가 불교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국제화, 세계화 과정에서 형성된 중동 아랍지역과의 교류로 이슬람 인구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주요 종교집단과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타종교에 대한 연구와 객관적 이해를 바탕으로 성숙한 시민역량을 쌓아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 Y가 기독교 여성단체로서 불교 및 이슬람 종교 단체와의 소통과 종교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상호존중하는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의식의 변화와 준비에 서둘러야 할 것이다. 타종교를 믿는 개인들과 집단 간에 종교적 신앙의 차이를 받아들여 서로 이해하기 위한 만남과 소통의 노력이 기독교여성들 사이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이로서 점차 서로 도울 뿐 만 아니라 함께 소외된 이웃과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창의적 역할을 해 가야 할 것이다. *

글을 쓴 이효재는 미국 앨라바마대학교, 콜롬비아대학원에서 사회학을 공부했다. 이화여대와 서울여대에서 사회학과 교수를 지냈고, 한국여성민우회 초대회장, 한겨레 신문이사, 한국여성단체연합회 회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한국여성사회교육원 이사장을 역임했다. 현재 진해에서 경신사회복지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하나님의 살림으로 생태적 평화 세워가길



한완상.
전 대한적십자 총재

한국YWCA는 9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한국 최대의 여성기독교사회운동 중심체다. 그 역사가 빛나고 긴만큼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그만큼 동력(動力)이 쇠잔해지기도 했다. 이제 90년이 되었으니 재충전이 필요하다. 21세기를 맞아 YWCA가 그 회원의 노소와 관계없이 더욱 활기차게 운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이 시대의 바람직한 시대정신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같은 확인과 깨달음 속에서 YWCA의 비전을 새롭게 다듬어내야 한다.

한 마디로 21세기는 놀라운 정보통신 혁명의 일상화로 소통의 폭과 깊이가 엄청나게 확대된 소통의 시대다. 쌍방향 통신매체를 일상적으로 활용하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소통의 삶을 살고 있는 존재가 바로 21세기 인간 존재다. 줄(on-line) 안에서 논의하고 토론해서 결론에 이르게 되면, 줄 밖에서(off-line)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강력한 다중(多衆)이 바로 이들이다. 나는 이들을 21세기의 주체적인 줄씨알¹(netroot)이라고 부른다. 이들은 지난 20세기 아날로그 시대의 대중(mass, 大衆)과 달리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흩어져 있어도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주체적 행동 주역이다. 그들은 20세기의 대중 같은 수동적 주체(reactor)가 아니라 힘 있는 능동적 주체(actor)다.

이들은 모든 주요조직체가, 국가든 기업이든 종교단체든 시민조직이든 간에, 투명한 조직운동을 요구하며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소통은 위로부터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상의하달(top-down)식 명령의 소통이 아니라 밑으로부터 솟아오르는 소통이요, 그것이 옆으로 널리 번져가는 소통이다. 그러기에 그것은 대단히 민주적인 소통이며, 그것 또한 투명한 소통이다. 그러기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불도저식 조직운영과 불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용납하지 않는다.

바로 이 같은 21세기적 현실은 매우 따뜻한 사회관계를 반영한다. 공감능력, 역지사지능력, 동고(同苦)능력을 높이 평가한다. 이런 뜻에서 21세기에는 여성적 감성을 바람직한 리더십의 본질로 더 높이 평가된다. 마치 엄마가 자녀들을 따뜻하게 보듬고 보살피듯, 21세기 지도력은 온갖 사회적 약자들의 입장에서 상황을 살피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능력이다.

예수님의 소통이야말로 항상 가장 낮은 곳에서 억울하게 온갖 고통을 겪고 있던 사람들과 역지사지하고 역지감지하는 소통이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눌린 자들, 헐벗은 자들, 병든 자들, 감옥에 갇힌 자들, 그리고 쫓겨나고 동행하고 동고하셨다.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면서 새로운 사랑의 사회관계를 친히 보여주셨다. 바로 여기에 따뜻한 하나님나라의 모습이 드러났던 것이다. 한 마디로 예수님의 하나님나라 운동은 사랑의 원리와 사랑의 힘으로 세우는 새로운 질서 운동이었다. 사랑은 자기를 비워 남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는 힘이다. 그러기에 그곳에는 참된 평화가 세워지고 아름다운 정의(distributive justice)가 세워진다.

예수님은 그래서 계급의 벽, 성의 벽, 지역의 벽, 인종의 벽을 극복하셨다. 그것도 완력이나 무력으로써가 아니라 사랑과 평화와 공의의 힘으로 모든 구조적

1. 한완상 박사가 만든 말로써, 함석헌 선생의 씨알에 21세기 소통의 매체인 '줄'(line)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역사의 주체를 뜻함.

벽을 극복하셨다. 비움의 힘으로 그 벽들을 무너뜨리신 것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예수운동은 엄마의 힘과 누나의 힘으로, 그런 여성적 감성으로 힘있게 벽을 뛰어넘어 참 생명을 살리신 따뜻한 공동체 운동이었다.

나는 한국YWCA가 이런 예수의 하나님나라 운동을 분단된 한반도 조국에서, 양극화된 한국 현실에서 펼치기를 바란다. 특히 하나님의 샬롬(shalom)으로 남과 북을, 동과 서를 참 깊고 넓은 소통의 통로로 이어주는 일에 앞장서기를 바란다. 구체적인 한 가지 보기를 든다면, 한반도에 핵무기는 말할 것도 없고, 핵으로 에너지를 얻으려는 모든 핵 사업을 극복하는 일에 한국YWCA가 앞장서면 좋겠다.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는 모든 정치적 기도를 뛰어넘어야 한다. 이제야말로 핵 뿐 아니라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모든 연료를 근본적으로 대체시키는 새로운 친환경적 에너지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일에 YWCA가 앞장서면 좋겠다. 이제 자연과 환경은 인간에게 아주 소중한 이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원수를 사랑하여 평화를 만들 듯, 자연을 우리 이웃으로 사랑하여 새로운 생태적 평화를 세워가야 한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웃으로 선물을 주신 바람, 햇볕, 그리고 땅의 온도를 존중하면서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의 에너지를 찾아내는 일에 한국YWCA가 앞장서는 일이야말로, 21세기 소통의 시대에 하나님나라 운동에 적극 헌신하는 일이 아니겠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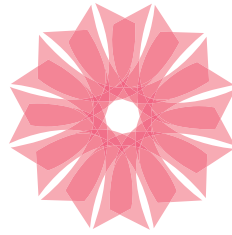
글을 쓴 환관상은



꺽지어다 꺽지어다 드보라여,
꺽지어다 꺽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삿5:12)
그 부름의 음성을 들은 여성들이 여기 있다.
자신을 깨우고,
가정과 마을을 깨우고,
민족을 깨우는,
그래서 모두가 어울어져
살만한 세상을 꿈꾸고 만들어가는
여성들이 여기 있다.

보존과 혁신의 가치로 90년의 역사 살피라

강남순.
Texas Christian University, Brite Divinity School 교수



한국에서 뿌리내리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것이 오랜 희망이었던 내가 한국을 떠나야 했던 것은, 사람들의 인식과 제도속에 뿌리깊이 내린 성차별적 기제라는 것이 내게는 분명하다. 독일과 미국에서의 9년 여의 오랜 유학생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던 해, '고국'에 돌아온다는 가슴 설렘과 감격의 느낌이었다. 지금까지 인터넷전화나 화상통화가 가능한 시절도 아니어서, 유학생으로 살면서 한국의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할 수도 없던 때였기에, 오랜 유학생생활을 마치고 돌아온다는 사실은 참으로 가슴 벅찬 일이었다.

그러나 내가 곧 이어 경험하게 된 것은 나의 '고국'인 한국이 여러가지 의미에서 '타국'이라는 아픈 사실이었다. 어떤 시인의 "나는 나의 고국에서 망명중"이라는 시구의 의미를 내 몸으로 직접 체험하고 이해하기 시작한 해였다. 또한 성차별문제에 대한 학문적 이론들이 구체적인 현실에서 얼마나 깊고 높은 벽들과 씨름해야 하는지를 뼈저리게 인식하게 된 해였다. 경제적 성장은 그 짧은 시간 이루어 내었지만, 가부장제적 제도와 인식의 성장에서는 한참 후진성을 면하고 있지 못한 한국사회와 종교들에서 나의 역할을 찾아내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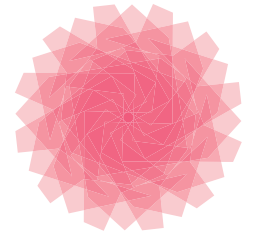
이러한 활동들을 하면서 분명하게 느끼게 된 중요한 것들 중의 하나는 이론과 운동/실천의 이분법적 시각이 주는 위험성이다. 소위 '상아탑'이라고 하는 대학은 '이론의 장'이고, 대학 밖의 사회는 '실

천/운동의 장'이라는 전통적인 이분법적 이해는 이제 설득력을 지니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론적 뒷받침이 없는 운동은 운동의 지속성과 설득력을 결여하게 되고, 운동/실천의 경험이 결여된 이론은 그 생명력을 지니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통감하게 되었다. 따라서 학문/이론과 실천/행동이라는 이분법적 이해를 넘어서는 여성운동이 펼쳐져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때 만난 YWCA는 내게 나의 이론이 구체적인 현실에 뿌리 박도록 도와준 아주 소중한 공간이 되기 시작했다. 이 짧은 지면에서 내가 YWCA에 바라는 것을 모두 표현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요약해 보고자 한다.

첫째, YWCA가 운동과 이론의 접목을 끊임없이 시도하는 공간을 되기를 바란다. 나는 Y의 '운동'이 이 현실을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이상적 세계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이론'과의 접목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초기 여성운동은 이론과 운동에 대한 이분법적 이해로 인해, '반이론(anti-theory)'적 성향을 강하게 가져왔다. 그러나 성차별의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차별의 문제는 저절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연구되고 습득되어야 할 수 있는 것이다. Y가 연구하고 배우기를 멈출 때, 또한 단지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개설하는 것으로만 그 역할을 이해할 때, Y는 제자리걸음이 아닌 후퇴하는 것이다. 이론적 분석이 결여된 프로그램은 첫째, 설득력을 갖게 되지 못하고, 둘째,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는 데에 충분한 기반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 새로운 상황은 새로운 시각을 필요로 한다. 이론적 배움은 이러한 새로운 시각(perspective/angle)을 갖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내가 말하는 '이론'이란 우선적으로 성차별의 문제를 분석하는 페미니스트 이론과 신학들, 현대사회의 문제들을 분석하는 이론들을 지칭한다. '이론'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는 일반적인 이해는 교정되어야 한다. 현대사회에 등장하는 다양한 이론들은 YWCA 운동에 내실을 기하게 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주요한 단서들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Glocal(Global+Local)한 시각을 지니는 YWCA가 되기를 바란다. 나는 YWCA가 '세계적(global)' 시각과 '지역적(local)' 시각을 종합하는 'Glocal'한 관점을 가지고 프로그램들을 구상하기를 바란다. 흔히 구호인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think globally, act locally)"는 사실상 구체적인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 현대세계에서 그 누구도 단지 '세계적'으로 생각하면서 '지역적'으로만 살아갈 수 없다. 우리가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지역적' 행위는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다양한 영향을 주게 되며, 우리 또한 그 영향을 받게 된다. 즉 "세계와 지역"의 분리적 이해는 상상에서만 가능할 뿐, 실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지구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생명체들은 서로의 생존에 서로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또한 지구 어느 곳에서 벌어지는 불의함, 불평등, 전쟁, 생태파괴 등은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

창립 90주년 자기 부정으로 '새로 나는' 한국YWCA



김형완
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

그러자 예수께서는 “정말 잘 들어 두어라. 누구든지 새로 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고 말씀하셨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실이 악하여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이것이 벌써 죄인으로 판결 받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과연 악한 일을 일삼는 자는 누구나 자기 죄상이 드러날까 봐 빛을 미워하고 멀리한다. 그러나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빛이 있는 데로 나아간다. 그리하여 그가 한 일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일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요한복음

3장 3절, 3장 19절~21절)

한국YWCA가 올해로 창립 90주년을 맞았다. 무려 90년의 연륜이 말해주듯 한국YWCA 없이는 한국여성운동의 역사를 제대로 기술할 수 없게 되었다. 오늘날 수많은 여성단체들이 여성의 주류화와 양성평등을 외치며 역동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된 데는 지난 시기 한국YWCA가 애써 가꿔 온 단단한 토대가 있기에 비로소 가능했다. 가히 한국 여성운동의 맏이라고 불리어도 손색이 없다. 한국YWCA는 일제 강점기 농촌계몽운동과 문맹퇴치운동으로부터 시작하여 가족법개정운동, 소비자운동, 최근 북한이탈주민과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활동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해오면서도 일관되게 기독교여성운동으로서의 자기정체성을 견지해왔다. 어떻게 보면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여성단체협의회로 대별되는 오늘의 매우 다양한 여성운동도 한국YWCA의 균형감 속에서 잉태

다. 이러한 모든 생명들의 상호의존성, 상호연관성을 깊이 인식하면, 어떻게 '세계적'인 것과 '지역적'인 것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가를 알게 되는 것이다. 나는 Y의 모든 프로그램들에 이러한 전지구적-지역적 시각이 반영되기를 바란다.

셋째, 여성문제와 다양한 차별구조들의 상호연관성에 대한 인식을 하는 YWCA가 되기를 바란다. YWCA의 이름이 지칭하듯이, Y는 '젊은 여성 기독교인(Young Women Christian)'을 그 운동의 주체로 설정하고 시작한 단체이다. 그러나 Y가 지향하는 것은 여성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평등, 인권, 평화, 정의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배제와 차별들의 문제들에 관심하고 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한 종류의 문제가 여타의 다른 종류의 문제들과 상호연관되어 있다는 '상호연관성'을 인식하게 하는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여성에 대한 차별의식이 어떻게 이국인들을 차별하는 인종차별 의식들과 연결되어 있는가, 가부장제가 어떻게 동성애공포/혐오(homophobia)의식과 연결되어 있는가, 또는 같은 이국인이라도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나 피부색 등이 어떻게 차별 또는 환대와 연관되는가 등, 다양한 차별의 의식들이 사실상 긴밀하게 상호 연관되어 있음을 아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중요하다.

넷째, 포괄적인 에큐메니칼 정신의 확산을 추구하는 YWCA가 되기를 바란다. YWCA는 기독교정신에서 출발했다. 무엇이 '기독교 정신'인가는 사실상 단순한 것 같지만, 매우 복잡한 문제이다. Y는 '기독교 정신'이 이 현대사회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토의하고 배우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주요한 '기독교 정신'의 하나는 에큐메니칼(ecumenical) 정신이다. 에큐메니칼 운동의 목적은 '일치'이다. 그러나 일치(unity)를 획일성(uniformity)으로 이해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이다. 진정한 '일치'란 서로의 다름을 수용하면서, 정의롭고 평등한 관계를 지향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YWCA의 목표인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세계'를 지향하는 다른 이름이다.

다섯째, 역사에 대한 두 가지 책임을 다하는 YWCA가 되기를 바란다. 한국YWCA가 창립 90주년을 맞이한다는 것은 참으로 축하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90년이란 긴 역사 앞에서 새로운 책임을 느껴야 하리라 생각한다. Y는 90년이라는 역사에 대하여 두 가지 과제를 기억해야 할 것이다. 보존(preservation)과 혁신(innovation). 90년의 역사에서 지속적으로 보존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동시에 단호히 단절하고 새로운 혁신을 가하면서 새롭게 창출해야 할 역사는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과거 역사와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보존해야 할 것과 새롭게 창출해야 할 것에 대한 지속적이고 진지한 토론과 작업이 지속되는 것은 YWCA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데에 필수적인 과제라고 나는 본다. 단지 긴 역사의 지속만을 자랑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역사를 미래에 창출할 것인가

글을 쓴 강남승은 현재 미국 Texas Christian 대학 Brite 신학대학원에서 교수로 학생들에게 신학을 가르치고 있다. 한국 감리교신학대학,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원 신학부에서 가르쳤다. YWCA인력개발위원회에서 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세계신학교육기관협의회 회장으로 있다. 저서로는 '현대여성신학', '페미니즘과 기독교', '페미니스트 신학', 'Cosmopolitan Theory' 등의 있다.

되어 성장한 여성운동의 갈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데 진보와 보수가 무슨 구별이 있을까. 역사와 사회의 부름이 치열할 수록 자칫 운동은 자기관성에 따라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고, 또 이에 따라 진영논리에 갇히기 십상이다. 그러나 한국YWCA는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중간지대에 자기 기반을 탄탄히 구축해 온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 아무리 내세우는 가치가 고상해도 운동의 주체와 대상이 변증법적으로 통일되지 않는다면 고작해야 계몽주의적인 운동의 고질적인 한계라 할 수 있는 고립무원의 근본주의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무릇 표방하는 비전과 가치관, 공감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의 폭과 깊이에 따라, 요컨대 확장성만큼 그 효과성 여부가 판가름 나기 마련이다. 한국YWCA는 2011년 현재 어린이와 중고생, 대학생 회원이 8천여 명을 상회하고, 총 회원이 10만여 명에 달하며, 프로그램참가자가 연인원 100만여 명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그 어느 시민단체와도 견줄 수 없는 매우 모범적인 활동을 펼쳐 온 셈이다.

이제 창립 100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는 한국YWCA는 그동안의 성과를 기반으로 다시 앞으로의 100년을 전망하는 미래 비전을 수립해야 할 때이다. 그 출발점은 지나온 날들에 대한 성찰일 터이고, 성찰의 핵심은 역시 초발심이라는 거울에 자신을 비춰 보는 것으로부터 일 것이다. 과연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처음처럼’ 하였는가. 안정에 기대어 ‘새로 나기’ 위한 노력에 게으르지 않는가. 확보된 허명에 취하여 본연의 사명에 소홀하지는 않았는가. 사람이든 단체든 그 누구든, 특히 오랜 연륜을 지닌 존재일수록 지나온 날들을 통렬히 돌아보기란 그리 쉽지 않다. 그러나 지난 발자취를 돌아보고 지금 여기 서 있는 자리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는 결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수 없다. 한국YWCA는 섬김, 나눔, 살림의 실천을 통해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라는 그리스도의 참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기독교 청년여성 단체이다. 진리를 섬기고, 사랑을 나누며, 생명을 살리는 실천에 충실하였는지 되돌아보는 것으로부터 한국YWCA의 새로운 세기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인용한 요한복음서의 말씀은 니코데모라는 사람의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다. 아시 다시피 니코데모는 바리사이파로 유대인들의 최고의회 의원 가운데 하나였던 사람이다. 한마디로 세상의 존경과 권세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런 지위에 있는 사람은 대개 진리 앞에 오만하며, 이웃과 나누기를 싫어하고 매우 인색하며, 자신을 살리는 데 급급하여 물 생명을 수단으로 여기기 일쑤다. 자기중심적인 관행과 주관적인 독선에 빠지기 쉽다. 개인의 됴됨이와는 무관하게 사회적 지위가 그로 하여금 그렇게 행세하도록 만든다.

이런 니코데모에게 예수께서는 “정말 잘 들어 두어라. 누구든지 새로 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는

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한다. ‘누구든지’라고 일반화시켜 말씀은 하시지만, 이 말씀을 누구에게나 다 하신 것은 아니다. 바로 니코데모에게 하신 말씀이다. ‘새로 나리’는 말씀은 완전한 자기부정을 의미한다. 독선과 아집, 또는 폐쇄적인 자기중심성으로부터 벗어나라는 요구이다. 기왕의 성취가 불러온 관행에 안주하는 것으로부터 과감한 탈피를 명령하시는 것이다. 그리고는 ‘물과 성령’이라는 근본으로 돌아가라는 것이다. 결국 니코데모는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빛이 있는 데로 나아가간다. 그리하여 그가 한 일은 모두 하느님의 뜻을 따라 한 일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처럼 새로 태어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된다.

2012년 한국 사회는 중대한 변전의 고깃길에 직면하였다. 양극화와 사회갈등 지수에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며, 자살률(특히 청소년자살률), 실업률(특히 청년실업), 산업재해발생률, 지니계수(빈곤지수), 초고속 저출산 고령화, (국가, 가계)부채율 등이 세계최고, 또는 OECD 국가가운데 1, 2등을 다투는 실정이다. 공권력의 남용과 고질적인 부정·비리·부패가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으며, 결국 이로써 인권과 민주주의의 총체적인 역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국제금융위기가 초래한 경제위기까지 얹힌 데 덮친 격으로 가세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고 암담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들의 책임을 특정 지도자나 정치인들에게만 묻기에는 상황이 그리 녹녹치 않아 보인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안에는 ‘대박’으로 상징되는 물질적 탐욕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쟁적 성과주의가 공고하게 자리잡기 시작했다. 섬김, 나눔, 살림의 실천은 실종되고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라는 그리스도의 참 가치는 고작해야 교회 안에 갇혔다.

한국YWCA의 근 한 세기 동안의 수고와 노력은 과연 어디로 간 것일까? 또한 이러한 위기와 도전 앞에 한국YWCA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스도께선 필경 이러한 물음에 대한 한국YWCA의 답을 기다리고 계실 것이라 생각한다. 한국YWCA를 지지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로서 필자는 한국YWCA가 니코데모처럼 부디 더욱 더 빛으로 나아가시길 빈다. 빛은 진리의 길이다. 세상 모두가 허위와 기만의 길로 가더라도 진리를 섬기는 자의 길은 따로 있다. 거짓의 길은 편하고 안전하다. 그러나 진리의 길은 예수께서 밟아지신 십자가처럼 고난의 길이다. 안전이라는 기득권과 기왕의 편한 관행을 내려놓아야만 떠날 수 있는 여정이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는 길을 걷고자 하는 것, 그것이 한국YWCA와 같이 섬기는 자의 도리이다. 그럼으로써 한국YWCA가 한 모든 일들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시길 빈다. *

글을 쓴 김형왕은 한국신학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했다. 국회입법보좌관과 파업 유도특별검사 특별수사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을 역임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원년부터 참여, 인권상담센터 소장, 조사총괄과장, 인권정책과장을 두루 지냈다. 현재는 사단법인 인권정책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성공회대에서 ‘인권과 평화’를 강의하고 있다.”

기독교 정신 운동단체

자기정체성 확립을 확립하자

주선애
한국YWCA 명예연합의원
장신대 교수

“..... 겨레의 양심과 나라의 도의가 짓눌려 시든 것을 다시 살려 키우려면, 사람마다 체 인격을 옹기 가꾸려면, 불쌍한 아들, 딸에게 부끄러운 유산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자자손손이 길이 완전한 행복을 누리게 하려면, 우선 급한 일이 겨레의 독립인 것을 뚜렷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본시 타고난 자유권을 지켜 풍성한 삶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것이며 우리가 넉넉히 지닌 바 능력을 발휘하여 봄기운이 가득한 온누리에 겨레의 뛰어남을 꽃 피우리라.....”

1919년 기미 독립 선언문의 구절이다. 우리 선배들의 가슴 속에 나라 사랑의 열정은 나라의 양심과 도의를 살려 키워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일본의 총칼 앞에 맨손으로 저항하고 나섰던 것이다. 선배 지도자들은 나라의 나아갈 방향을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다. 1922년 YWCA가 창립 되던 때는 독립운동의 실패로 인한 겨레의 공포와 비통함을 가슴에 안은 채 선배들이 모였을 것이다. 좌절하지 않고 여성들의 의식을 개발하여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비전이 YWCA 창설의 동기가 된 줄 안다.

90년이 된 오늘 다시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여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유한(有閑) 여성들의 취미활동단체나 하나의 복지단체만도 아니다. 우리는 기독교 정신 운동체이다. 겨레의 진정한 행복을 위하여 기독교 정신을 기초로 한 사회개혁운동의 하나로 출발한줄 안다. 독립 선언문에서처럼 (또 다른 형태의) ‘겨레의 양심과

나라의 도의가 시들어’ 진 오늘 우리사회를 치유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국민의 양심이 무디어져 개인의 극단적 이기주의와 비리(非理)로 가득한 사회를 기독교 여성인 우리들이 고쳐 가는 길을 모색해야 하는 줄 안다. 그래서 정직하고 투명한 사회, 서로 이웃을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는 국민성을 어머니인 우리들이 만들어 갈수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로 우리의 자녀들이 부끄러운 사회가 아닌, 정의롭고 평화로운 아름다운 사회를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하겠다. 이것이 어머니들의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사회를 보나 남한사회를 살펴보니 모두 부끄러운 것 뿐이다. 조국의 분단 자체가 부끄러움이 아닐 수 없다. 통일의 과업도 우리시대에 역사적인 사명이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통일된 나라이며 정의를 기반으로 하는 평화로운 나라이다. 잘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서로가 서로를 인간답게 살도록 배려해 주며, 높은 기준의 윤리의식을 갖고 살 수 있는 사회를 유산으로 넘겨 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여성들이 되었으면 한다.

셋째로는 우리 YWCA 운동을 통하여 회원 각자의 창의력과 잠재력을 개발하여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각자가 자아개발에 힘쓰고 현실의 풍요와 편리함에 안주(安住)하여 정체되지 않도록 항상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아가기를 원한다.

넷째로 우리국민의 탁월함을 온세계에 알려지도록 우리 모두에게 세계 지도력을 양성해 갔으면 한다. 즉 삶의 의미를 상실해 가고 있는 세계인들에게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존이라는 가치를 지향하는 정신적인 지도자들로 우뚝 설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보다 넓은 세계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배양하고 세계에 공헌하는 국민들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민족으로 남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

선배들의 진취성과 열정

사명감으로 전진하길

김영정
한국YWCA 명예연합위원
전 제1정무장관

90년의 유구한 전통과 역사를 지닌 YWCA는 이제 100년을 여는 문턱에 와 있다. 창설 초기부터 YWCA는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이 나라 여성의 영성을 깨우치고 민족과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지도자를 배출하였다. 또한 세계YWCA와의 유대를 통하여 한국 여성의 시야와 활동 무대를 넓히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제 지난 90년의 발자취를 뒤로하고 앞으로 펼쳐질 새 시대를 맞이함에 있어 우리가 해야 할

소중한 과제와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과 지식의 빠른 증가 속에서 가장 소중한 인간의 가치가 도외시되어 정의로운 사회를 이룩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하는 YWCA 회원들은 지금 진행 중인 부(富)의 편재를 날카롭게 보아야 하며, 다수 국민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건설에 열정을 바치고 헌신하여야 한다.

둘째,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에 살고 있다. 2012년 5월 말 현재 남한에는 탈북이주자 2만 3,700여명이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들에 대한 배려와 지원이 부실할 뿐 아니라 그들에 대한 인식마저 호의적이지 못하다. 우리는 그들의 정착을 돕고 남한사회에 통합 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이주자들의 어려움과 특수 상황에 대한 세심한 돌봄과 배려는 곧바로 인권 존중의 실천이다. 정부나 사회차원을 넘어 바로 YWCA가 맡아야 할 일이라 하겠다.

셋째, 여성지도력을 발굴하고 개발해야 한다. 기독교시민운동 단체로서 여성이 주체가 되며 여성이란 이름으로 인해 정의와 평등의 가치에 위배되어 벌어지는 모든 사회적 제도나 정책, 태도 불공정함과 불평등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가 오늘 생각하고 결정하는 모든 일은 오늘을 사는 여성과 앞으로 올 세대에 연결되고 이어진다. 우리는 1세기 전 여성운동 선구자들의

정의, 평화, 생명 비전 지켜야

문복희
한국YWCA 연합회 실행위원
가천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여성운동 100년을 향해 걸어온 한국YWCA의 길은 꿀처럼 달콤한 길은 아니었다. 세상을 살리기 위한 생명의 바람이 가는 길이었고, 돌봄과 나눔을 통한 평화의 길이였다. 그래서 그 길은 물처럼 맑은 길이였다. 인간의 사귄에 비유한다면 “군자의 사귄은 맑기가 물과 같고, 소인의 사귄은 달기가 꿀과 같다(君子之交 淡如水, 小人之交 甘如蜜)”는 옛말과 통한다. 군자의 사귄은 늘 변함없는 물맛과 같으며, 또한 물처럼 한 곳으로 흐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에 반해

소인의 사귄은 순간의 즐거움에서 달콤함을 찾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소인과 군자의 다른 점이다. 결국 한국YWCA가 걸어온 길은 소인의 길이 아니라 군자가 걸어온 대로(大路)였다.

그동안 100년을 향해 대로(大路)를 걸어온 한국YWCA는 우리의 자존감(self-esteem)을 높이기엔 충분하다. 어느 단체도 흉내 낼 수 없는 한국YWCA의 역사와 가치를 우리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존감(自尊心)은 자만심(自慢心)과는 다르다. 자만심은 자신이나 자신과 관련된 것을 스스로 자랑하며 뽐내는 마음이다. 자만심이 넘치면 남에게 혐오감을 주며, 내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자기 착각에 빠져 헛된 욕망을 품게 된다. 또한 자존감은 이기주의(self-centeredness, egotism)와도 다르다.

내면적으로는 자신을 믿지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므로 일어나는 불안정한 감정의 표현이 이기주의다. 단지 약점을 가리기 위해 자신의 생각과 언행만을 고집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나 자존감은 자기 사랑이나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말한다. 자존감은 자아가치(self-worth)에서 출발한다. 나의 존귀한 가치를 스스로 귀하게 여기고 자기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길 줄 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할 줄 안다. 사실 정신분석학이나

상담학, 교육학에서도 자존감을 매우 중요시한다. 왜냐하면 자존감의 높고 낮음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YWCA에 대한 높은 자존감을 갖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자존감을 높이기 위하여 우선, 여성운동 100년을 향해 걸어온 한국YWCA를 ‘가까이서 보기’ 바란다. 그리고 동시에 ‘멀리서 보기’ 바란다. 한국YWCA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를 가까이서 그리고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동안 나눔과 섬김의 정신으로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온 우리의 모습을 자존감으로 바라보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100년을 향해 걸어온 역사의 발자취를 토대로 하여 정의, 평화, 창조 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향해 새로운 비전을 세워 나가야 한다.

작은 헌신과 나눔이 모이고 모여서 삶의 자리가 된 YWCA 생활 속에 직접 들어가서 활동을 함께하며 ‘가까이’ 초점을 맞추고 바라보라. 그러나 때로는 ‘멀리’ 떨어져서 바라볼 때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기 바란다.

이제, 여성운동 100년의 역사 속에 우리가 반드시 지켜 나가야 할 것은 높은 자존감과 새로운 비전이다. 아울러 앞으로 우리 한국YWCA의 길은 풀처럼 달콤한 길이 아니라 물처럼 맑은 길이 되길 바란다. *

기독교 유아교육분야 아동중심교육 이정표 되기를

임희옥,
신구대학교 복지교육과
복지위원회 실행위원

YWCA와 인연을 맺은 것은 나의 전공과 관련이 있다. 기독교유아교육의 모델이 될 만한 기관을 설립하고자 YWCA가 유아교육 전문가들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설명을 듣고 망설이지 않고 참여하였다. 그러나 여러 가지 검토와 현실적 여건으로 YWCA 시범 어린이집 설립을 포기하게 된 후에도 YWCA와 인연을 지속하게 된 것은 ‘기독교유아교육과정’ 개발 작업 때문이었다. 교육과정 개발이라는 큰 작업에 용감하게 나설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막연하게나마 YWCA를 믿을 수 있는 여성단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평소에 존경하는 은사님이신 이은화 교수님의 격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후배들을 설득하여 몇 년에 걸쳐 전국의 30여 개 부속 어린이집의 원장, 교사들과의 협력에 힘입어 ‘기독교유아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미흡하나마 기본적인 틀을 만들게 되었다. 그리고 여전히 방학 때마다 교사교육 요청이 있으면 부족한 능력과 자질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기꺼이 참여하는 것은 YWCA의 실무자와 그들의 열정을 보았기 때문이다. 여성의 힘으로 정의 평화 생명의 교육을 교육은 하겠다는 그들의 열정이 부족한 나를 지원하였다.

유아교육은 역사적으로도 유아교육 자체보다는 여러 가지 사회적, 정치적 이슈와 연결되어 교육의 철학, 내용, 방법 등에 영향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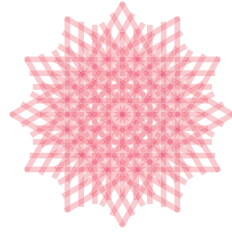
받은 한다. YWCA어린이집 역시 YWCA의 훌륭한 사업과 운동 방향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또한 그 안에서 운동의 방향과 내용을 따라가기도 한다.

하지만 유아교육기관이 본래 유아를 위한 교육철학, 방법, 내용 등을 포기하고 여성주의 혹은 생태주의에 영향을 받아 아동중심 사상을 놓쳐버리게 되면 아동의 발달에 적절하지 않은 교육을 실행하게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지나친 여성운동 사상에 몰들면 모성의 양육이 필요한 절대적 필요 시간을 접어두고 유아의 발달에 적합하지 않은 24시간 탁아, 심야탁아 같은 제도를 지향하게 되는 경우가 그것이다.

바라기는 YWCA어린이집이 YWCA 운동을 실현하는 부속 사업 중의 하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교육뿐 아니라 아동중심교육으로도 모범을 보이는 YWCA어린이집이 되어 기독교유아교육 연합회 분야에 커다란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YWCA가 되기를 바란다. *

김필레의 생애와 YWCA

YWCA 창설 및 발전과정에서의 김필레의 활동과 공헌을 중심으로



홍승표
기독교사상 편집장
연세대 박사과정



여는 글

김필레는 YWCA의 창설자로, 서울의 정신여학교와 광주의 수피아여학교의 교장을 역임한 교육자로, 여전도회연합회 회장으로서 평생을 한국의 여성의 인권과 교육, 민족운동과 구국계몽운동, 기독교 선교와 전도활동에 헌신했던 대표적인 지도자로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동안 김필레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와 평가는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 글은 한국 YWCA의 창설을 가장 먼저 고민했고, 이를 실행에 옮김으로써 한국 기독교 여성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김필레의 민족운동, 여성운동, 교육운동, 그리고 그의 신앙과 사상이 한국 YWCA의 역사에 어떻게 투영되었고 영향을 미쳤는지를 조명해 봄으로써 그가 오늘의 YWCA에 남긴 유산과 과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자 한다.

1. 김필레의 성장과정

1.1. 김필레의 출생과 집안의 우환

김필레는 1891년(고종 28년) 12월 19일 황해도 장연군 대구면 송천리에서 아버지 광산(光山) 김씨 성섭(聖燾)공(광산김씨 문숙공파의 34세대손)¹과 어머니 순흥(順興)안(安)씨(뒤에 기독교 입교 후 이름을 성은(聖恩)으로 바꾸었음)의 열 번째 자녀로 세상에 태어났다.² 첫 부인에게서 윤방(允邦), 윤오(允伍), 윤열(允烈)을 낳았으며, 후

1. 김필레의 증조부 김희격(金喜格)은 참관 벼슬에까지 올랐던 선비였다. 그러나 김희격은, 매관매직과 서로 참소하고 귀양 보내기에 열중하느라 도탄에 빠진 백성들의 생활은 뒷전으로 미뤄 두었던 구한말 부패한 조정의 깊은 회의를 느껴 시골로 내려가 농사를 짓기로 결정하고 형제들과 상의했다. 증조부를 따라 낯선 시골로 낙향하게 된 김필레의 집안은 가산을 정리하여 가져온 돈으로 황해도 장연 불타산(佛陀山) 앞쪽 부채꼴 모양의 버려져있던 들밭을 모두 사들여 옥토로 바꾸는 작업을 했다. 이 일은 김필레의 조부가 앞장서서 했다. 조부는 원래부터 소래마을에 터 잡아 살고 있던 사람들과 이웃마을 사람들을 일꾼으로 사들여 1년여의 기간을 들여 개척했다. 그리하여 그 지역은 김필레 집안을 중심으로 새로운 촌락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기서, 『교육의 길, 신앙의 길 : 김필레 그 사랑과 실천』, 태광문화사, 1988, 26.
2. 이기서, 같은 책, 23.

처인 안성은(安聖恩, 1859-1940)에게서 필순(弼淳), 구례(具禮), 노득(路得), 인순(仁淳), 순애(淳愛), 필례(弼禮)를 낳았다. 자녀들은 한결같이 신체가 건강하고 슬기로우며 시대에 민감한 진취적 성격을 지녔다고 한다. 또 한국에서 가장 먼저 복음이 들어온 소래마을(황해도 장연 송천)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온 가족이 기독교를 받아들였다. 이들은 굳건한 신앙과 신교육을 통하여 개화의식과 애국애족의식이 남달리 강했으며 그것을 적극 실천하며 살았다. 김필례 집안의 인물들은 대부분 우리나라 근대사의 사회적, 문화적 선각자들이자 항일구국운동의 선봉자들이었다.³

김필례 형제들 중 오랫동안 대를 이어간 자녀는 4남 4녀였는데, 그 형제들의 면면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김윤방(남)	장녀 김함라(남편 남궁혁 : 신학박사) 차녀 김미렴(남편 방합신 : 의사) 삼녀 김마리아(독립운동가)
둘째	김윤오(남)	손녀 고향경(서울여자대학교 초대총장)
셋째	김윤열(남)	장원급제 후 귀향 중 장티푸스로 사망
넷째	무명(여)	영아 당시 사망
다섯째	김필순(남)	세브란스 1회 졸업생, 독립운동가
여섯째	김구례(여)	남편 서병호 : 초대 기독교인 서경조의 아들, 상해 신한청년당 당수, 독립운동가
일곱째	김노득(여)	남편 양응수(목사)
여덟째	김인순(남)	경신학교 졸업
아홉째	김순애(여)	남편 김규식(독립운동가)
열 번째	김필례(여)	남편 최영욱(광주기독병원 의사)

김필례의 집안이 모두 기독교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에는 연이어 닥친 집안의 우환도 중요한 원인이었을 것이다. 김필례의 아버지는 전통의식이 강한 사람

3. 박용욱, 『김마리아: 나는 대한의 독립과 결혼하였다.』, 흥성사, 2003, 55.

이었다. 선대 조부들이 소래마을로 낙향한 후 경제적으로는 부유하였으나,⁴ 3대 이래로 과거에 급제하여 관인이 된 사람이 없었다. 김성섭은 이를 한탄하였는데, 셋째 아들인 윤열(允烈)이 여러 형제 가운데 가장 명민하여 그가 가문을 드높일 것으로 믿고 과거 준비를 위한 뒷바라지를 힘껏 해 주었다. 결국 윤열은 장원급제를 하였고 그러한 기쁜 소식을 안고 귀향하던 중이었는데, 돌연 장티푸스에 걸려 객사하는 불운을 맞았다. 그의 죽음은 온 가족을 슬프게 했는데, 특히 김성섭은 극심히 애통해 했다. 그로 인해 화병이 나 자리에 눕게 되었고, 아무런 차도도 없이 병이 점점 깊어 가고 있던 1891년 12월 19일에 김필례가 태어난 것이다. 김성섭은 태어난 아이가 아들이 아님을 보고는 몹시 서운해 하며 계집아이는 그만 낳으라는 뜻으로 이름을 필녀(畢女)라 짓고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이렇게 가부장적인 권위주의와 남성우월주의가 강했던 김성섭은 막내가 태어난 지 두 달 만에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그 4개월 뒤에 첫째 오빠인 윤방이 김마리아를 낳았고, 김필례와 김마리아가 3살 되던 해인 1894년에 첫째 오빠이자 김마리아의 아버지인 김윤방도 34세의 나이로 병사하고 말았다. 이는 김필례의 탄생 직후에 벌어진 집안의 커다란 우환이었다.⁵

1.2. 소래학교에서의 신식교육

김필례의 어머니 안성은(安聖恩)은 34세⁶의 젊은 나이에 자신이 낳은 6명의 자녀를 거느린 채 혼자가 되었다. 그러나 강건하고 열정적인 성품을 지녀 곳곳한 의지를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였다.

4. 소래마을의 광산김씨 가문은 서울에서 대대로 이어온 명문집안으로 증조부 때 송천리(소래마을)에 정착한 부호였다. 소래마을의 비옥한 땅은 거의 김씨 가문의 것이었으며, 주민 모두를 소작인으로 거느리고, 99칸 집에 어린 아이인 막내딸 김필례에게도 몸종이 있었다고 한다. 고춘섭 『교회 창립 115주년 기념 - 연동교회 애국지사 16인 열전』, 대한예수교장로회 연동교회 역사위원회, 2009, 111.
5. 박용욱, 같은 책, 56.
6. 안성은은 1940년에 82세로 별세했다는 기록(이기서, 같은 책, 171.)이 있으므로 그는 1859년생임. 박용욱, 같은 책, 443쪽에서 재인용.

김필레가 자란 소래마을에는 소래학교⁷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남자아이들만 다닐 수 있었지만, 때마침 여성교육이 국가 발전의 요체요 과제라는 인식이 늘어나면서 남녀공학으로 전환되었다. 그래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좌석을 갈라놓고 가운데 회장을 치고 공부했다. 이처럼 여성교육이 가능해지자 김필레 집안에서도 딸들을 모두 소래학교에 보냈다. 구례, 순애, 노득, 필레 등과 함께 조카들인 함라, 미림, 마리아도 모두 소래학교를 다녔다.⁸

처음 학교 문을 열었을 때 선생님은 이국보 한사람으로서 김필레는 그에게 배웠다. 성실과 충명, 그리고 자존심이 강한 김필레는 숙제를 해가지 않거나 시험을 잘못 치러 매를 맞는 일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한다. 뒷날 연동여학교에 다닐 때 이 학교에서 배운 공부가 큰 밑거름이 되었다. 학과목은 성경도설, 구약 발췌, 한글, 천자문, 습자, 작문 등이었다.⁹

언더우드는 소래마을을 찾을 때면 소래학교 학생들에게 시험을 보게 하고 성적이 좋은 학생들에게 상을 주려고 많은 선물을 가져왔다. 당시 이 시험에서 상급생들을 제치고 조카인 김마리아가 1등, 막내 고모인 김필레가 2등을 하였다고 한다.¹⁰

1.3. 어머니 안성은의 개종과 신앙생활

안성은이 낳은 자녀 중에서 첫째인 김필순¹¹은 키가 훗칠하고 건장하였으며 성

품도 바르고 두뇌 또한 명석하였다. 김필순이 17세 때(1893)에 언더우드 선교사는 그를 서울 배재학당에 유학을 보내면서 자신이 책임지고 공부시켜 훌륭한 청년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처음에 어머니 안성은은 서울로 유학가면 기생 집이나 드나들며 못쓰게 된다고 거절하였으나, 간곡한 권고를 받아들여 김필순은 김필레 가문의 첫 서울 유학생이 되었다.¹²

이때까지도 안성은은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성은이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은 김필순이 여름방학에 집에 돌아와, 조상신처럼 여겨지며 대대로 내려오던 오래 된 관복을 모두 불살라 버린 사건을 일으킨 후 부터였다. 김필순은 비상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자기 어머니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고 생각하여 막내 동생 김필레를 불러 함께 대청마루 시렁 위에 모셔진 조상의 관복들을 모두 꺼내 마당에서 불을 질렀던 것이다. 외출했다 돌아온 안성은은 이 광경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가문대대로 애지중지 모셔온 것들을 사랑하는 자식들이 겐더미로 만들어 버렸으니 실로 눈앞이 캄캄했다. “조상을 불 지르다니!” 하고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던 안성은은 곧 방으로 들어가 드러누운 채 식을 전폐하였다. 가족들이 용서를 빌며 복음을 전해도 막무가내였던 그가 그러던 중 놀랍게도 스스로 결심을 하였다. 이제는 죽어서 조상을 뵈을 날이 없으니 자식들 말대로 예수께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에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였던 것이

7. 소래교회에 이어 1897년에는 소래학교가 설립되었다. 이 일은 서경조와 서상륜, 그리고 김필레의 두 오빠인 김윤방, 김윤오의 추진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소래교회의 병설학교로 시작해 나중에는 해서제일학교로 이름을 바꾸었다. 그리고 4년제 보통학교로 인가까지 받았다. 고춘섭, 같은 책, 113.
 8. 박용옥, 같은 책, 86.
 9. 고춘섭, 같은 책, 114.
 10. 박용옥은 어떤 내용의 시험을 보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주로 성경지식에 관한 문제를 출제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박용옥, 같은 책, 91.
 11. 김필순(金弼淳, 1878-1919)은 한학을 공부하였으며, 일찍부터 언더우드 등 선교사들과 자유롭게 접촉할 기회를 가져 1894년 언더우드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1895년 언더우드의 요청으로 언더우의 집에 머물면서 배재학당에 입학했다. 남달리 영어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특히 영어발음이 매우 좋았다고 한다. 그래서 후에 에비슨의 의학강의 시간에 자주 통역을 하게 되었다. 4년간 배재학당에서 학업을 마친 김필순은 1899년 계중에서 처음에는 서록스의 통역 및 조수로 일하다가, 자연스럽게 1900년부터 에비슨의 통역 겸 조수로 활동하였다. 김필순은 의학도로서 병실 및 외래에서 보조역할을 했고 많은 책을 번역하였을 뿐 아니라, 수년간 병원의 경영에 관해서도 상세한 지식과 경험을 쌓았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이미 졸업 전에 저학년 학생들의 강의도

담당하였다. 당시 에비슨은 그의 능력을 인정해 장차 세브란스 병원의 책임을 맡고 조선의 의학을 이끌어갈 제목으로 키우려 했기에 김필순을 세브란스병원 건축과정에도 적극 참여시켰다. 이후 을사늑약(1905)과 정미의병(1907) 이후 105인 사건(1911)에 연루된 김필순은 만주와 몽고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1908년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를 제1회로 졸업하였다. 재학 중에 황성기독교청년회와 상동교회를 번갈아 왕래하면서 구국운동가로 활동하였다. 도산 안창호(安昌浩)와 결의형제를 맺고 1907년 신민회가 조직될 때, 그 회원이 되었다. 한편 1900년대 세브란스 병원에 재직하면서 자신의 집을 독립운동가들의 협의장소로 제공하였다. 1910년을 전후하여 해외에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독립운동가들 사이에 활발히 전개되었다. 이에 따라 전 국민은 무장 세력의 양성과 군비를 갖추면서 독립운동의 기회를 기다려야 한다는 전제 아래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김필순은 1911년 중국으로 망명하여 이동녕(李東寧), 전병현(全秉鉉) 등과 함께 서간도 지역의 독립운동기지 개척에 힘썼다. 그 후 내몽고 치치하얼에 수십만 평의 토지를 매입하고 이곳에 100여 호의 한인들을 이주시켜 무관학교를 설립하고 독립운동의 후방 기지로 개척하고자 하였다. 그는 의료업을 하면서 독립운동에 종사하던 중, 1919년 9월 1일 일본인 조수가 주는 우유를 먹고 콜레라에 걸려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12. 이기서, 같은 책, 32.

다.¹³ 기독교를 받아들여지게 된 안성은은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하였다. 세례를 받고 성경학교를 졸업하고는 전도생활에 전념하였다. 그는 거처하는 집 옆에 '기도하는 집'을 짓고 틈나는 대로 이곳에서 기도를 했다. 전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믿어 파이팅(Whiting) 선교사를 따라 황해도 일대를 걸어 다니며 전도했다.¹⁴

또 막내 딸 김필례가 도쿄 유학을 마치고 귀국 후 결혼을 하여 광주에서 교사생활을 할 때 딸을 따라 광주에 갔는데, 거기서도 전도생활로 나날을 보냈다. 그는 자연히 개화의식이 높은 선각 여성으로 변신하였다. 그리고 1940년 1월 사망(당시 82세)하기까지 전국 곳곳을 누비며 전도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기독교 전파에 헌신했다. 이러한 안성은의 전국을 대상으로 한 전도활동과 열정은 그대로 막내딸 김필례에게 그대로 계승되었던 것이다.

1.4. 김필례의 연동여학교 입학

한편 배계학당을 졸업한 김필순은 제중원의 의료선교사로 활동하던 에비슨(O. R. Avison)박사에게 의학을 배우면서 조수로 일하고 있었다.¹⁵ 당시 제중원의 의술이 널리 알려져 환자수가 부쩍 늘어났고 아울러 입원 환자수도 많았다. 병원으로서의 환자들의 식사를 해결해 주는 일이 시급하였다. 이에 김필순은 어머니와 자신의 아내라면 환자들의 식사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어머니에게 소래의 가산을 정리하고 가족들을 데리고 서울로 오라고 하였다. 이에 안성은은 용단을 내려 가산을 정리하고 인순, 순애, 필례, 그리고 필순의 아내를 이끌고 서울로 갔다. 이때가 1901년이였다.

안성은은 며느리와 함께 환자들의 식사를 담당하고, 인순은 경신학교에, 순애와 필례는 연동여학교(지금의 정신여자중고교)에 입학시켰다.¹⁶ 연동여학교

13. 이기서, 같은 책, 33-35.
 14. 안성은은 주로 겨울에 전도여행을 했기 때문에 가을이 되면 부지런히 농사일을 마무리하고 김장을 담그고 엿도 고아 놓고는 친정에 집안일을 부탁한 다음 추운 겨울 내내 황해도 일대를 구석구석 찾아 다녔다. 이기서, 같은 책, 35-41.
 15. 박형우, 『제중원』, 도서출판 몸과마음, 2002, 199.
 16. 큰 오빠의 딸 '함라'는 이미 입학해 다니고 있었다. 고춘섭, 같은 책, 114.

시절에 대해서 김필례는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연동여학교의 수업방식은 엄하고 철저한 것이 특색이었다. 어느 과목이든 예외 없이 외기를 잘 시켰다. 그리고 외지 못하면 매를 맞거나 벌을 받아야 했다.¹⁷

학생들의 학업성취육을 돋우고 바른 생활로 지도하기 위하여 공부상, 특별상, 행실상 등을 주었으며 공부상은 학업성적이 뛰어난 학생에게 주는 것으로서 연필, 종이, 책을 상품으로 주었으며, 학업성적이 아주 뛰어나면 월반을 시켰다. 김필례는 두 번이나 월반을 하였고 최우수학생으로 졸업하였다. 또 최우수 학생에게는 상급으로 품급 배우는 것을 허락하였는데, 이때 품급을 배우는 학생은 모든 학생들의 우러름을 받았다.¹⁸

2. 김필례의 일본유학과 YWCA

2.1. 김필례의 일본유학 결정

2년을 월반하여 연동여학교 제1회 졸업생이 된 김필례는 졸업생 중 최초로 외국 유학차 일본 도쿄(東京)의 여자학원(女子學院)¹⁹에 입학해 사회의 큰 관심과 기대를

17. 이기서, 같은 책, 49.
 18. 박용욱, 같은 책, 107.
 19. 김필례가 다녔다고 알려져 있는 '도쿄여자학원(東京女子學院)'은 어떤 학교일까? 최근 한·일 YWCA의 관계사를 연구한 홍이표에 의하면 도쿄지역의 명문대학인 도쿄여자대학은 1918년에 창설되었기 때문에 김필례가 유학하던 시기엔 존재하지 않는 학교였다. 또 현재의 '도쿄여자학원'을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면 1936년에 창립된 기독교와 무관한 여자사립중고교가 조사될 뿐이다. 그 과정에서 김필례가 다닌 '도쿄여자학원'은 '이화학원', '덕성학원' 같은 고유명사로서, 도쿄에 있는 '여자학원'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김필례가 다녔던 학교는 공식명칭이 '도쿄여자학원'이 아니라, 도쿄에 위치한 '여자학원'이라고 불려야 할 것이다. 도쿄의 '여자학원'은 1870년(明治3年), 여선교사 줄리아 카로조르스에 의해, 도쿄(東京)의 츠키지(築地) 거류지(居留地)에서 'A6번 여학교'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기독교주의 학교였다. 그 후, B6번 여학교(훗날 신에이여학교, 新栄女学校) 및 하라여학교(原女学校)와 미세스 츠루(ミセス・ツル)를 비롯한 부인 선교사들에 의해 그 정신이 계승되어 1890년(明治23)에 사쿠라이여학교(桜井女学校, 1876년 사쿠라이(桜井) 등이 설립)가

불러일으켰다.

○여학도유학(女學徒遊學)

연동교당 여학도 졸업생 김필례씨(蓮洞教堂女學徒卒業生金苾禮氏)가 학문을 일층수업(一層修業)할 차(次)로 작일상오 8시경(昨日上吾八時頃)에 경부철도 제일번열차(京釜鐵道第一番列車)를 탑승하고 일본으로 도거(渡去)하였다더라²⁰

○여학생도래(女學生渡來)

서북학회(西北學會) 총무원(總務員) 김윤오(金允伍)씨의 영매(令妹) 김필례(金弼禮)씨가 경성(京城) 청년학원(靑年學院) 여자사범과(女子師範科)를 졸업하고 도쿄(東京)에 유학할 차(次)로 본월 7일경에 도래(渡來)하였는디 기(其) 숙덕(淑德)과 학식(學識)이 아국(我國) 여자사회의 모범이 될만 하였다더라.²¹

김필례의 도쿄 여자학원 유학은 남다른 의미가 있는데, 김필례의 전기에 의하면 을사늑약의 체결과 1907년 구한국 군대의 해산과정을 지켜보며, 김필례는 기울어져가는 민족의 명운 앞에서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 더 배워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 특히 해산된 한국 군대와 일본군이 서울 시내에서 교전을 벌인 이후에 세브란스병원으로 부상자들과 시체들이 쏟아져 들어와 이를 치료하던 김필순의 부탁으로 부상병들을 간호했던 경험은 김필례의 일본유학 결심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다. 김필례는 고난 받는 민족을 위해 새로운 학문과 문물을 빨리 익혀, 동포들을 무지에서 깨우쳐 나라의 힘을 키우는 일이 자신의 소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일본 유학을 결정할 당시의 김필례는 다음과 같이 다짐했다.²²

신에이여학교(新榮女學校)와 합병해 교명을 「조시가쿠인(女子學院)」 즉 '여자학원'이라고 고쳐 야지마 카지코(矢嶋樞子)를 초대 원장으로서 현재 위치에 교사를 신축해 발족하였다. 훗날 여자학원 내부에 설치한 '대학부'가 1918년 설립된 도쿄여자대학에 합병되어 들어가므로 현재의 도쿄여자대학과도 일정한 관련성을 지니는 학교인 셈이다. 김필례가 유학한 도쿄의 '여자학원'에 관해서는 홍이표의 논문 '일본 YWCA의 한일 기독교 관계사적 의미 - 한국 YWCA의 초기 설립과정을 중심으로', 『The 7th Korea-Japan YWCA Conference 자료집』, (October.7(Thu)-10(Sun). 2010. 10. 7-10., National YWCA of KOREA), 96-98쪽을 참조 바람.

- 20. '여학도유학', 『皇城新聞』, (1908년 9월 5일자 2872호)
- 21. '잡록(雜錄)', 『태극학보』 제24호, 1908년 9월 24일자.
- 22. 이러한 김필례의 선각적인 행보는 이후에 도쿄여자학원을 유학하는 이해경, 김마리아 등에게 영향을 미친

'내가 앞으로 일본에 간다면 그것은 나 개인 김필례로 가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아니라 조선이다. 내가 만약 일본에 가서 일본인들과 겨루어 진다면 이는 나 개인 김필례가 일본에 지는 것이 아니라 조선이 일본에 지는 것이다.'²³

2.2. 도쿄여자유학생친목회의 조직

당시 일본에서 공부하는 한국인 유학생들은 거의 모두 우국적 기개가 높아 모 일 때마다 조국의 독립을 논의하였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무지몽매하였던 그 시대에 여자 유학생들은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여성 지식인들이었다. 그들은 구국적 차원에서 여자교육을 논하고, 여자의 동등한 인간적 권리와 사회참여의 길을 모색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표현하고자 1915년 4월 3일 김정식(金貞植)의 집에 김숙경(金淑卿), 김정화(金貞和), 김필례, 최숙자 등 10여명이 모여 '도쿄여자유학생친목회'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회장에 김필례가 피선되었다.²⁴ 이 모임은 여자유학생간의 친목도모와 더불어 한국 여성계의 광명이 되어 스웨덴의 여성 해방론자인 엘렌 케이(Ellen Karolina Sofia Key, 1849-1926)와 같은 이상적 부인의 삶을 창조하는데 목적을 두었다.²⁵

도쿄여자유학생 친목회를 조직한 후 여러가지 활동준비를 하던 중 회장 김필례가 모교인 정신여학교의 부름을 받아 교사로 봉직하기 위하여 1916년 봄에 귀국함으로써 이 모임의 회장직은 김마리아가 이어받게 되었다.²⁶

2.3. 일본 YWCA와의 첫 만남

<한국 YWCA 반백년>에서는 아래와 같이 김필례의 일본 유학 경험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것으로 보인다.

- 23. 이기서, 같은 책, 59.
- 24. '우리消息', 『학지광』, 5호, 1915, 64.
- 25. 박용옥, 같은 책, 136.
- 26. 박용옥, 같은 책, 138.

1908년에 일본으로 유학 간 김필례(金弼禮)는 1916년 동경여자학원(東京女子學院)에서 수학하고 돌아와 모교인 정신고녀(眞信高女)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가 1918년 의사 최영욱(崔泳旭)과 혼인하여 광주(光州)에서 살고 있었다. 김필례는 일본에서 유학할 때 도쿄 여자기독교청년회가 경영하는 기숙사에 있으면서 YWCA 사업의 귀중함을 몸소 체험하고 한국에도 이런 회(會)를 창설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²⁷

1907년 정신여학교(眞信女學校)를 제1회로 졸업한 후, 일본말이나 글자를 하나도 모른 채, 1908년 6월에 도쿄로 유학을 떠났다. 중국학생 4명과 함께 3개월간 일어교육을 받았고, 6개월 동안 심상소학교(尋常小學校, 현 초등학교) 교본 전 12권을 마친 다음 1909년 4월 도쿄의 '여자학원(女子學院)' 중등부에 입학하여 서양사를 공부하면서 처음으로 YWCA를 접하게 되었다. 이 학교의 중등부 5년(1913년 졸업), 고등부 3년 과정(1916년 졸업)을 거치는 동안 방학 때마다 기숙사가 폐관되면 학교 주선으로 YWCA 기숙사(나도초)에 보내졌고, 개학 후에도 YWCA 인사들의 방문이 있었으며, 고등부 시절에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학생 YWCA에 가입하여 임원이 되었다.²⁸ 김필례는 YWCA 기숙사에서는 성경을 이론적으로 가르치거나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성경의 말씀을 일상생활과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다는 점에 큰 감동을 받았다.²⁹

특히 이 당시 일본 YWCA 동맹 총무였던 가와이 미치코(河井道子, 1877-1953)³⁰는 “일본이 폭력수단을 동원해 약소국인 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행위는 세계인의 규탄을 받아 마땅한 야만행위이며, 일본은 조선을 강점해선 안 된다”는 주장을 하였다.³¹ 김필례는 가와이 미치코의 이러한 양심적 발언과 태도를 대하면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러한 동기로 한국에 돌아간다면 반드시 YWCA를 창설하겠다는 뜻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중 마침 테라우치 총독 암살미수사건(105인 사

건)에 오빠 김필순(金弼淳)이 연루되어 만주로 망명하게 되자 학비 조달이 어려워져 도쿄의 '여자학원' 동창회의 장학금과 도쿄 유학생회의 학비 보조금을 받아 가며 겨우 학업을 끝마칠 수 있었다.³² 이처럼 김필례는 1908년 6월 일본에 유학을 가자마자 설립 된(1908.10.31.) 일본 도쿄 나도초(納戸町)의 YWCA 기숙사에서 수많은 일본 YWCA의 사업과 활동을 몸소 체험했으며, 미래의 조선 YWCA 창립을 염원하고 꿈꾸었다.³³

김필례가 일본에서 돌아와 한국 정신여학교에서 활동을 재개한 시점은 1916년이다.³⁴ 따라서 1908년 6월부터 1916년까지 8년 정도의 중고교, 전문학교 시절을 모두 일본에서 보냈던 것이다. 예를 들어 '1914년 간다(神田) YMCA회관에서 개최된 여자학생대회에는 200명의 여학생들이 참가했다'³⁵라고 전하는데 그 당시 김필례는 인근 도쿄 '여자학원' 고등부에 재학하면서 동시에 나도초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었으니 충분히 이 대회를 비롯한 YWCA의 여러 행사들에 참석했을 개연성이 높다. 그러한 지적, 신앙적 감수성과 구국의 애국심이 충일하던 당시의 예민한 시기에 김필례가 일본 YWCA와 학교 YWCA에서 배우고 익힌 것은 이후 조선YWCA 설립을 위한 소중한 경험과 자산이 되었던 것이다.³⁶

2.4. 김필례의 일본유학과 YWCA 창설의 관계

훗날 조선에 YWCA가 탄생하고 지방조직을 구성하자 조선 YWCA 연합회는 ① 기도와 성서연구 및 교양강좌, 연합회보 발간, ② 각 지방 단체의 금주회(禁酒會) 조직과 절제운동, ③ 공창(公娼) 제도의 폐지 운동 등 3가지의 목표 과제를 설정³⁷했

27. 한국 YWCA 50년사 편찬위원회, 『한국 YWCA 반백년』, 서울, 대한YWCA연합회, 1976, p.12.
 28. 홍이표, '일본 YWCA의 한일 기독교 관계사적 의미 - 한국 YWCA의 초기 설립과정을 중심으로', 『The 7th Korea-Japan YWCA Conference 자료집』, (October.7(Thu)-10(Sun). 2010. 10. 7-10., National YWCA of KOREA), 96.
 29. 이기서, 같은 책, 137.
 30. 여성들에게만 붙이던 '코(子)'를 버리면서 이름을 가와이 미치(河井道)로 바꾸어 부르기도 했다.
 31. 이기서, 같은 책, 138.

32. 한국 YWCA 반백년, 서울, 대한YWCA연합회, 1976, pp.24-25.; 천화숙, 「일제하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연합회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6.), 16.
 33. 홍이표, 같은 글, 96.
 34. 김필례는 정신여자중학교 교사(1916-1919년)를 거쳐 1922년 교감이 되었다. 그 해에 창설된 광주 기독교청년회의 첫 교육 사업으로, 서창균(徐昌均)과 자선음악회를 주선해 기금을 마련, 광주시 양림동에 있는 유치원을 인수하도록 도와주었다. 그 직후 1922년 김활란과 만나면서 YWCA 설립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
 35. 渡辺峯, 『年表日本YWCA80年史(1905-1984)』, p.54.
 36. 홍이표, 같은 글, 96.
 37. Mrs. Kak Kyung Ryue, "A Brief History of the Korean YWCA", KMF, vol. XIX, No.11, (1923. 11.), p.231.; 『한국 YWCA 반백년』, p.33.

는데, 이것들은 이미 일본 YWCA가 선행해 펼치고 있던 활동들이었다.³⁸ 그 정신은 여자노동야학원의 문맹퇴치운동, 의료봉사, 금주, 금연, 흰 옷 염색하기, 도박 금지, 조혼금지, 공창폐지 등의 프로그램 진행활동에서 엿 볼 수 있다.³⁹

이 사실만 보더라도, 김필레가 일본유학시절 경험했던 YWCA의 프로그램과 활동내용은 1922년 조선 YWCA의 탄생에 중요한 아이템과 밑거름을 제공해주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일찍이 일본 YWCA의 경험적 자산을 미리 배우고 익혀 한국에 돌아온 김필레는 한국 YWCA 창설의 구상과 구체화를 위한 가장 선구적이며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다.

3. 결혼, 광주생활, 3.1운동 그리고 삶의 변화

3.1. 김필레의 결혼과 광주생활

도쿄의 여자학원을 졸업하고 그곳에 남아 학생들을 가르치기로 약속되어 있던 김필레는, 그러나 정신여학교의 루이스 교장의 간곡한 요청으로 1916년부터 1918년까지 정신여학교에서 가르치게 되었다. 이때 김필레는 역사와 세계사, 교회사 등을 강의했다.⁴⁰

그 사이 김필레의 어머니는 10여 년 동안 화이팅(whiting)선교사 등과 함께 북장로회 관할구역이었던 황해도 일대를 전도여행을 하던 중에 화이팅 선교사가 남장로회 소속의 오웬 목사와 결혼하여 광주로 내려가자 어머니 안성은도 광주로 따라가 있었다.⁴¹ 그리고 그곳에 거처를 마련하고 전도활동을 지속했다. 일본

유학 당시 잠시 광주를 들러 광주기독병원에서 코뼈 수술을 했던 김필레에 관심을 가졌던 세브란스의전 출신의 최영욱으로부터 정중한 결혼 제의가 들어왔다. 이에 김필레는 몇 차례 최영욱과의 만남을 갖고 나서 이 사람은 자신의 교회와 교육, 그리고 사회사업에 대한 철학과 이념을 지지해주고 실현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여 결혼을 결심했다.⁴² 이윽고 1918년 6월 20일에 이명혁 목사의 주례로 최영욱과 연동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린 김필레는, 오빠인 김필순이 진행 중인 중국 할빈성 치치하알(齊齊哈爾)의 이상촌 건설과 독립운동 활동을 돕기 위해 최영욱과 치치하알에서 신혼생활을 했다. 최영욱은 신식교육을 받은 김필레가 광주에서의 시집살이를 살아내기 어려울 것이라 여겨 치치하알 신혼생활을 결정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내 고향의 어머니 걱정 때문에 힘들어 하고 이를 알게 된 김필레는 시어머니를 잘 모시겠다는 다짐을 하고 남편과 함께 얼마 후 광주로 내려가게 되었다.⁴³

광주생활을 시작한 김필레는 수피아여학교(須彼亞女學校)의 교사로서 근무를 시작함과 동시에 며느리로서의 역할에 헌신을 다했는데, 당시 함께 생활했던 질녀 최경애(김영환 목사 부인)는 ‘숙모님은 집안일이나 학교일이나, 교회일에 모두 골고루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고 진술하고 있다.⁴⁴ 이렇듯 광주에서 가정생활과 사회생활, 신앙생활을 모두 헌신적으로 수행했던 김필레는 당시를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난 광주 사람들에게 기회가 생길 때마다 교육의 필요성을 일깨워 주고 싶었지요, 그리고 배운 사람이 배우지 못한 사람보다 모든 면에서 낫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

38. 김수경, 「한국 기독교 여성들의 구국운동에 관한 연구 - 1920년대를 중심으로」,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55.

39. 서울YWCA, 『서울YWCA 80년: YWCA 100년을 향하여』, 2002, 23.

40. 이기서, 같은 책, 89.

41. 1900년 12월 12일 미국 북장로회 화이팅(Georgiana Whitting) 의료선교사는 광주에서 활동하던 남장로회 선교사 오웬(Clement Carrington Owen)과 서울의 언더우드 집에서 결혼식을 치르고 목포 선교지부에 합류하여 호남지역 선교에 힘썼다. 니스벳(Anabel M. Nisbet)은 “목포선교는 1900년 오웬이 미국 북장로회 의료선교사로 제일 경험이

많고 유능한 화이팅과 결혼함으로써 더욱 힘을 얻게 되었다. 그는 의사이면서 목사로 지칠 줄 모르는 순회선교사였다.”라고 표현했다. 오웬은 삶의 마지막 해에도 13개 군의 선교지역을 담당하여 순회 전도하면서 한 달 이상을 집을 떠나 전도여행을 계속했다. 바로 이러한 호남지역의 순회전도사역에 김필레의 어머니 안성은은 헌신적으로 함께 했던 것이다. 신호철, ‘에양원 설립자인 오웬선교사의 발자취’, <교회복음신문>, 2009년 12월 28일자.

42. 고춘섭, 같은 책, 125.

43. 이기서, 같은 책, 96.

44. 이기서, 같은 책, 102.

어요. 다행히 시력이 소문난 집이라 그게 훨씬 빨리 알려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⁴⁵

3.2. 3.1운동과 김필레 가족의 시련

그 사이 3.1운동을 즈음하여 일본에서 유학하던 조카 김마리아가 2.8독립선언을 치르고 독립선언서를 국내에 유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광주를 방문했다. 또 뜻하지 않게 마리아의 큰 고모부인 서병호⁴⁶와 고모 김순애⁴⁷를 만나 김필레의 남편 최영욱이 운영하는 광주 서석의원에서 독립선언문을 수백부나 복사했다. 광주에서 3.1운동이 발발했을 때에는 김필레의 시숙인 최홍중 목사가 서울에서 3.1운동에 연루되어 체포되어 3년형을 언도받은 상황이었기에, 일경의 극심한 취조와 조사를 받아야 했다. 남편 최영욱은 혹독한 문초를 받은 끝에 무혐의로 풀려났다. 하지만, 서울에서 체포된 김마리아는 총독부 감옥에서 극심한 고문을 당한 끝에 사경을 헤맬 정도가 되었고 스코필드 선교사가 병보석금을 지불하여 입원시켰다. 그리고 일경이 채수감하려고 하자 중국 상해로 망명시켰다.⁴⁸ 이렇듯 3.1운동은 김필레 가족들에게도 크나 큰 시련과 아픔을 준 사건이었다.

이러한 여파였을까, 1919년 3월 25일 전국적으로 검거열풍이 일어 뒤숭숭하던 시기에 김필레의 첫 아기가 태어났다. 그러나 첫째 아들 재화는 뇌막염에 걸려 첫돌을 지나지도 못한 채 광주기독병원에서 사망하고 말았다. 이 일에 충격을 받은 남편 최영욱은 결국 광주의 가족들을 떠나 미국 켄터키주립대학 의학부로 유학을 떠난다. 이후 1926년에 애틀란타의 에모리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기까지 남편과 떨어진 시간을 보내야 한다. 또 중국에서도 오빠 김필순이 콜레라에 걸려 사망(1919년 9월 1일)했다는 비보가 들려왔다. 김필레는 늘 아버지와 같이 자신을 챙겨주고 쫓대가 되어주었던 필순 오빠의 사망 소식에 심각한 마

45. 이기서, 같은 책, 103.

46. 김구레의 남편 서병호는 1919년 1월 중국에서 여운형, 김규식, 장덕수 등과 함께 신한청년단을 조직하고 그 당수가 되어 독립운동을 전개하던 중이었다. 이기서, 같은 책, 115.

47. 이 당시 김순애는 남편인 김규식 박사가 결혼한 지 일주일 만에 파리강화회의에 우리나라 대표로서 떠나는 바람에 남편을 전송하고 국내의 애국 인사들과 연락을 취하기 위해 귀국한 상황이었다. 이기서, 같은 책, 115.

48. 이기서, 같은 책, 118-120.

음의 상처와 고통을 느꼈다.

그러나 이러한 시련과 최영욱의 7년간의 유학생살은 김필레의 삶에 많은 변화를 안겨 주었다. 김필레는 남편에 대한 내조와 시어머니에 대한 뒷바라지로 그동안 자신이 하지 못했던 구체적인 사회활동들에 다시금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김필레는 아들과 오빠를 잃은 슬픔에서 정신을 차리고, 남편의 빈자리에 대한 허전함을 보다 적극적인 여성운동을 통해 극복해 나갔다. 수피아여학교의 활동 외에 흥학관(興學館, 구 시청 자리)이라는 야학을 열어서 광주지역의 문맹여성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신문물을 학습할 수 있도록 애썼다. 이때 많은 학생들이 몰려들었는데, 야학의 운영비는 음악회를 열어 거기서 나오는 수입에서 충당했다.⁴⁹

한편 금정교회의 부인조력회를 맡아 전도와 봉사활동에 진력하면서, 교회 학교와 광주기독병원에서의 나병환자들을 위한 교육활동에도 헌신했다. 광주 사람들은 이러한 김필레에 헌신적 삶에 감탄하며 ‘김필레가 다섯 명은 죽히 되는 것 같다’며 김필레를 ‘광주의 괴물’이라고 불렀다.⁵⁰

4. 김필레의 조선YWCA 창설 준비

4.1. 광주의 괴물, YWCA를 꿈꾸다

‘광주의 괴물’이라 불리던 김필레가 활동하기에 광주는 너무 좁았다. 그는 이제 전국을 무대로 한 새로운 여성운동의 비전을 현실화하는데 착수한다. ‘광주의 괴물’이 전국의 여성들을 향해 포효를 시작한 것이다.

49. 고훈섭, 같은 책, 130.

50. 이기서, 같은 책, 133.

미국과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등 구미YWCA들은 1894년 세계YWCA라는 국제기구를 조직했고, 그 첫 사업으로 같은 해에 미국YWCA의 재정적 뒷받침을 받은 인도YWCA 조직을 돕기 위한 젊은 여성 간사를 파견했다. 이렇게 시작된 YWCA의 국제적 협조와 유대는 급속히 발전해 1905년 이후부터는 13명의 해외 간사를 파견하였고, 1917년과 1921년 사이에는 170명이나 되는 해외 간사들이 중국, 일본, 인도를 포함한 동양 각국과 남미 여러 나라에 파견될 정도로 국제 활동이 활성화 되어 갔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1920년 12월, 한국YWCA의 설립을 권장하기 위해 미국 YWCA에서 위원단을 파견하였으니 이들은 정신여자학교(貞信女學校)에서 가르치던 겐소 부인(Mrs. Jhon F. Genso)의 집에 머물면서 재경(在京) 지도급 여성들을 초대하여 YWCA의 이념과 조직 활동 등을 소개했다. 그러나 일제 치하의 상황 하였던 관계로 일본YWCA 동맹의 지회(支會)로 조직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한국의 여성들은 그러한 구조 하에서라면 차라리 안 만드는 것이 낫다며 거부했다.⁵¹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광주에 있던 김필레는 1921년 봄 정신여자학교 루이스 교장을 찾아가 한국의 YWCA 설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도움을 청했다. 이에 루이스는 이화학당 학당장으로 있던 아펜젤러(Miss Appenzeller)를 소개해 주었다.⁵²

“필레 선생, 외국 사람이 한국 YWCA를 위해 앞장섰다고 하면 뒷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그러니 좋은 일꾼 한 사람 소개해 줄레니 그와 손잡고 열심히 해 보시지요.”⁵³

아펜젤러(H. G. Appenzeller)의 소개로 당시 이화학당 교사 김활란(金活蘭)을 만나게 되면서 김필레의 YWCA에 대한 조직구상은 구체화되어갔다. 김필레와 김활란이 조선 YWCA의 조직을 준비할 때 아펜젤러는 YWCA의 조직방법, 규칙, 세

51. 한국 YWCA 50년사 편찬위원회, 『한국 YWCA 반백년』, 서울, 대한YWCA연합회, 1976, p.11.
52. 이기서, 같은 책, 139.
53. 이기서, 같은 책, 139.

계 YWCA 가맹 과정에 있어서의 자문과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⁵⁴

4.2. 조선 YWCA 발기대회의 시작

김필레와 김활란, 유각경(兪珥卿)이 함께 뜻을 모아 YWCA 창립을 구체화하면서 얻은 첫 번째 결실은 ‘YWCA 발기대회’였다. 이들 3인이 주동이 되었던 발기회는 1922년 3월 27일 경성여자교육협회에서 YWCA 창설에 뜻을 같이 하는 남녀 유지 30여명이 모여 제1차 발기회를 갖고 ‘불의한 상황에 처한 온 국민과 특히 여성들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 YWCA는 반드시 창설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며⁵⁵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를 조직하기로 결의하기 이른 것이다.⁵⁶

그리고 임원선출도 이루어져 회장에 유각경, 위원으로 김미리사, 김필레, 방신영, 김살로매, 김경숙 등이 피선되었다.⁵⁷ 제1차 발기회에서는 또, YMCA 총무로 일하고 있던 신흥우가 YWCA의 내력을 소개했다.⁵⁸ 또 매마침 4월에 북경 청화대학(淸華大學)에서 열리기로 되어 있는 세계기독교학생청년회(WSCF) 총회에 장로교와 감리교를 각각 대표해서 김필레와 김활란 두 명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⁵⁹

또 1922년 4월 20일에는 이화학당에서 제2차 발기회를 열고 YWCA 설립을

54. 이세기, 『한국YWCA80년사』, 한국YWCA연합회, 2006, 31.
55. 이세기, 『한국YWCA80년사』, 한국YWCA연합회, 2006, 28.
56. 이때의 상황을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 연합회 회록>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1922년 3월경에 경성에 유지 여사 김필레, 김활란, 유각경, 신의경 네씨가 현금 압매한 여자계가 생명의 활로를 부지하고 구급과 압박의 심향에서 절규하되 차를 구원할 만한 완전한 기관이 없음을 크게 개탄히 여기시며 현시 세계 각국에 여자청년회가 조직되어 일반여자 등이 각기자기의 민족의 발전으로부터 전 세계의 평화와 행복을 위하여 크게 활동하되 아조선여자계에는 아직도 여차한 최요의 기관이 무함을 일대 유감으로 아는 동시에 1922년 3월 27일 하오 4시에 경성 청진동 여자교육협회에서 경성남녀 유지 30인을 회집하여 임시회장 유각경씨의 사회 하에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 제1회 발기회를 개하고 회장이 현시 여자계의 가련한 정형과 여자기독교청년회 조직할 필요를 취지로 연술하다. 신흥우가 세계여자기독교청년회 내력과 사업을 전술하며, 당시 북경에서 개최되는 만국학생 대회에 조선여학생 대표로 김필레, 김활란 양씨가 참석케 된 사실을 통과하시니 회중이 거반 가결로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 조직케 하는 동시 기 방침은 조선여자 각 단체의 대표자를 청하여 여자 하령회를 개하고 여자기독교청년회의 목적과 취지를 이해한 후에 기 기회를 이용하여 차 기관을 조직하기로 결의하고 폐회하다.; 천화숙, 같은 논문에서 재인용. 17.
57. 『동아일보』, 1922년 3월 29일자. 3면.
58. 이기서, 같은 책, 139.
59. YWCA연합회 소장문건,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 연합회 회록」, 1922년 참조. 천화숙, 같은 논문에서 재인용. 17.

위한 하령회 개최권을 다루었다. 하령회 준비위원으로는 회장에 김활란, 부회장에 방신영, 총무에 김필레, 서기 김합라, 김살로매, 김해나, 회계 김살로매 등으로 정했다.⁶⁰

4.3. 김필레의 북경(北京) WSCF 대회 참가

일제하에서 YWCA의 조직을 한국이 독립적으로 결성 유지하기는 힘들었고, 결국 일본 연맹의 귀속형식으로 설립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런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가 보이는 일이 생겼다. 1922년 북경(北京)에서 개최된 세계기독교학생연맹(World Students Christian Federation)이 바로 조선YWCA 창설을 위한 소중한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WSCF의 북경대회에 앞서 아시아에서는 1907년 도쿄에서 열렸는데 이때 주요 관심사는 '아시아의 전도'에 있었다. 이때 아시아 기독교학생들의 주요 슬로건은 '20세기를 동양인의 선교세기로 만들자!', '예수를 아시아의 왕으로 삼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1922년 북경대회에서는 '전도'의 개념이 이전과는 크게 변화를 보이면서, 사회봉사와 사회운동을 위한 헌신이 강조되었다. 이와 함께 북경대회에서는 제국주의 국가 대표와 식민지 민족대표가 함께 하는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즉, 인도인과 영국인, 필리핀인과 미국인, 중국인과 일본인, 한국인과 일본인이 회의에 참석하여 기독교신앙을 바탕으로 한 대화와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⁶¹

1922년 4월 4일에는 이례적으로 중국 북경의 칭화대학이 WSCF의 세계대회 개최지로 결정되었다. 전 세계 32개국에서 800여명이 참가한 큰 대회였다. 여기에 일본을 대표해 가와이 미치코(河井道子), 존 스코트, 츠지 마츠(まつ), 하세가와 키타코(長谷川喜多子), 와타나베 유리코(渡 百合子), 시다츠 야나(志立ヤナ), 토요다 시즈코(豊田静子), 후쿠이 에이코(福井 子), 코야마 이다(小山イダ) 등이 참석했다.

60. 이기서, 같은 책, 140.

61. 광주여자기독교청년회, 『광주YWCA 70년사』, 1992. 35-36.

WSCF 세계대회에는 세계 32개국의 대표들이 참가했는데, 김활란, 김필레 두 사람은 새로운 비전을 세우는 한편 회의의 주제에 영향을 받아 YWCA 조직의 구상을 더욱 구체적으로 굳혀 나갈 수 있었다. 이 WSCF 세계대회는 사실상 조선 YWCA 창설은 물론 향후 탄생할 조선 YWCA 연합회의 지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자리가 되고 있었다. 이때 한국은 회원국이 아니었으나, 여자 측으로 김필레와 김활란, 남자 측으로는 이상재, 신홍우, 내쉬(W. L. Nash) 세 사람과 기자가 참석했다.⁶² 이 소식은 당시 중국 상해임시정부가 발행하던 <독립신문>이나 국내 언론인 <동아일보>⁶³와 <개벽>⁶⁴ 등에 소개되었다.

우리 화동학생회(華東學生會)의 대표로 간 주요한(朱耀翰)씨의 보고에 의컨대 동대회(同大會)는 예정대로 지난 4일부터 베이징(北京)에서 회장 못드(존 모트)박사의 사회하에 열었는데 모힌 이는 33국 대표이오 각 대표에 일이채(一異彩)를 방(放)함은 영국, 미국, 범국, 덕국 등 노대국(老大國)도 잇고 체크, 파란(波蘭, 폴란드), 불란(芬蘭, 핀란드) 등 신흥국(新興國)도 잇고 한국, 인도, 베트남(安南), 비률빈(非律賓, 필리핀), 불마, 포와(布哇, 하와이) 등 피압국(被壓國)도 잇슴이라. 우리 代表로는 본국에서는 이상재(李商在), 이대위(李大偉), 신홍우(申興雨), 여운홍(呂運弘) 제씨(諸氏)와 김활란(金活蘭), 김필레(金弼禮) 양여사(兩女士)가 오고 중국에서는 여운형(呂運亨), 백영엽(白永燁), 주요한(朱耀翰) 등 제씨(諸氏)가 왔더라.

회장이 각국 대표를 소개할 시에 한국대표에 지(至)하여는 특별한 박수성(拍手聲)이 기(起)하였고 또한 신홍우로부터 간단한 보고연설이 잇슬 때에도 대갈채(大喝采)가 잇섯스며 중국에 유학하는 우리 학생이 일선언서(一宣言書)를 발표하였는데 그 대의(大意)는 「한국독립을 원조(援助)하는 것이 세계학생의 책임(責任)」이라 하였더라.⁶⁵

김필레가 김활란과 함께 이 대회에 참석했을 때, 인도나 캐나다, 호주와 같은 나라들이 영국의 식민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세계연맹에 가입한 사실을 탐지하게 되었다.⁶⁶ 세계 각국에서 모인 탁월한 기독교계 지도자들을 만나 새로운 전망과 비전을 배우면서 YWCA 조직의 구상을 굳혔다. 이들은 YWCA 조직

62. 천화숙, 같은 논문, 18.

63. <東亞日報> 1922년 4월 5일자.

64. 『社會日誌-四月』, 『개벽』, 1922년 5월 1일자.

65. 『학생대회의 후문』, 『독립신문』, (1922년 5월 6일자)

66. 민경배, 『한국민족교회형성사론』, 연세대출판부, 1974, 99-100쪽.

의 첫 단계로 미국 대표들에게 한국에 있어서의 YWCA의 조직 가능성과 이에 대한 이들의 열정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세계 YWCA 실행위원회나 미국 YWCA 외국부도 일본YWCA 동맹의 허가 없이는 이 조직을 도울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줄 뿐이었다.⁶⁷

4.4. 가와이 미치코 총간사와의 협상

상황이 그렇게 흐르자 두 사람은 기회만 있으면 일본의 만행을 세계에 폭로해 조선의 고난을 알리고 조선 YWCA 설립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려고 노력했다. 결국 김필레와 김활란은 이 회의에 함께 참석 중이던 일본 YWCA 총무 가와이 미치코(河井道子)와 회견하여 조선이 직접 YWCA를 설립해 세계 YWCA에 가입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일본의 식민지 상황 하에서 독립적인 YWCA의 조직은 반드시 일본YWCA 총무의 승인을 거쳐야 했기 때문이다. 가와이 총무는 처음에는 난처해했지만 결국 1919년 3.1만세 운동 직후에 발생한 제암리, 수촌리교회 등에서 자행된 수원지역 학살 사건에 대해 알려주자, 그것만은 외부에 폭로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가와이 미치코와 일본YWCA 관계자들은 '조선YWCA의 조직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약속했다.⁶⁸

결국, 그들은 가와이 총간사로 부터 조선에 YWCA가 설립되는 경우에는 세계YWCA에 단독 가입하는 것을 승인하는 동시에 한국에서 가입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단독 가입 동의서를 첨부하여 줄 것을 약속 받았다.⁶⁹ 이렇게 해서 조선YWCA는 1903년에 창설된 조선YMCA가 단독으로 YMCA 세계 연맹에 가입하지 못하고 중국YMCA 연맹과 자매관계를 맺어 간접적으로 가맹했고, 1913년에는 일본YMCA에 예속되었다가 1922년 5월 16일이 되어서야 독립되었던 전철⁷⁰을 미리 피할 수 있었다.

67. 김활란, 『그 빛 속의 작은 생명』, 여원사, 1965, 98-101.

68. 김성실, 『대한 YWCA 40년사』, 대한 YWCA 연합회 출판부, 1962, 18-19.; 이기서, 같은 책, 142-143.

69. 김필레, “하령회의 유래”, 월간 YWCA, 제4권, 제5호, 1956년 7월 1일자, 14-18.; 『한국 YWCA 반백년』, 14-15.

70. 전택부, 『인간 신흥유』, 대한기독교서회, 1971, 159-163.

1919년 3.1독립 운동 이전에는 일제 정부 당국과의 마찰의 회피하려는 일본 YWCA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조선YWCA의 탄생이 요원하였으나, 결국 3.1운동에 참가한 수많은 동포들의 희생과 피 값으로 그 위에 조선YWCA가 주체적으로 창설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일본YWCA 최고 지도자와의 대담과 협의 과정을 이끈 이가 바로 김필레라는 점을 주목하게 된다.

훗날 김필레가 세계YWCA 본부에 “The Story of YWCA Beginnings”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의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

1919년 3.1.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지 아니한 한국 여성들은 최선을 다하여 조국을 위하여 봉사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무수한 조직과 단체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훈련과 경험이 없었던 까닭에 이들 노력은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가 되기 위하여서) 이 일치를 그리스도 위에 세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다가, 결국 YWCA야말로 우리 요구에 맞는 최선의 기관이라 결론짓게 되었습니다. 첫째, 이것이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요, 둘째, 세계적이기 때문인데, 여기서 우리는 이 세상 아무 것도 이 일을 막을 자 없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⁷¹

그의 글을 읽으면, 조선YWCA가 1919년 3.1독립운동으로부터 직접적인 동인과 동력을 제공받았음을 김필레는 고백하고 하고 있다. 3.1운동을 겪어야 했던 김필레 개인의 시련 뿐 아니라 한국교회와 여성들의 아픔을 통해 YWCA는 태동하고 탄생한 것이었다.

4.5. 조선YWCA 설립의 결의와 기성회 구성

김필레, 김활란 두 사람은 귀국하자마자 6월에 전국의 여자전문학교와 여학교의 학생들을 모아 지난 2차 발기대회에서 결의된 하령회 준비에 들어갔다. 그래서 하령회를 개최할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게 되었다. 경비 모금을 위해

71. Piley Kim Choi, The Story of YWCA Beginnings, (unpublished MS, 1927, World YWCA Archives); 민경배, 위의 책에서 재인용.

김필레가 직접 나서자 서울 장안에는 부녀자들이 돌아다니며 구걸 행위를 한다는 안 좋은 소문이 퍼졌다. 여러 수모와 어려움 중에도 기독교 실업인이었던 박희도(朴熙道)와 윤치호(尹致昊) 선생 등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하령회 준비기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⁷²

결국 1922년 6월 13일부터 12일 동안 죽첨정(竹添町, 현 충정로) 감리교 협성여자 성경학원(協成女子聖經學院)에 전국의 공·사립 고등여학교 대표와 각종 다양한 여성 단체 대표들을 초청하여 제1회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 하령회(夏令會)를 조직하고 마지막 22-23일 양일간 발기총회를 열었다.⁷³

○여자하령회

오는 육일에 개최. 새로운 정신을 가지고 조선사회를 위하여 일하고자 하는 여러 여자들에게 일출원기를 주기 위하여 김활란, 김필레, 방신영 등 다수 신진여자들이 여자하령회를 조직하여 가지고 오는 6월 13일부터 23일까지 여러 고명한 선생을 청하여 강습을 한다.⁷⁴

이때 모인 이들은 YWCA 설립의 구체적 추진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YWCA 설립을 위한 기성회 임원진도 구성했다.⁷⁵ 또한 이날 YWCA 설립을 독려하기 위한 전국 순회강연자로 김필레가 선발되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4.6. 광주YWCA의 창설과 맥클라렌과 YWCA 규칙 제정

하령회를 마치고 김필레는 광주로 내려왔다. 광주로 돌아온 김필레는 맥클라렌이 영국에서 YWCA가 창설될 때 엠마 로바트가 주도한 기도단의 활동이 큰 힘이 되었다는 말을 떠올리며 광주에 기도모임을 만들었다. 김필레, 김합라(남궁혁 목사의 부인), 임자혜, 양응도(김창국 목사 부인) 등으로 구성된 이 조직은 일

주일에 두 번씩 만나 광주YWCA의 조직을 위해 기도했고, 이 모임을 바탕으로 해서 광주에서 YWCA를 조직할 수 있게 되었다.⁷⁶

광주YWCA 초대 회장인 양응도⁷⁷는 김필레와는 사돈지간이며, 정신여학교 동문으로서 남다른 동지의식을 갖고 광주YWCA를 이끌어갔다.⁷⁸

광주YWCA는 이미 김필레가 만든 여성 야간학교를 더욱 활성화해 부녀자들의 계몽활동에 주력했고, 보통 100명 안팎의 학생들이 수강했으며, 많을 때에는 300명에 달했다. 이렇듯 광주에 야학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의 광주지역 사회분위기와 맞물려, 김필레와 같은 실력과 인품을 겸비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이었다.⁷⁹

1922년 10월이 되자 진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메클라렌 선교사가 전국순회 일정과 함께 규칙초안 작성을 함께 준비하자는 연락이 와서, 김필레는 한 달 간 메클라렌의 집에 머물면서 YWCA 순회강연 준비와 아울러 YWCA 역사와 규칙을 연구했다. 그리고 YWCA의 규칙을 번역, 이를 조선YWCA의 실정에 맞게 만드는 작업을 했다.⁸⁰

72. 이기서, 같은 책, 144.

73. 한국 YWCA 반백년, p.15.

74. ‘女子夏令會組織’, 《동아일보》, 1922년 5월 11일, 3면 8단.

75. 이날 정해진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회장: 방신영, 부회장: 홍에스터, 총무: 김필레, 서기: 김합라, 신의경, 규칙제정위원: 김활란, 김필레, 맥클라렌, 신의경, 재정위원: 유각경, 박양무, 김살로메, 박용애, 고문: 맥클라렌, 아펜젤러 등이었다. 이기서, 같은 책, 146.

76. YWCA가 광주에 창설되기 이전 광주를 비롯한 인근 지방에서도 여자야학(女子夜學)을 비롯한 여성들이 주축이 되어 계몽활동과 교육사업이 전개되고 있었다. 1922년부터 23년까지의 시기에 전남지역 여성단체만도 광주 기독교부인전도회, 광주부인회, 광주청년회, 서북여자야학, 나주안식일교회부인야학, 담양부인회청년회야학, 능주야학, 창평부녀야학, 압태면여자강습소의 장성삼일학교의 여자야학 등이 있었다. 그 중 광주부인회는 1922년 5월 5일 광주청년회, 광주기독교청년회, 노동공제회의 후원 하에 부인대강연회를 열었으며, 또 7월 18일 북문 밖 예배당에 창립 1주년 기념식을 거행하였다는 기사로 미루어 보아 YWCA가 창설되기 이전부터 활동하고 있던 여성단체로 보인다. 광주YWCA는 이러한 배경에서 이미 그 탄생을 예고하고 있었다.; 천화숙, 같은 논문, 67.

77. 양응도는 1883년 황해도 문산에서 태어났다. 일찍이 가족과 함께 서울로 이사와 정신여학교에 입학하여 선교사들에게 성서와 신학문을 배우고 금산에서 잠시 교편을 잡았다. 그 후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제주도 선교사를 거쳐 광주 금정교회에서 시무하고 있던 김창국 목사와 결혼하여 광주에서 살게 되었다.; 천화숙, 같은 논문 67쪽에서 재인용.

78. 그는 부군인 김창국 목사가 양림교회를 분립한 후 김필레가 그 곳 교회 조력회장까지 겸임하다 도미함으로써 귀국하기 전인 1927년까지 YWCA 회장직을 수행했다.; 광주여자기독교청년회, 『광주YWCA70년사』 1992, 42-43.

79. 당시 완고한 집안에서는 과년한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구습에 젖어 있었지만, 본 야학반에는 딸을 보내주는 가정이 많았다. 그것은 김필레가 까다로운 시어머니 밑에서 고된 시집살이를 하면서도 시어머니 봉양을 잘하고, 직장 생활도 잘 하는 것이 소문이 나서 ‘그렇게 시어머니를 잘 모시는 신식 며느리라면 안심하고 맡기겠다.’ ‘너도 가서 그사람 처럼 되어 오너라.’고 야학에 보내준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천화숙, 같은 논문 68쪽에서 재인용.

80. 이기서, 같은 책, 147.

4.7. 김필레의 YWCA 조직을 위한 전국 순회여행

YWCA연합회 기성회의 구성 이후, 지부 조직의 설치와 회원 확보의 문제는 연합회 사업 가운데 무엇보다도 절실한 사업이었다. 지방조직의 착수는 우선 김필레 총무의 지방 순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김필레는 11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40여 일 동안 기성회 발기총회에서 기입한 금액 60원과 찬성회원의 보조금 100여원으로 마산, 부산, 대구, 청주, 선천, 평양, 진남포, 해주, 재령, 개성, 인천, 함흥, 원산, 목포, 경성, 광주 등 전국 17개 도시를 순회하면서 여자고보와 일반 여자사회를 대상으로 YWCA 조직의 취지와 의미, 활동 내용 등을 설명하면서 가입을 권장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⁸¹

나중에 김필레가 YWCA 조직을 위한 전국 순회강연차(1922년) 황해도에 들렀을 때 다른 어느 지방에서보다 열렬하고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 재령, 사리원 같은 곳에서는 수 백 명이 몰려와 김필레의 모친 이야기를 하며, ‘김부인(남편의 성을 따라 이렇게 불렀음)의 막내 따님이 왔다고 해서 이렇게 나왔다’, ‘김부인이 전도여행을 다니며 막내 따님 이야기를 많이 했다’며 김필레를 환영했다. 이것은 모두 김필레의 어머니가 열정적으로 전도여행을 다닌 덕분이었다.⁸² 김필레가 전국을 돌며 열정적으로 YWCA를 전파할 수 있었던 열정은 바로 이러한 어머니의 전도여행을 통한 열정이 그대로 딸에게 계승된 까닭일 것이다.

김필레가 가는 곳 마다 각 지역의 여성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었다.

김필레 여사 강연

김필레 여사는 9일 부산여자 청년회관과 부산진 일신여학교에서 강연을 행하였더라.⁸³

김필레 여사 강연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 기성회 총무 김필레 여사는 여자청년회총회 연합사무를 권하고 23일 진남포(鎭南浦)에 도착하여 익일(翌日) 신흥리(新興里)감리교회당에서 ‘조선여자연합에 대

81. 스가와라 유리, 「1920년 여성운동과 근우회」, (연세대 한국학협동과정 석사학위논문, 2003), 16.
 82. 이기서, 같은 책, 40, ;148.
 83. ‘朝鮮女子青年會聯合會總務 金弼禮女史講演’ 《동아일보》, 1922년 11월 18일, 4면 3단.

하야’라는 제(題)로 강연이 유(有)하야 성황(盛況)을 이루었다더라.⁸⁴

김필레 여사 내함 강연

지방연회 옹무로 내함(來咸)한 기독교여자청년회 김필레 여사는 去 5일 하오 7시 함흥(咸興) 신흥리(新興里)교회당에서 강연이 잇섯는데 … 2시간 반을 의(宜)한 김여사의 강연은 여자 청중 수백 명의 갈채를 수(受)하였더라.⁸⁵

이러한 김필레의 순회강연은 뜨거운 반응만큼이나 일경의 감시도 심했다. 늘 김필레 일행을 미행하며 감시했기에 김필레의 순회여행은 늘 긴장되고 피로한 일이었다.⁸⁶ 그러나 김필레의 순회여행은 YWCA 인사들의 지원과 선교사들의 협조로 큰 힘을 얻을 수 있었다. 이때 메클라렌은 각 지방 선교사에게 서신을 통해 지방순회 강연일정을 미리 소개해주고, 교회나 학교, 선교사 주택에서 모임을 가질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었다.⁸⁷ 그리하여 1922년까지 선천, 경성, 청주, 대구 등 4개 도시와 8개 학교에서 YWCA 조직을 설립할 수 있었다. 이어 지방 설립은 계속 추진되어 YWCA 연합회가 정식으로 발족할 때인 1923년 8월에는 원산, 평양, 안주 등의 3개 지방 조직이 신규로 가입하였고, 그해 11월 경에는 회원이 전국에 2,000여명에 이를 만큼 조직세가 크게 성장될 수 있었다.⁸⁸

기성회의 성립 이후 YWCA의 1922년 6월부터 제2회 하령회가 열리는 1923년 8월 18일까지 약 1년 동안의 4개의 지방 YWCA와 8개의 학생YWCA가 구성되었다.

84. ‘朝鮮女子青年會聯合會總務 金弼禮女史 鎭南浦에서 講演’, 《동아일보》, 1922년 11월 29일, 4면 4단.
 85. ‘基督教女子青年會 金弼禮女史來咸講演’, 《동아일보》, 1922년 12월 18일, 4면 5단.
 86. 이기서, 같은 책, 149.
 87. 이기서, 같은 책, 148.
 88. 천화숙, 같은 논문 57쪽에서 재인용.

지방청년회	경성, 청주, 대구, 선천 (4)
학생청년회	경성 정신여학교, 경성 이화여학교, 경성 협성여자성경학원, 경성 동대문부인병원 강호원양성소, 개성 호수돈여학교, 마산 의신여학교, 원산 신정여학교, 원산여자성경학원 (8)

이들 지부는 기성회 성립 이후 연합회 창립 때까지 가입된 지부들이었다. 이렇듯 조선YWCA는 상부의 조직인 연합회 기성회가 먼저 조직되고 그 지부를 가맹시키는 양상을 띠었다. 그러므로 지방조직의 성립은 곧 YWCA 연합회의 기반이 되었다.⁸⁹ 바로 이러한 YWCA의 초기 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김필레의 열정적인 순회강연이 없었다면 이렇게 신속하게 전국적인 연대망을 구축하고 연합회를 성립시키기는 어려웠을 것이다.⁹⁰

지방 순회를 마치고 돌아온 김필레는 동년 12월 21일에 종로 중앙청년회관(YMCA)에서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연합회기성회 전선순회 보고회’를 여는 한편⁹¹ 사회 일반에 YWCA를 선전하는 강연회를 연이어 개최하기도 했다.

종로청년회강연회

금 28일 하오 7시에 종로청년회에서 여자기독교청년회 연합회 기성회 총무 김필레씨가 강연한다고 한다.⁹²

4.8.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YWCA) 연합회의 성립

기성회가 발족한 1년 뒤인 1923년 8월에는 다시 제2회 하령회가 개최되었는데, 이것은 연합회기성회의 제2회 총회를 겸한 것이었다. 1923년 8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 동안 협성여자성경학원에서 열린 연합회기성회 제2회 총회는 기성회 발족이후 1년 동안의 사업을 점검하고 향후 연합회기성회의 새로운 방향을 결

89. 천화숙, 같은 논문, 22.

90. 김필레의 지방순회 이후 황에덕이 남부지방을, 김노다(金魯多)가 북부지방을 순회하였고, 공주 YWCA 및 배화여학교 태화관 학생 YWCA 등을 조직하였다. 이후 유각경이 순회 활동을 하며 지방 YWCA의 활동을 더욱 촉진시켰다. 유기순, 「일제강점기 기독교여성의 항일운동연구」,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209.

91. 이때 YWCA 임원들은 각지의 청년회를 단합하기 위해서 <Morning of Prayer>를 택술하여 각 청년회에 발송하면서 지방의 조직을 독려했다. 천화숙, 같은 논문에서 재인용, 22.

92. ‘모임 - 종로청년회 김필레 강연회’, 《동아일보》, 1922년 12월 28일, 3면 9단.

정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회의였다. 특별히 이 모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연합회’란 정식 명칭으로 ‘조선YWCA연합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었다. 창립총회는 김필레의 제청과 참석회원의 만장일치로 이뤄졌다. 1923년 8월 23일, 이제까지의 조직인 기성회란 이름을 떼고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연합회’라는 공식명칭으로 출범한 것이었다. 이때 헌법 제정위원으로 김필레, 황에스더, 유각경, 신의경 4명이 선정되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창설 당시의 헌법은 현재까지 전해지지 않는다.⁹³

4.9. 정신여학교와 김필레

‘정신YWCA’가 생긴 것은 1922년이였다. 주지하듯이 YWCA 연합회 창설자였던 김필레와 유각경이 정신여학교 출신이었다. 따라서 정신 출신들이 YWCA연합회에 대거 진출했던 배경은 그러한 맥락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런데 정신여학교의 경우 학생 YWCA가 생겨나기 전부터 교내에 전도회와 같은 기독교 조직이 있었다. 전도회는 실질적으로 학생 자치회의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YWCA 연합회의 발족과 더불어 학생 YWCA의 조직 기반을 이루게 되었다.⁹⁴

정신여학교는 1887년 6월 북장로회의 여선교사 엘러즈(A. J. Ellers)에 의해 처음에는 정동여학교로 출발하였다. 1895년 10월 연지동(蓮池洞)에 교사를 마련하여 이전하여 연동여학교(蓮洞女學校)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1907년에 제1회 졸업생을 10명 배출했다. 1909년에는 정신여학교(貞信女學校)⁹⁵라는 명칭으로 인가를 받았으며, 1924년 정신여학교는 소위 ‘지정시험과동’으로 한때 폐교위기를 맞기도 했다. 즉 일제가 고등보통학교로의 승격 조건을 성서과목의 폐지로 내걸었기 때문이었다. 이때 정신은 북장로회의 거의 모든 학교들과 마찬가지로 고등보통학교로의 승격을 거부한 채 지정학교 남기로 결정하고, 지정학교 인가를 위한 시험에

93. 천화숙, 같은 논문 23-24쪽 참조.

94. 정신여자중고등학교, 『정신100년사』 상권 1989, 467-469.

95. 원래 정신여학교는 현재의 덕수궁 옆 정동(貞洞) 예원학교 부지내에 있던 장로교 미션구역에서 세워져 운영되었기 때문에 그 역사를 계승하는 의미에서 연동여학교에서 정신여학교로 학교명을 바꾼 것이다.

임했으나 일제당국이 의도적으로 전교생을 낙제시킴으로써 한때 폐교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다.⁹⁶

이 조치를 들은 루이스 교장은 뉴욕에 있는 김필레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김필레는 시카고에 있는 조카 김마리아에게 알렸다. 김필레는 미국 장로교 선교부를 직접 찾아가 재고해 줄 것을 요구하는 교섭을 벌이고 뉴욕의 유지들에게 알려 도움을 받고자 하였다. 정신여학교 교장이었던 밀러(E. H. Miller) 부인도 콜롬비아대학교에서 연구 중에 있었다. 김필레는 그를 찾아가 밀러부인의 방을 빌려 약 30명분의 한국음식을 잘 차려 놓고 뉴욕의 유학생들과 유지들을 초청하였다. 오랜만에 맛있는 한국음식을 들도 행복한 향수와 포만감에 차 있을 때, 열변을 잘하는 장덕수(張德秀)에게 위기에 처한 정신여학교를 구명하자는 내용으로 연설을 하도록 하였다. 이날 모인 사람들은 한결 같이 한국의 대표적인 민족교육기관인 정신여학교를 마땅히 살려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정신 구명을 위한 적지 않은 돈을 각출하였다. 이 모임 이후 뉴욕의 유지인사들은 정신여학교를 구하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하게 되었다. '정신여학교 유지위원회'를 조직하여 학교와의 긴밀한 연락 속에서 상당한 활동을 하였다.⁹⁷ 이때에도 미국에서 김필레의 역할은 지대한 것이었다.

정신 YWCA의 구성은 회장 아래 서기, 종교부, 지육부, 사교부, 체육부, 음악부, 사찰 등을 두었다. 그리고 고문은 교장이 겸하도록 하였다.⁹⁸ YWCA 연합회가 농촌계몽운동을 시작할 때에도 정신 YWCA도 이에 적극 호응하였다. 그리하여 정신 YWCA에서는 1934년 용인군 원남리교회에서 손진주 교장의 인솔하에 학생들의 유년주일학교를 시작하여 평균 40여명의 학생들을 가르쳤을 뿐 아니라 교우 심방 등의 전도활동을 활발하게 벌였다.⁹⁹

96. 이때 선교부는 당국의 인가를 얻지 못한 정신여학교의 폐교안을 내었으나, 당시 미국에 유학중이던 김필레 등 동창들의 강력한 항의와 조직적 운동으로 학교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만열, 『한국기독교문화운동사-한국기독교백년사대계 3』 대한기독교출판사, 1987, 187-188.

97. 박용옥, 같은 책, 350-351.

98. 정신여자중고등학교, 『정신백년사』 상권, 493.

99. 《기독신보》, 1934년 11월 7일자. (11권 3호), 천화숙, 같은 논문 80쪽에서 재인용.

이러한 정신여학교의 활발한 YWCA 활동은 김필레와 유각경을 비롯한 김합라, 박신영, 박양무, 김살로매, 김영순, 신의경, 김성무 등의 정신 출신 YWCA 멤버들의 열정적 활동에 힘입은 바가 크다.

4.10. 광주 수피아여학교와 김필레

전남 광주의 최영옥씨는 일찍이 경성 세브란스의학을 졸업하고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미국에 건너가 켄터키대학에서 자연과학을 전공하고 금번에 우등으로 졸업하는 동시에 조지아주 에모리대학 의과를 졸업하고 논문을 제출한 결과 의학박사의 학위를 얻었으며, 그 부인 김필레 여사는 일찍이 동경 여자학원을 졸업한 후 교육사업에 종사하다가 수년전에 역시 미국으로 건너가 엑네스컴대학과 콜롬비아대학을 우등으로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얻은 후 지난 26일에 남편과 함께 향리 광주 본대로 돌아와서 있는데, 최영옥씨는 광주 제중원에서 시무를 보게 되었으며, 동부인은 수피아여학교에서 교편을 들 예정이라더라.¹⁰⁰

김필레가 오랫동안 봉직했던 수피아여학교¹⁰¹는 1919년 3.1독립 운동에 전교생이 선봉으로 참가하여 교사 2명과 학생 21명 등 23명이 투옥되어 옥고를 치렀던 상태였다. 김필레는 그러한 탄압직후의 어수선한 상태의 1920년부터 21년까지 교사로, 1927년부터 37년까지는 교감으로 봉직했다. 1927년에는 남장로회 선교회의 방침에 따라 그 산하의 유일한 고등여학교로 육성되어 갔다.

광주 수피아 YWCA는 YWCA 연합회의 창설 직후 설립되었으나, 연합회에 정식으로 가입한 것을 1930년이였다. 그러나 이에 앞서 1923년 제2회 하령회부터 수피아 학생들이 참가했던 점,¹⁰² 김필레가 광주의 YWCA 조직에 크게 기여하

100. '錦衣歸還한 崔泳旭博士 夫婦, 부인은 학사위를 얻어', 《중외일보》, 1927년 7월 28일자. 3면 2단.

101. 1907년 광주 선교부를 개척한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 배유지(Dr. Eugene Bell)가 남녀학생 3명을 모집하여 학교를 열었다가, 1908년 4월 1일에 남녀학교로 분리되면서 여학교로서의 공식 역사가 시작되었다. 초대 교장으로 업언라(Miss Ella Graham) 선교사가 취임했으며 1911년 9월 1일 제2대 교장 구애라(Miss Anna McQueen) 선교사 취임했다. 학교 중앙에는 캠퍼스에서 가장 오래된 서양식 회벽돌 건물이 있는데, 그 이름이 '수피아홀'이다. 1911년 가을 미국의 스티븐스 여사(Mrs. M.L. Sterns)가 세상을 떠난 동생 제니 수피아(Jennie Speer)를 추모하고 기념하기 위하여 5,000불을 회사하여 그 기금으로 3층 건물인 신식 교사 '스피어홀(Speer Hall)', 즉 수피아관(須彼亞館)이 준공된 것이다. 그때부터 학교명을 수피아여학교(須彼亞女學校, Jennie Speer Memorial School for Girls)라고 부르게 되었다.

102. 천화숙, 같은 논문, 80.

고 활동했다는 점으로 보아 YWCA 연합회와는 일찍부터 유대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생각되어지지만,¹⁰³ 늦게 가입한 이유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¹⁰⁴

한편 수피아 학생YWCA는 문화부, 음악부, 예배부, 봉사부 등으로 조직되어 학교 문화행사와 체육행사를 맡아 진행하는 한편, 학생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끌었던 벽신문을 제작하면서 학생들의 의식개발에 크게 기여하였다. 벽신문이란 도서관 한 쪽 벽을 사설, 시, 소설 등을 붙여 신문처럼 만든 것이었다. 또한 매월 한차례씩 웅변대회를 개최하면서 학내활동의 중심체로 부상하였다.¹⁰⁵

그런가 하면 YWCA연합회에서 1929년 농촌부를 신설하여 농촌문제연구를 중점적인 프로그램으로 채택할 때에 수피아 YWCA에서도 이와 보조를 같이 하여 농촌야학을 개설하고 성서와 한글을 가르치며, 여름이면 하기 학교를 개설하여 미신타파와 생활개선을 도모했다.¹⁰⁶

그리고 1930년부터 1933년까지 매년 가을에는 호남여성농구대회를 주최하기도 했다. 이 대회에는 교회여성 대표 및 시내여학교 대표들이 참가함으로써 체력단련 뿐 아니라 YWCA의 존재를 사회에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덴마크체조 강습회를 1932-1933년에 걸쳐 광주YMCA와 공동으로 주최하기도 하였다. 덴마크체조는 서울YWCA가 1929년 덴마크의 힐덴브란트라는 체육지도자를 초청하여 지도자 강습회를 실시한 후 전국적인 보급이 이뤄졌는데, 이때 지도자 강습을 받은 정인세가 광주 송일학교 목공실을 쓰는 빈 교실에서 체조를 지도하면서¹⁰⁷ 체육활동을 활발히 벌어나갔다.

김필레가 교감으로 재임하던 당시에 발생한 사건으로 광주학생운동(1929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29년 11월 1일부터 촉발되어 전국으로 확대된 이 운동을 그 진앙지이자 원점이었다는 광주에서 직접 목격한 것은 김필레에게도 중

요한 경험이었을 것이다. 이미 1919년 3.1운동의 대대적 참여로 수피아여학교는 여러 모로 고초를 겪은 바 있으나, 수피아의 교사들과 후배들은 그 민족운동의 정신과 전통을 계승하였고, 광주학생운동 발발 당시 학교 내에는 비밀학생결사인 ‘백청단(白靑團)’을 조직하고 열세집노래, 반일회 활동 등을 통해 그 면면을 이어갔다.¹⁰⁸

특히 수피아여학교의 백청단사건은 광주학생운동 발발 직후인 1930년 2월경 수피아 여학생들이 백청단(白靑團)이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여 지역 여성들에게 민족의식과 한글교육, 태극기 교육 등을 실시했다. 1930년 1월 28일의 수피아여학교 시위도 백청단이 주도한 결과일 것이다. 이 단원들은 상해 임시정부와 직접 교류했을 정도로 은밀한 조직이었는데, 1932년경 단원 중의 한명이 사상혐의로 가택수색을 당하게 되어 그의 일기장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다. 학생 다수가 피검되었고 학교는 무기 휴학에 들어갔다. 이 당시 백청단의 단장이었던 조아라(曹亞羅)¹⁰⁹를 비롯한 김수진, 염인숙, 김나열, 최풍호, 최기례, 서복금 등은 모두 김필레의 제자들이었다.¹¹⁰

그 외에 수피아의 학교교육에 있어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수피아 교사들의 지도아래 조선의 13도에 대해 특유의 상징적 노래를 부르면서 애국애족 정신과 민족의식을 고취한 가극 ‘열세집’은 아직까지도 수피아여학교의 자랑스런 유산으로 계승되고 있다. 또 수피아여학교에는 반일회(班日會)라하여 반에서 하루를 특별히 모여 여러 가지 순서로 하루를 즐기는 행사를 하였는데, 대개 졸업식 전야나 성탄 전야에 이 모임을 가졌다. 장발장, 베니스의 상인, 바보 온달, 성극 등의 공연을 실시하고 친목을 다졌다. 이 반일회는 ‘반일회’(反日會), 즉 일본에 반대하는 모임이라는 숨은 뜻이 담겨이어서 수피아의 항

103. 광주여자기독교청년회, 『광주YWCA 70년사』, 1992, 39-40.

104. 천화숙, 같은 논문, 81.

105. 광주여자기독교청년회, 『광주YWCA 70년사』, 1992, 47.

106. 당시 수피아 학생이었던 조아라(曹亞羅)는 ‘주월리(현 주월동)에 야학을 지도하러 가기 위해 밤에 길등을 들고 백운동 돌길을 넘어 다녔다’고 하며, 1929년 나주군 봉황면 신창리에 하기학교를, 1930년 여름에는 제주도(당시 전라도)에 학생들이 파견되어 하기학교를 개설하였다. ; 광주여자기독교청년회, 『광주YWCA 70년사』, 1992, 48.

107. 광주여자기독교청년회, 『광주YWCA 70년사』, 1992, 48-50.

108. 수피아 100년사 간행위원회, 『수피아百年史』, 광주수피아여자중고등학교, 2008, 257.

109. 조아라(曹亞羅, 전 광주YWCA회장, 1912-2003)는 1931년 수피아 여학교를 졸업하고 이일학교에서 교사생활을 하던 중인 1933년 1월에 ‘백청단’ 결사조직의 활동경력이 발각되어 동문 18명과 함께 체포되어 주동자로 구금되었다.

110. 수피아百年史』, 258.

일 민족정신과 전통을 은유적으로 이어가는 의미 있는 행사였다.¹¹¹

이러한 수피아여학교의 항일정신과 민족교육의 전통은 1927년부터 1937년 9월 6일에 폐교 될 때까지 수피아에 교감으로서 근무했던 김필레의 민족정신과 항일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결국 김필레는 일제말기에 신사참배, 창씨개명문제로 일경에 끌려가 고초를 당하기도 하였고, 그가 사람들을 선동한다는 트집을 잡아 3년 동안은 교회마저 다니지 못하게 방해를 했다.¹¹² 하지만 해방 직후 김필레는 다시 수피아여학교로 돌아와 교장에 취임하였으며 학교 재건과 광주지역 여성운동을 주도해 갔다.

5. 김필레의 여성운동 정신

조선 YWCA 창립 초기에 김필레는 여성운동에 있어서 크게 교육권과 경제권 양 측면에서 균형감 있는 권리신장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YWCA 설립 직후인 1922년 11월에 김필레가 내한선교사들의 선교잡지인 The Korea Mission Field에 기고한 글, ‘지난 10년 동안의 한국여성의 발전’¹¹³에서는 당시 10년 사이에 조선에서 이루어진 여성의 삶의 발전과 여권신장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김필레는 본문 서두에서 ‘지난 10년간 한국에서는 여성의 권리와 자유, 그리고 활동들이 새롭게 탄생되었다’고 말하면서 조선 여성들의 삶의 실질적인 변화들을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소개하고 있다.

- ① 여성 교육권의 신장 ② 결혼 풍속의 변화 ③ 미혼여성들의 선택권 보장 ④ 여성의 자율적

111. 수피아百年史, 259-261.

112. 광주여자기독교청년회, 『광주YWCA 70년사』, 1992, 40-42.

113. 원문에 영문으로 Mrs. Choi Pil Ley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은 남편 최영욱의 성을 따라 영미식으로 표기되었기 때문이다. Choi Pil Ley, “The Development of Korean Women during the Past Ten Years”, The Korea Mission Field, Vol. 19 (1923. 11.), 222-223.

경제활동에 대한 허용 ⑤ 여성의 자율적인 이동과 사교활동 ⑥ 여성 교사와 간호사들의 증가 ⑦ 여성 경영인과 전문 기능인들의 증가 ⑧ 여성의 정치참여 증가 ⑨ 주체적인 기독교 여성운동과 교회여성 지도력의 질적 향상¹¹⁴

물론 위에서 김필레가 언급한 변화는 당시 보편적 여성들의 ‘변화상’이라기 보다는 소수의 여성들에만 국한된 측면이 강할 것이다. 그럼에도 1910년대와 20년대까지 10년 사이의 한국 여성들의 변화는 많은 학교의 증설과 교회의 확산을 통해 평등과 인권 의식이 확산되면서 나타난 실질적인 변화였다.

김필레는 여성인권이 신장되기 위해서는 여성의 교육과 경제적 독립,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며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위의 글에서도 김필레는 여성에 대한 교육과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대해 특별히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을 통해 실력을 양성한 여성들이 자신의 전문분야를 구축하고 그 안에서 경제적 자립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 김필레가 바라본 한국 여성운동의 우선 과제였던 것이다.

1925년 종로 YMCA에서 개최된 여자토론회에서 김필레는 여성의 자립을 위한 우선적으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펴기도 했다.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 주최인 여자토론회는 예정과 같이 20일 오후 칠시에 종로 청년회관에서 열렸는데 1,000여의 청중으로 정각 전부터 방청석은 만원되었으며 정각이 되자 유각경 여사의 간단명료한 개회사로 토론회는 시작되어 ‘여자해방의 요도(要道)는 교육? 경제?’나 하는 문제에 대하여 제일 먼저 김필레양이 등단하여 교육의 필요를 절규하고 난 뒤에 이경희 양이 등단하여 먼저 연사의 변을 반박하고 여자의 경제적 독립을 해방할 것이라! 말하고 그 다음 리의선양의 교육편에 대한 솔직하고 통쾌한 변론이 잇은 후에 한신광 양이 등단하여 조리있고 해박한 변론으로 만장의 인기를 취케 한 후에 울에(우뢰)가튼 만장의 박수 속에 본론 연사는 끝을 맺고, 다음에 속론으로 남녀사오인의 열변이 잇섯으며 최후로 심판관으로 현 언회전문강사 노정일(盧正一)씨가 등단하여 심판할 지음에 일부 청중은 심판을 잘못한다고 한참 동안 장내는 소동되었으나 결국은 무사히 폐회되었다고 한다.¹¹⁵

114. Choi Pil Ley, The Development of Korean Women during the Past Ten Years, The Korea Mission Field, Vol. 19 (1923. 11.), 222-223.

115. ‘여자토론회 성황’ 《시대일보》, 1925년 6월 22일자. 2면 2단.

물론 여권의 신장을 위해 경제권과 교육권의 확보는 동전의 앞뒤와 같아 어느 것이 더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무의미한 측면도 있다. 그리고 이 토론회의 성격이 임의로 양측의 입장을 선정해 놓고 각자가 한쪽편의 논객을 맡아 수행한 측면이 없지 않기에 김필레의 명확한 입장이라고만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필레가 여성의 교육에 더욱 무게중심을 놓고 여성운동을 바라보았을 개연성은 높다.

김필레는 망국의 역사적 아픔을 경험하면서, 여성들도 깨어 배우고 실력을 양성해한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해왔으며, 김필레의 이러한 입장은 도쿄의 ‘여자 학원’을 중도에 포기하고 3.1운동과 독립운동을 수행하기 위해 귀국한 조카 김마리아에게 민족운동 이전에 우선적으로 학업을 마치기를 요청한 일화에서도 잘 나타난다.¹¹⁶

이후 1930년대에 접어들어 김필레는 ‘부인운동에 대한 사적 고찰’이라는 글에서 여성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 도덕, 직업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과 달리 여성의 경제적인 자율성과 주체성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져 있다. 당시 여성 지위의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적 독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전에 여성 교육이 부족한 1910-20년대를 거쳐, 이제 어느 정도 여성교육의 수준이 궤도에 오른 1930년대에 들어서서는 식민지 현실 속에서 이중적 착취구조에 놓여 있는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에도 관심을 높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부인문제는 사회 문제 중의 하나의 중대한 것입니다. 자유사상이 발달되고 평등주의가 고조되는 시대를 당하여 부인들도 권리감이 비로소 각성되고 따라서 실제로 실행운동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제일로 먼저 시작한 것이 부인 참정권운동이요, 그 다음에는 보통여성운동 즉 여자의 인격운동입니다. 이 여성운동은 다방면인데 교육, 도덕, 직업 등입니다. ... 여자의

116. 김필레는 “너 학교는 어떻게 하고? 2월이면 졸업이잖아?”라고 다그쳐 물었고, “우리 처지에 무엇보다 배움이 최선의 길이니 우선 학업을 마쳐야 한다”고 설득했다. 그러나 김마리아는 “고모, 나라도 없는 마당에 졸업장은 해서 무얼해요?”라고 반박했다고 한다. 이기서, 같은 책, 116.; 박용욱, 같은 책, 151-153.

권리가 남자에게 빼앗겨진 유래를 사회학상 견지로 보면 전부가 여자의 경제적 지위의 불평을 남자가 이용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 권리를 회복함에도 먼저 경제로 독립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인의 직업문제는 여러 가지로 연구되고 선전되었습니다. ... 조선은 형편상 남자도 정치에 아무 권리가 없고 언론 출판에 대한 아무 자유가 없고 경제에 대하여 심한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설상가상으로 조선여자는 종의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 세상사람 중에 조선여자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없겠다고 하겠습니다.¹¹⁷

그러나 이러한 김필레의 입장변화를 통해 그가 교육 문제보다 경제문제에 더 천착하거나 이를 더 우위에 놓았다고 쉽게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김필레는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여성의 경제적 자립의 문제에 대해 좀 더 주목하면서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교육’임을 더 힘주어 강조하고 있다.¹¹⁸

6. 김필레가 한국 YWCA에 남긴 유산들

6.1. 몸소 실천한 섬김의 리더십

조선YWCA는 창립에서 해체 시까지 약 20년 동안의 YWCA 연합회 임원들의 명단을 확인해 보면 대체로 창립당시의 인물들이 해체 시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활란, 방신영, 유각경, 홍에스터, 황에스터 등 5명이 역대회장을 역임했고, 이 가운데 방신영은 기성회 회장 6개월을 맡았을 뿐이므로 실제로는 김활란(5회), 유각경(4회), 황에스터(1회), 홍에스터(5회) 4명이 역대 회장을 나눴다. 그런데, 의외로 김필레의 이름을 찾아 볼 수가 없다. 김필레는 YWCA의 최초 발기인이자, 창립 멤버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회장으로 드러나기 보다는 총무와 순회강연자로서 직접 뛰면서 YWCA의 숨은 손발이로서 실

117. 김필레, ‘부인운동에 대한 사적 고찰’, 『青年』, 1930년 2월(10권 2호), 3-4.

118. 천화숙, 같은 논문, 129-130.

질적인 설립과정에 헌신했다. 그래서 YWCA 사업의 실제 총괄자인 총무 역할을 창립초기에 두 차례만 감당함으로써(1922. 4 - 1923. 8) 초기 YWCA가 안정적이고 튼실한 면모를 갖추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헌신했다.¹¹⁹

물론 이후에 김필레가 더 이상 서울에서의 YWCA 활동에 전념할 수 없었던 미국 유학(1925.1.-1927.6.)이나 귀국 이후 광주에서의 활동 등과 같은 개인 사정이 있긴 하였으나, 그가 초기 YWCA 창설과 발전과정에 기여한 숨은 리더십과 공로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섬김의 리더십'을 몸소 실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6.2. 지역을 사랑한 지도자

한국의 YWCA는 창립 초기부터 지역 YWCA를 기반으로 그 기틀을 잡아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그리고 이를 실현 가능하도록 만든 것도 결국 전국을 숨가쁘게 순회하며 YWCA를 조직했던 김필레의 헌신이 그 밑거름이 되었기 때문이다. YWCA가 조직된 이후에도 김필레는 중앙에서의 명예와 권위를 바라보기 보다는 지역에 내려가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나누어주는데 헌신했다. 호남지역에서의 기독교운동과 민족운동, 교육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자신의 실력과 재능을 지역사회를 위해 내어 놓은 김필레의 지역 사랑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해방 이후 급속도로 산업화되고 서울중심의 사회구조가 심화되면서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벌어진 이때에 우리는 지역을 섬기며 지역사회의 균형발전과 낮은 자리를 향해 발걸음을 옮긴 김필레의 삶의 자세를 본받아 새로운 지역사회와 마을을 세워내기 위해 고민하고 헌신해야 할 것이다.

119. 이러한 김필레의 섬김의 리더십은 광주YWCA의 활동에서도 두드러지는데, 김필레는 한번도 회장에 재임하지 않고 1922년부터 1947년까지 총무로서 봉사했다.

6.3. 농촌사랑을 통한 단순 소박한 삶

정신여학교를 9회로 졸업하고 애국부인회 서기를 맡았던 김영순의 증언이다.

(김필레는) 시어머니께는 효부올시다. ... 시골 제실 때에는 밭도 매시고 농사도 하시고 면화도 따시고 또 선생 노릇도 하시고 교장 노릇도 하셨습니다. 광주라면 그 칭찬과 명성이 자자합니다. ... 또 자기가 담당하여 대학을 시키는 학생도 몇 명 있고 외국에 소개해서 등록금 얻어준 학생이 5~6명 있는 줄 압니다. 그것은 자기 돈 주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소개 편지해야 하고 매달 보고해야 하고 시험마다 성적표 해보내야 하고 한자리라도 떨어질까 염려하시며 고생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 집 한 칸 없이 반찬 없는 진지를 잡수시며 빈궁한 생활을 하십니다.¹²⁰

정신여학교 후배의 위 증언과 김필레의 전기 『교육의 길 신앙의 길』에 기록된 곳곳의 이야기들을 볼 때, 김필레는 신진지식을 배운 신여성으로서 책상머리의 공부에만 천착한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건강이 좋지 않은 시어머니를 위해 직접 농사일도 도맡아 하고 양봉을 하면서 꿀을 생산하기도 했다. 여성이 양봉을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어려운 일임에도 그는 다양한 농업분야에 종사했다. 일제말기에는 1937년부터 수피아여학교도 폐교되고 YWCA 연합회와도 관계를 멀리한 채 농사일에만 전념하면서 번역과 저술에 몰두했다.¹²¹ 그는 도시에서의 안락한 삶보다는 농촌현장에서 땅을 일구며 생명살림의 모범을 보여준 사람이었다.

이는 김필레의 오빠 김필순이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수행하면서 흩어진 조선인들을 모아 공동농장을 경영하는 이상촌을 건설했던 경험¹²²과 1930년대 YWCA가 전개했던 최용신(崔容信)¹²³으로 대표되는 농촌운동 정신이 그의 삶 속

120. 김영순, '후배가 본 김필레 교장', 『정신 75년사』, 정신여자중고등학교, 1962, 379-380.

121. 광주여자기독교청년회, 『광주YWCA 70년사』, 1992, 40-42.

122. 이기서, 같은 책, 77-79.

123. 심훈(沈薰)의 소설, 『상록수』의 주인공 '채영신'의 실제 모델이었던 인물.

에서 그대로 실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김필레는 자신의 지식과 배움을 통해 자신의 명예와 부귀를 얻는데 사용하지 않고 끊임없이 어려움에 처한 가족친지와 자신의 제자들을 위해 나누고 베풀었다. 그래서 그의 삶은 늘 단순하고 소박했다. 이는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정신적, 영적 빈곤함에 허덕이며 사는 현대인들에게 무언으로 주는 커다란 메시지가 아닐 수 없다.

6.4. 민족을 위한 교육정신

주지하다시피 김필레의 집안은 한국 그리스도교의 대표적인 기독교집안이자 독립운동가 집안이다. 오빠인 김필순을 비롯해 형부인 서병호, 김규식은 한국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들이다. 그리고 그의 언니들과 조카 김마리아 등도 저마다 열정적인 민족운동을 전개하며 한국의 독립과 근대화에 기여했다.

김필레는 특별히 ‘교육’을 통해 수난 중에 있는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는 일념으로 배움의 길을 걸었다. 도쿄 유학시절에 김필레는 한인교회에 나갔는데, 거기서 그를 본 남학생들이 많은 구애와 연애편지를 보내온 적이 있다. 한번은 조카 덕룡과 한방을 쓰던 춘원 이광수가 아주 적극적이어서 김필레의 기숙사까지 찾아왔다. 김필레는 ‘지금 우리나라 형편에 일본까지 와서 젊은 남녀 학생들이 한가로이 연애나 하고 있을 때인가!’라고 말하고 돌려보냈다고 한다.¹²⁴ 이처럼 김필레는 유학 생활을 하면서도 늘 민족의 앞날과 해방을 위해 고민하며 배움에 임했던 것이다.

따라서 그는 기독교를 근간으로 함과 더불어 민족과 조국을 떠난 교육은 존속되어질 수 없다는 확고한 교육관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으로 평생을 흔들림 없이 교육 사업에 종사했다.¹²⁵ 오늘날 개인주의화 되고 출세지향

124. 이후 이광수는 한국에 돌아가 김필레를 모델로 한 소설을 발표하여 끝내 김필레를 난처하게 만들기도 했다. 이광수와 김필레의 만남에 관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를 참조. ‘新女性總觀(2) 百花爛漫의 己未女人群 - 春團과의 戀愛와 女醫로 出現한 許英肅氏’ 『삼천리』 제16호, 1931년 6월 1일자. 26-27.; 이거서, 같은 책, 65.
125. 이거서, 같은 책, 258.

적인 교육풍토 속에서 우리는 김필레의 교육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6.5. 신앙과 삶을 조화시킨 참 신앙인

김필레는 엄격한 장로교의 신앙적 모범을 보여주면서 평생을 절제와 겸양의 미덕을 보여주었다. 그는 YWCA의 45년을 회상하면서 YWCA가 세월의 변화 속에서도 기독교 신앙의 근본정신과 목적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하고 있다.

눈부시게 발전하는 YWCA의 활동을 눈 여겨 보면서 제가 다만 바라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지식을 전달하는 데만 그치지 말고 반드시 이 활동을 통하여 YWCA의 근본 목적 곧 우리 구주를 그들에게 소개하고 자기들의 살 길을 찾고 근처의 교회의 교인이 되게 하는 데까지 그들을 돌보아 주는 것을 잊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세대가 변천하고 그 변천에 따라 YWCA 사업의 종류도 변해 갈 줄 믿습니다. 그러나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은 YWCA의 근본 목적인 것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배달 민족이 가장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을 때, 이 귀중한 기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므로 오늘의 YWCA를 보게 하셨으니, 구주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YWCA와 같이 하시고 축복하심으로 처음부터 이 기관을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빌어마지 않습니다.¹²⁶

김필레는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언제나 믿음직하고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가 보여준 성실함과 신실함은 바로 그가 믿었던 그리스도교 신앙에 기초한 것이며, 그는 자신의 신앙과 삶을 조화시킨 참 신앙인의 모델로서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정신여학교의 75주년을 기념해 미국의 밀러 선교사가 보내온 편지의 다음 대목이 바로 이러한 김필레의 신앙과 삶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당신은 기도하는 사람이며 지난 날의 당신의 공로가 기도의 힘이었음을 압니다.¹²⁷

126. 김필레, ‘45년전 YWCA를 돌이켜 보면서’, 이거서, 같은 책, 154쪽에서 재인용.
127. E. H. 밀러, ‘사랑하는 김필레 여사에게’, 『정신 75년사』, 정신여자중고등학교, 1962, 381.

닫는 글

『정신75년사』에서는 김필레에 대하여 ‘여장부로서 확고한 신념의 소지자. 인자함과 모든 인품의 고매함이 겸비된 바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의 척도와 그 외의 모든 것을 얘기하자면 끝이 없을 것’¹²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또 김필레의 시숙인 최홍중 목사도 김필레에 대해 ‘당대의 우리나라 여성 중 가장 위대한 분’이라고 칭찬하며 ‘가정을 이끄는 훌륭한 가정인ियो, 위대한 여성교육자며, 참 종교인, 이 모두를 아우른 분은 우리나라 여성으로 김필레 밖에 없다’고 말했다.¹²⁹

이처럼 김필레는 아직 남성중심적 사회구조 속에서 여성을 바라보는 엄혹한 시선을 극복하고 여성에게 요구되는 현모양처라는 가부장적인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여성상을 제시한 신여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낸 보기 드문 인물임에 틀림없다.

그런 의미에서 김필레가 YWCA 창설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했던 모든 일들은 YWCA 역사에서 두고두고 기억되고 기념되어야 할 것이다. 1923년 조선 YWCA 창설 이후 김필레는 YWCA 창설의 역사적 의미와 책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과거 10년간 여성 단체들의 성장은 한국 여성들의 사회적 발전을 의미한다. 10년 전에 여성의 단체들은 존재하지 않았다. 올 들어 그들의 활동은 정부가 주목할 만큼 충분이 중요하고 왕성하다. 58개의 단체들이 등록했다. 주목할 만한 특징은 이러한 여러 단체들을 통하여 여성들은 자신의 책임을 깨닫고 자신들의 요구와 바람들을 이행하기 위해 YWCA를 위시하여 수많은 단체들이 함께 연합되었다는 것이다. 과거 10년, 그때는 한국 여성들의 유년기로 봐야 할지도 모르겠다. 여성들의 앞으로의 10년의 앞에 놓인 성장의 가능성은 무엇인가? 여성들이 하나님, 남성들과 함께 은혜 중에 지혜와 능력이 더욱 자라나기를 진실로 기도한다.¹³⁰

128. 김영삼 『정신 75년사』, 정신여자중고등학교, 1962, 378.

129. 이기서, 같은 책, 102.

130. Choi Pil Ley, The Development of Korean Women during the Past Ten Years, The Korea Mission Field, Vol. 19 (1923. 11.), 223.

이제 21세기 한국 YWCA에 새롭게 주어진 10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다시 한 번 고민하게 하는 메시지이다. 1922년에 보여주었던 저 새로운 변화를 우리는 새롭게 창조하고 있는가. *

글을 쓴 홍승표는

1	2
3	4

1. 결혼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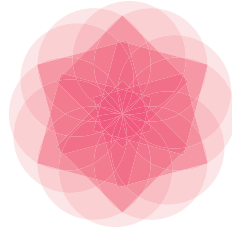
2. YWCA 창립을 위한 제2회 하명회

3. 한국 YWCA 창립 50주년 기념식에서 공로상 수상 광경

4. 선생이 번역한 '성경사회집'의 속표지. 대한기독교서회에서 간행된 이 책은 4판까지 발행되어 당시로서는 경이적인 발행부수의 기록을 보였다.



다시 함께 부르는 노래



이천진.
광정감리교회 담임목사
영성팀 전문자문위원

다시 함께 부르는 노래 글 박은실
곡 이천진

혼자서가기어려 운가요 함께기면쉽지요
혼자집지기무어운가요 마주들면가볍지요
언젠가불렀던 그노래 정의와평화의노래
오늘다시함께부르는 우리들의사랑노래
돌봄으로정의를 나눔으로평화를
주님듣고기뻐하실 생명의노래
돌봄으로정의를 나눔으로평화를
주님듣고기뻐하실 생명의노래

민들레의 노래 대한 YWCA 연합회

♩ = 100

민들레가피어났어 요 아름다운 밝은동산 에
열어붙은겨울땅을 헤 치 고 힘 차게피어났어 요
민들레아피겨나가 라 흩세되어피겨나가 라
꿈을찾는사람들을 할 하 며 힘 차게피겨나가 라
아름다운세상 참 좋은세상 민들
레 의 할-기 가 가 득 한 좋은세상만들어 가 요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인터넷 지식검색에 올린 글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입니다. 도덕 숙제를 해야 하는데, 한국YWCA에 대해서 하는 거라서, 복잡하게 하시지 말고 하는 일, 업적, 장소, 느낌, 땡땡을 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정말 급하합니다. 장학사들이 와서 이런 거 한다는데 얼른 알려주세요.> YWCA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다. YWCA 정체성은 한국YWCA 목적문에 나타나 있다.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화 창조 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누가 주체인가? YWCA의 주체는 젊은 여성이다. 젊은 여성들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 둘째,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임을 믿는다. 그래서 YWCA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YWCA를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셋째, 무엇을 함께 인식하는가? 모든 인류를 한 형제자매로 인정한다. 보수는 진보를, 진보는 보수를 인정해야 한다. 인종이 달라도, 성이 달라도, 종교가 달라도, 한 형제자매로 품어야 한다. 넷째, 무엇을 행동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내 자신이 내 삶 속에서 예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다. 다섯째, 무엇이 목적인가? 정의 평화 창조 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하는 것이 목적이다. YWCA의 목적은 회의가 아니다. 사무가 아니다. 건물관리가 아니다. 수익사업이 아니다. 기독교 세력 확장이 아니다. 정의 평화 창조 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하는 운동이 목적이다. 이것을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한다.

히브리인들의 운동과 노래

운동을 할 때에는 노래를 부른다. 독립운동을 할 때에도 노래를 불렀다. 1940년대 광복군의 대표적인 노래 <압록강 행진곡>이다. <우리는 한국 독립군 조국을 찾는 용사로다 / 나가 나가 압록강 건너 백두산 넘어가자 / 우리는 한국 광복군

악마의 원수 쳐물리자 / 나가 나가 압록강 건너 백두산 넘어가자 새마을운동을 할 때에도 노래를 불렀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민주화 운동을 할 때에도 노래를 불렀다. 백기완의 시 <뫼비나리>에서 가사를 따와 광주 지역 문화운동가인 김종률이 작곡한 <임을 향한 행진곡>이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 동지는 간 데 없고 깃발만 나부껴 / 새 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히브리인들도 신앙운동을 하면서 노래를 불렀다. 히브리인들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 신앙, 전통과 문화를 상실하였고, 그들의 삶은 피폐해졌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왔다.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은 처절하였다. 배고픔, 목마름 등은 히브리인들을 힘들게 하였다. 드디어 그들은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왕의 지배가 없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 열두 지파 평등공동체였다. 그러나 왕정이 시작되면서 그들은 다시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였다. 결국, 히브리 민족은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분열되었고, 북왕국은 앗시리아의 노예가 되고, 남왕국은 바벨론의 노예가 되고 말았다. 50여 년 동안 바벨론으로 끌려가 노예로 살았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지배하면서 히브리인들은 다시 페르시아의 노예가 되었다. 페르시아의 유화정책으로 히브리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노예였다. 그들은 왜 나라를 빼앗겼는지 돌아보았다. 왜 노예가 되었는지 돌아보았다. 문제는 하나님 신앙의 상실이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전통의 상실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전통을 회복하는 운동을 한다. 이것을 <지혜운동>이라고 부른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전통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였다. 이것이 바로 <제2의 성전>(the Second Temple)이다.

성전을 재건한 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회복, 신앙의 부흥, 영성의 회복이었다. 신앙운동을 위해서 노래가 필요하였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찬송가를 펴내었다. 그것이 구약성서의 <시편>이다. 시편은 최초의

찬송가라고 할 수 있는데, 히브리 성서에서는 시편을 <테힐림>(תהלים)이라고 부른다. <찬양의 노래>라는 뜻이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구약성서를 헬라어로 번역된 것을 읽었다. 이것을 <셉투아긴트>(Septuagint)라고 부른다. 여기에서는 시편을 <살모이>(Ψαλμοι-Psalmoi)라고 부르고 있다. <현악기 반주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라는 뜻이다. 시편은 단순한 시가 아니라, 노래였다. 잃어버린 하나님 신앙과 영성을 회복하고, 그래서 잃어버린 나라와 자유를 회복하고, 정의와 평화와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 불렀던 노래이다. 그래서 시편을 <제2성전의 찬송가책>(Hymnbook of the Second Temple)이라고 부른다.

히브리인들은 노예의 자리에서 신앙운동, 나라회복운동, 정의와 평화와 생명운동을 하면서 노래를 불렀다. 노래는 그들에게 힘을 주었다. 영적인 힘을 주었다. 한 예가 <시편 23편>이다.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של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도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 페르시아의 지배가 계속되는 노예의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부족함이 없고, 주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של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노래하였다. 이 노래는 영적인 힘을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노예의 자리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새로운 세계를 희망하였다. 구약성서학자인 왕대일은 <신앙공동체를 위한 구약성서 이해>(pp.207-208)에서 시편의 노래는 힘을 지니고 있고, 생명을 불러일으키며, 살아있는 영성이라고 하였다.

다시 함께 부르는 노래

YWCA의 목적은 정의·평화·창조 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하는 운동이다. 운동을 위해서 YWCA는 노래를 창작하여 부르고 있다. <민들레의 노래>, <좋은 사람> 등 20여 곡을 창작하여 음반도 내고, 10만 회원들이 YWCA 운동을 하면서 부르고 있다. 지난 2011년 10월 3일-4일에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제 38회 YWCA 전국대회가 있었다. 전국대회 주제는 <돌봄으로 정의, 나눔으로 평화>이었다. 주제가를 창작하였는데, <다시 함께 부르는 노래>이다. 작사는 한국 YWCA연합회 운동국장 박은실이 하였고, 작곡은 궁정교회 담임목사 이천진이 하였다.

혼자서 가기 어려운 가요 함께 가면 쉽지요
혼자 짐 지기 무거운 가요 마주 들면 가볍지요
언젠가 불렀던 그 노래 정의와 평화의 노래
오늘 다시 함께 부르는 우리들의 사랑 노래
돌봄으로 정의를 나눔으로 평화를
주님 듣고 기뻐하실 생명의 노래
돌봄으로 정의를 나눔으로 평화를
주님 듣고 기뻐하실 생명의 노래

운동은 혼자서 할 수 없다. 학문은 혼자 할 수 있다. 기도도 혼자 할 수 있다. 그러나 운동은 함께 하는 것이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YWCA 마음을 따라야 한다. YWCA 마음은 <돌봄으로 정의, 나눔으로 평화>이다. 그동안 각자의 생각을 노래했는데, 이제 다시 YWCA의 노래를 부르자는 것이다. YWCA 노래는 정의와 평화의 노래라는 것이다. 정의와 평화의 노래는 주님이 좋아하시는 생명의 노래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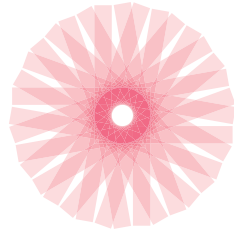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복음의 핵심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쉬네 테우>이다. <디카이오쉬네>라는 말을 플라톤(Platon) 철학에서는 정의(justice)로 번역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정의가 아니다. 차정식 교수는 <성서 주석 로마서 1>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오해가 '하나님의 의'를 사법적 정의(penal justice) 또는 사회정의(social justice)와 일치시키는 것이다> 신약성서에서의 <하나님의 의>, <디카이오쉬네 테우>는 <한 사람을 옳거나 선한 존재가 되게 해주는 선물>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자신의 스승 플라톤이 사용한 <디카이오쉬네>를 <덕>(virtue)으로 번역되는 <아레테>(arete)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하나님의 정의는 복된 존재가 되도록 선물을 주는 것이다. 덕을 베푸는 것이다. 그래서 YWCA는 노래한다. <돌봄으로 정의를>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며 노래를 불렀다. 그 노래 가사가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이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 다 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두 가지이다. 하나님께는 영광을 드리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평화를 이루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목적은 연결되어 있다. 사람들 사이에서 평화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와 살을 인류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래서 YWCA는 노래한다. <나눔으로 평화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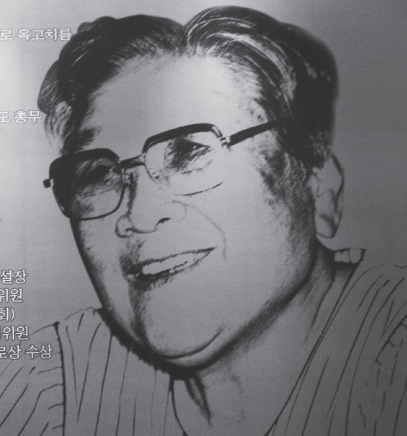
글을 쓴 이천진 목사는 감리교신학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Wesley theological seminary에서 박사학위(Doctor of Ministry)를 받았다. 현재 궁정교회 담임목사로 사역하고 있고, 21세기 찬송가 98장(예수님 오소서)과 203장(하나님의 말씀은)의 작곡자이다. 한국찬송가위원회 위원, 한국찬송가공회 위원, 연합찬송가 편집위원, 감리교어린이찬송가 편집위원장으로서 한국찬송가 작곡과 한국찬송가의 신학화 작업을 열정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광주YWCA에서 만남 여성이 살리는 세상



김기동,
연합회 실행위원

1912. 3. 28	전남 다주군 반남면 출생	
1927. 4	- 1931. 3	수피아 여자고등학교 졸업
1931.	수피아 백청단 은지원 사건 주동자로 옥고치름	
1931. 4	- 1933. 3	광주이일학교 교사
1936.	신사참배 거부로 1달간 옥고치름	
1939.	이유없이 불장려 투옥	
1942. 4	- 1945. 8	광주합동교회 전도사
1945. 8	- 1947. 4	전중부인회, 독립촉성부인회 시·도 총무
1945. 9	- 1972. 12	광주YWCA 상무이사, 총무
1945. 9	- 1945. 12	수피아 동창회장
1945. 12	- 1947. 10	수피아 여자중학교 교사
1946.	한국 걸스카우트 전남연맹 조직	
1947.	- 1955	한국 걸스카우트 전남연맹장 역임
1947. 10	- 1954. 4	전남 도청 후생국 주생과 부단체장
1952. 7. 1	- 1994. 3	광주성민여자 시절장
1955. 10	- 1975. 11	대한적십자사 전남지사 상임위원
1962. 12	- 2003. 7	광주YWCA복지사업 계명여자 시절장
1964. 3	- 2003. 7	광주YWCA가정법률상담소설립 위원
1965. 9	- 2003. 7	제2회 용신 봉사상 수상(여협중앙회)
1970.	- 2003. 7	광주NCC인원위원회 고문 및 상임위원
1972. 4	- 1982. 12	대한YWCA 창립 50주년 특별 공로상 수상
1972. 8. 26	- 1980	국무총리표창
1973.	- 1980	광주YWCA 회장
1976	- 1980	광주YWCA신용협동조합 이사장
1977. 6	- 2003. 7	사회복지법인 수화자매원 이사장



1
2 3

1. 광주YWCA 내부 조아라기념실
2. 계명여자 원관식
3. 광주YWCA 역대 임원단과 함께

지난 3월 28일, 초여름같이 햇볕 뜨거운 봄날, 광주YWCA 명예이사인 조규혜 선생님과 함께 찾은 광주YWCA에서는 뜻 깊은 행사가 준비되고 있었는데, 이는 1964년 계명여자 본관으로 봉헌된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YWCA 가정폭력 보호 시설'로 새롭게 문을 열며 함께 축하하는 자리였다. 그곳에 입주할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행사는 조용히 조출하게 이루어졌지만, 그 잔잔한 울림은 참석한 이들에게 또 한 번의 보람과 감격의 순간이 되었다. 1922년 조선 여자기독교청년회(현 한국YWCA)의 창립자 중 한 사람이었던 김필례의 시택에서 양응도, 김합라, 그리고 임자혜와 함께 했던 기도모임에서 태동한 광주YWCA 90년 역사 여정에 또 하나의 표지석이 되었으리라.

생각지도 않은 선물을 받는 기쁨이란 이런 것일까! 이날은 공교롭게도 광주YWCA의 어머니라 불려도 될 고(故) 조아라 선생님의 탄생 10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기억하는 이도, 어떤 기념행사도 없었고, 조아라 기념실에 적혀있는 약력을 보고서야 비로소 알게 된 것이었지만, 광주를 처음 만나고 광주YWCA의 이야기를 듣길 원했던 여정에서 접한 이 두 사건은 광주YWCA가 90년의 역사를 넘어 지금까지 세상을 향해 당당히 서 있을 수 있었던 두 주춧돌을 발견한 듯한 설렘으로 다가왔다.

100년 이야기 무에서 유를 창조한 조아라

1984년 신축된 광주YWCA 유동 회관 2층에는 10평 남짓 소심당(素心堂) 조아라 선생님을 기념하는 작은 방이 있다. 2003년 타계한 조아라 선생님이 생전 사용하던 생필품들, 기록들 등이 소박하게 전시되어 있는데, 하나하나 정결하고 빈틈 없었던 그의 삶을 짐작하기에 충분하다. 1922년 민족의 암흑기, 이 땅의 여성들을 깨우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광주YWCA가 태동하는데 김필례가 있었다면, 1938년 일제에 의해 폐쇄되었던 광주YWCA를 해방 후 재건시키고 광주 여성운동의 본거지로 자리매김하기까지 그 중심에는 조아라가 있었다.

둘이켜 보건대 1938년 광주YWCA의 폐쇄는 창설 이후 야학, 농촌봉사 그리고 체육 활동 등으로 기독교 신앙 안에서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더 나아가 이 민족을 바로 세우기 위한 YWCA의 정신을 생각할 때 너무나 뼈아프지만, 피할 수 없는 교육지책이었다. 겉으로는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의해 YWCA 활동의 중심지 역할을 하던 수피아여학교가 문을 닫게 되면서 참여 회원이 급격히 감소한 것이 결정적 요인이었지만, 실상은 그 해에 있었던 조선YWCA연합회가 창설 때부터 지켜온 독립성을 버리고 일본YWCA와의 합병을 결정하고, 게다가 장병위문금을 모금해 헌납하는 등의 친일행각에 대한 반발의 영향이 더 컸다고 한다. 하지만 역사의 질곡에 타협하지 않고 그 아픔에 고스란히 인내하고 동참하는 광주YWCA의 강인한 정신은, 45년 해방과 함께 재건 후 탄탄히 이어온 광주YWCA 역사의 밑거름이 되었다.

해방 후 한 달 남짓 9월 14일 금동 금정교회 부속 유치원에서 조아라 등의 발의로 광주YWCA의 재건이 만장일치로 가결됨에 따라 광주YWCA의 두 번째 시대가 열리게 된다. 특히 그 자리에서는 이후 광주YWCA운동이 지향해야 할 바를 정하는 중요한 결정이 있었는데, 즉 여성의 올바른 애국운동, 건전한 기독교 생활화 운동, 여성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운동, 민주정치 안정을 위한 여성의 행정 및 의정 참여 운동 등으로, 이는 이후 전개될 역사와 민족에 대한 책임적 존재로서의 광주YWCA 여성들의 활약의 원동력이 되었다.

광주YWCA 재건 때 상무이사로 시작하여 1947년부터 72년까지 26년간 광주YWCA총무, 73년~76년과 79년~83년까지 두 번의 광주YWCA회장, 이후 광주YWCA 명예회장, 2003년 92세 일기로 소천하기까지 조아라의 YWCA사랑은 한 사람의 열정과 헌신이 보잘 것 없고 미약했던 한 YWCA를 민족과 사회를 향한 하나님 나라의 운동체로 성장시키는데 얼마나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지 보여주는 모범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조아라가 YWCA에서 헌신하던 50 여년, 광주YWCA는 광주 지역의 대표적인 여성, 사회, 기독교, 민주 운동의 중요한 현장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그 어디 순간순간 조아라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여성운동가 조아라와 함께 광주YWCA는 광주 지역 여성운동의 메카가 되었다. 지방 최초 가정법률상담소 개소(1966년), 신용협동조합 결성(1971년), 농촌사업

그리고 소비자운동을 일으킴으로써 시대의 수난들을 함께 겪으면서도 역사의 주체에서 빗겨있던 여성들을 일깨움으로써 여성들로 하여금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헌신적 봉사의 능력을 발휘케 하는 선도적인 여성시민운동체로 발전케 하였는가 하면, 사회운동가 조아라의 열정은 광주YWCA로 하여금 호남여숙과 성빈여사 설립(1952년), 별빛학교 개설(1961년), 계명여사 설립(1962년) 등 사회 부조리와 가난에 고통당하는 여성들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소외된 이웃의 참된 친구가 되는 사회복지 사업의 선구자로 우뚝 서게 했다.

12대 회장 재임 시, 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긴급조치 4호가 발동되어 전국에 민주화운동이 고조될 당시, 조아라 회장은 그해 10월 매주 목요일 광주YWCA강당에서 광주YMCA, 광주NCC 그리고 전남자유수호위원회 등과 연합하여 긴급조치 위반으로 수감된 수감자들을 위한 목요기도회를 시작하여, 광주YWCA가 사회 불의에 항거, 민주화에 동참하는 민중기독교운동으로 각인되게 하는가 하면, 14대 회장 때는 광주민주화항쟁의 소용돌이에서 양심적 재야명망가를 중심으로 한 수습대책위원회에 참여하여 옥고를 치르고 또한 5·18의 실상을 독일과 미국 등 외국에 직접 알려 희생자를 줄이기에 힘씀으로써 광주의 어머니라고 불리기까지 하였다.

수피아여학교 은사였던 김필례의 영향으로 조아라가 YWCA와 관계를 맺고 일생을 헌신하게 되었다면, 조아라는 1952년 자신의 조카 조규혜 현 광주YWCA 명예이사를 간사로 불러들임으로써 또 다른 조아라 조규혜의 올곧은 60년 YWCA 사랑을 열게 하였다. 조규혜는 그 당시 광주YWCA 회원 수는 100여명 남짓하였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들의 헌신적인 봉사는 정말 눈물겨운 것이었다고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어떤 원조도 없이 호남여숙, 성빈여사를 꾸려나가면서 빛이 늘어가고있는 상황이었는데, 아침예배 때마다 성빈여사생들과 드렸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미국YWCA로부터 생각지도 못한 보조(우정소포라고 불렀다한다)가 와서 결국은 빛이 많이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하기도 했다고 한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일까. 김필례, 조아라, 그리고 조규혜를 넘어 현재 광주YWCA는 27대 최영남 회장, 김신희

사무총장을 비롯한 6000여명의 회원들이 이 시대의 밑알을 꿈꾸며 21세기 광주 YWCA의 발걸음에 힘차게 동참하고 있다.

60년 이야기

감사하며 사는 삶은 행복하고 아름답습니다 성빈여사

1. 수고 없는 댓가는 바라지 말라
2. 배움으로 닦으며 부지런히 일하라
3. 사랑으로 도우며 감사로 보답하라

전남대학병원 뒤 작은 길 맞은 편, 울타리도 없이 4층짜리 건물 두 동이 서있다. 작은 표지판에는 희망관, 평화관이라고 표시되어 있을 뿐, 이름이 없는 이 곳이 1952년 설립된 성빈여사다. 왜 이름이 없을까? 그 의문은 곧 풀렸다. 부모와 함께 살 수 없어 남다른 고통을 겪은 성빈여사 아이들이 자격지심 없이 이곳에 머물게 하기 위한 배려였다. 어린 아기부터 18세에 이르기까지 55명의 소녀들에게 이곳은 단순히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 즐거운 나의 집이요, 또 다른 가족을 누리는 보금자리다.

성빈(聖貧)여사는 한국전쟁 초기 단신으로 피난 오거나 부모를 잃은 10대 소녀들이 광주 시내를 배회하다가 하룻밤이라도 묵으려고 광주YWCA를 찾아 왔을 때 의면할 수 없어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태어났다. 그나마 해결된 것은 잡자리였을 뿐, 51년 겨울을 나도록 나눌 수 있었던 먹거리는 그 당시 YMCA구회관에서 평화원이라는 전쟁고아 임시수용소를 경영하던 성흥기 선생이 보내준 수수쌀로 쏘 죽이 전부였다고 한다. 그 해 12월 UN 원조기관인 케썬의 시찰단이 회관을 방문하여 실정을 파악하였지만, 수용생이 기준에(30명 이상)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가시설등록을 거절하였다. 그러나 재차 광주 사회과에 등록 신청하여 52년 5월 '가난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주님 닮게 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사는 여자들의 집'이라는 의미로 '성빈여사'로 명명되어, 7월 1일 12명의 아이들과 함께 후생시설로 정식 출발했다. 조아라 총무가 시설장을 맡았고, 조규혜 간사가 사관으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 돕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모든 것을 잃고 방황하던 아이들이 다시 삶의 희망과 비전을 되찾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어갔다.

마냥 회관을 수용소로 사용할 수 없는 터라 인근에 건물을 매입하여 사용하던 중, 53년 연합회의 보조로 현재 성빈여사 터 건물을 구입하여 자리 잡게 되었다. 54년 80명, 58년 115명, 65년에는 173명까지 인원이 증가하여 65년 아동 기숙사 신축, 88년 개사 35주년을 기념하여 제2생활관을 준공, 92년에는 개사 40주년 기념으로 새생활관을 건립하기에 다다랐다. 그리고 2011년에는 개사 60주년을 기념하여 현재 평화관이라 불리는 아동생활관을 준공하였고, 이렇게 60년의 시간 동안 성빈여사를 거쳐 간 인원은 1,500여명이 이른다.

위 3개의 명령문은 설립 때부터 주어진 성빈여사의 사훈이다. 주눅들 수밖에 없는 처지를 딛고 자립의지와 더불어 당당하게 하지만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길 수 있도록, 불우한 소녀들의 꿈과 비전의 터전이 되었던 성빈여사는 사회환경의 변화로 또 한 번의 탈바꿈을 시도하였는데, 바로 2000년 개설된 그룹홈이 그 형태였다. 그룹홈은 대규모 수용 시설을 탈피, 변형된 가족의 형태를 도입하여 일반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 줌으로써 아이들이 정서적 안정감을 회복하여 책임감 있는 온전한 인격체로 성장케 하기 위한 것으로 에스더집, 무지개집, 민들레집 등이 아파트를 임대하여 운영 중에 있고, 작년 준공된 평화관 또한 각층에 분리된 아파트 형태로 생활지도사 엄마와 4~6명의 아이들로 구성된 가족이 각각 생활하고 있다.

찾아간 날, 공동식당은 풍선으로 꾸며져 있었다. 아이들을 위한 생일잔치가 준비되어 있단다. 학교에서 공부할 시간이라 아이들의 모습은 볼 수 없었지만, 밝은 기운이 넘쳐 난다. 이곳을 거쳐 간 아이들이 후에 찾아오는 경우는 드물다고 한다. 때로 후원금을 보내오는 경우도 있으나 익명을 요구한다고 한다. 자립하여 직장 생활을 하든, 결혼하여 단란한 가정을 꾸렸든 아마도 불우했던 과거를 숨기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리라. 우리 사회에 '결손 가정'이라는 부정적 말과

이미지가 살아 있는 한, 성빈여사는 팻말도, 선배들의 방문도 없겠지만 그곳은 예수님의 사랑, 희망, 평화가 어디보다 풍성하게 넘치는 곳으로 우뚝 서있으리라.

50년 이야기

무겁고 힘들어도 Y가 짊어져야 할 일을 사양할 수도 없고 머뭇거릴 필요도 없습니다 계명여사

5·16 직후 정부는 사회 정화를 목적으로 윤락여성 방지법을 제정하였는데, 이와 함께 각 도에 윤락여성 수용소를 설치도록 하였고 전라남도도 이를 광주YWCA에 제안하였다. 대의동 회관을 신축한 빛을 막진 터라 재정적 어려움이 있었지만 62년 1월 25일 소집된 긴급이사회는 시대의 요청에 위와 같이 응대하여 만장일치로 사업을 결의하였다. 희망을 주며 갱생시킨다는 뜻으로 '계명(啓明)'이라 이름 짓고 그 해 6월 보건사회부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아, 도청에서 보조받은 19만원과 또 다른 빛을 내어 양림동 선교사촌 빈 선교관을 빌려 12월 1일 48명과 함께 개관식을 거행하였다. 대부분 17-18세의 여성들로 2년 동안 291명이 계명을 거쳐나갔는데 단순 수용시설이 아닌 선도와 계몽을 위한 예배, 한글공부 그리고 직업 교육이 6개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64년 서독 WCC 세계본부 등에서 보조를 받아 임대 사용하던 선교관을 매입, 생활관과 실습관을 겸한 건물을 준공하기까지 열의를 다하였지만, 사실 기대한 교육효과는 그다지 크지 못했다고 한다. 교육 도중 도망가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고 실제로 자립 의지를 가지고 선도된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했다고 한다. 67~8년 전남 지방의 극심한 가뭄으로 농촌을 떠나 도시로 돈 벌러 가는 여성들이 급증하고, 윤락여성이 감소하는 추세가 지속되면서, 계명여사를 가출 여성 보호 기관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 받아, 70년 노동청장으로부터 공공직업 훈련소로 인가를 받았고 이후 계명여사는 윤락여성만이 아닌 일반여성을 위한 직업 교육의 장 특히 양재, 미용, 기계자수 그리고 편물공예 등 4개 직종의 훈련 중심지가 되었다.

1983년 계명여사는 또 다시 '광주계명여성복지관'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사

실 계명여사가 가진 '윤락여성 수용시설'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한 의도도 있었다. 계명여사가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직업 교육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명여사출신'은 곧 윤락여성이라고 보는 사회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복지관으로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 이곳은 다양한 복지사업 및 특히 가정빈곤, 사별, 이혼, 별거, 산업재해 그리고 교통사고 등 어려운 환경에 처한 여성들을 위한 교육상담, 취업알선, 사회지도 기관으로 다양한 활동의 본거지가 되었다. 하지만 복지관은 계명여사가 보사부의 윤락행위방지법에 의거 수용시설로 인가를 받은 시설이라는 것 때문에 이용만 원하는 여성들에게 개방할 수 없는 한계, 열악한 재정 등의 문제로 복지사업 확대를 위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한 고민이 남아 있었다.

한편 광주YWCA에는 1966년 가정법률상담소를 설치하였는데, 때로는 한국 가정법률사무소의 광주YWCA 지부의 형태로, 때로는 광주YWCA 상임부서의 형태로 존재하며 결혼 관계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갈등 상황에 대해 여성들이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담 내지 강좌 그리고 무료 결혼식 등의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이 두 기관은 사실 그 대상이 성차별의 편견, 희생의 강요 속에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이 땅의 여성들이며, 그 여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의 질서의 회복을 경험하고 당당하게 주권적 인간으로 스스로 서게 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을 지녔다는 점에서 동전의 양면과 같은 활동기관이라 할 수 있었다. 1990년대 들어 가정 폭력이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여성과 아동의 몫이 되는 사회 현실에 대해 1998년 7월 가정폭력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이 두 기관은 큰 전환점을 맞이하는데 바로 가정폭력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로의 전환이었다. 복지관에 있던 보호시설은 가정폭력으로 피해 당한 여성과 아동들의 보호시설로 전환이 가능했고, 상담소의 상담과 교육의 경험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교육과 치료를 담당하기에 충분했다.

희년의 축복이랄까! 계명여사 설립 50년이 되는 이 해, 계명여사는 또 한 번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양림동 빨간 벽돌 건물 걸모습은 여전하다. 윤락여성이 수용되어 있던 곳,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폭력으로부터의 임시 대피소로 사용되

던 곳이 이젠 가족이 평안을 경험하는 '즐거운 집'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대개의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여성과 그 자녀들이다. 여성 보호시설로 남자 아이를 동반할 수 없게 한 규정이 또 다른 어려움을 발생시키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가족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원룸 형태로 개조하는 작은 사업이지만, 이곳은 실로 폭력의 고통을 잊고 행복한 삶을 함께 꿈꾸며 평안 가운데 진정한 가족의 회복을 경험하는 터가 되기에 충분하리라.

사람이 꿈이다 조직력과 리더십의 보고 두레산악회

광주YWCA에는 남다른 여성들이 있다. 70세에 가까운 여성이 빙벽훈련을 받는 장면을 상상해 보라! 1985년 유동 회관이 신축되고 회원활동이 활성화 되면서 광주YWCA에는 취미클럽활동이 붐을 이루기 시작하는데 그 중 체육부 산하 등산클럽이 10여명을 중심으로 무등산을 등산하면서 결성되었다. 이후 몇 번의 등산 경험은 본격적인 산행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였고, 1986년 1월 창립 총회를 통해 6월, 23명의 회원으로 성인클럽으로 정식 인준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태어난 두레산악회는 전남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여성만으로 이루어진 산악 회였다.

26년의 세월 동안 많은 때는 900명의 회원이 된 적도 있었고, 국내 유명산들을 거쳐 92년부터는 매년 해외 원정을 다녔는데, 1996년 창립 10주년 때는 여성 등반대로서는 처음으로 히말리야 안나푸르나 트레킹과 유럽 알프스를 등반하고 2006년 창립 20주년 때는 199명이 함께 금강산 세존봉을 오르고, 또 산악회의 정예원으로 꾸려진 16명의 회원들이 에베레스트 하이라이트 트레킹을 등반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대통령배 전국등산대회는 필기시험, 응급처치, 장비점검, O.L독도법, 체력테스트 등의 어려운 관문임에도 불구하고 7번 참가에 2번의 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루어내기도 했다.

그렇다고 두레산악회가 단순히 등반클럽인 것만은 아니다. 성인클럽의 일

환으로 시작했지만, 자체 회칙이 만들어졌고 각 모임에서는 항상 YWCA 정신을 철저히 체화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광주YWCA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본받는 각종 봉사활동, 시민사회를 향한 캠페인 등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하계수련회를 통한 신앙훈련, 등반계획서와 보고서 그리고 평가회 등에서 나타난 치밀함은 두레산악회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다.

어찌 보면 두레산악회는 광주YWCA 회원의 보고라 할 수 있다. 서동신 4대 총대장을 비롯하여 다수의 회원들이 광주YWCA의 이사, 위원들로 활약하면서 광주YWCA가 회원운동체로 생동력을 갖는데 두레산악회가 큰 힘이 되었다.

90년의 부침을 견뎌온 광주YWCA를 어찌 하루 만나질의 만남으로 다 알 수 있을까마는 뜻을 가진 여성들,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기꺼이 가슴과 손에 품었던 사랑, 그리고 함께 나아가는 기쁨을 누렸던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YWCA의 생명력은 '무엇'이 아니라, '누가', '어떻게'에 있다는 걸 새삼 깨닫고 또한 YWCA의 현재를 걸어가는 도반으로서 과연 지금 '우리는?' 이라는 질문을 떠올린다. 다음은 광주YWCA 70주년 기념에서 함께 드린 공동기도문이다. 다시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이제 올 광주YWCA 100년의 이야기를 상상해 본다. *

여성들이 앞장서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리나이다.

“우리 믿는 여성들이 복음을 외쳐

무지한 여성들을 깨우치게 하옵소서.

YWCA를 이 광주에 뿌리내리게 하시고

나라의 주권을 찾는데 여성들이 앞장서게 하옵소서.”

70년 전 철혹 같은 민족의 암흑기에

몇 명 여성들의 이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시고

인구 2만의 작은 고을 광주에
광주YWCA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리나이다.

시대 시대마다 지도자를 세우셔서
긴 세월동안 역사의 질곡을 매게 하시고
때로는 빛과 소금으로
때로는 예언자의 외침으로
그 사명을 다하게 하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리나이다.

오, 우리의 미래이신 하나님!
70년 역사의 큰 뿌리 위에
이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게 하소서.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로
창조질서를 회복하는 생명 공동체로
평화와 정의를 위한 밀알 공동체로
우리는 더욱 힘차게 세워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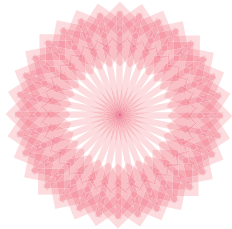
1992년 광주YWCA 창립 70주년 기념예배 공동기도

글을 쓴 김기동은 이화여대 학부와 대학원에서 기독교학을 공부했다. 독일 하
이델베르크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성공회대, 이화여대, 동산성서신학
원에서 강의했고 새길기독사회문화원과 새길교회에서 신학연구원을 역임했다.
현 대구 삼덕교회 교육전도사로 활동중이며, 한국YWCA 연합회 청년운동팀 위
원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시고
(창2:15)
서로 어울어져 기쁨과 아름다움을 즐겼던
하나님의 땅이 어디 에덴만이던가!
우리가 서 있는 이 곳 또한 하나님의 땅인걸!
여성이 나선다.
바로 이 곳이 하나님의 땅,
함께 사는 세상이 되길.

YWCA 100년을 향하여



장윤재.
이화여대 기독교학부 교수

크리스천들이 종종 잊고 사는 것이 하나 있다. 기독교는 본래 순례자의 종교, 나그네의 종교라는 사실이다. 아브라함이 나그네였고, 모세가 나그네였으며, 엘리야도 나그네였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나그네의 길에서 태어나셨다. 이후 그분은 고향 나사렛을 떠나 사방으로 유랑하시며 소수의 제자들을 데리고 복음을 전하시는 짙막한 인생을 사셨다. 철없이 그를 따르겠다고 나서던 어떤 젊은이에게 예수께서는 자신이 세상에서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길손임을 일러주셨던 것이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다. 회심한 바울은 일생동안 떠돌이로 살았다. 시리아로, 소아시아로, 그리스로, 그리고 로마로 행려의 길을 더듬어 다니다, 당시의 ‘땅 끝’ 스페인에 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꿈을 끝내 이루지 못한 채 로마의 한 거리에서 쓸쓸히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청교도 시인 존 번연(John Bunyan)이 『천로역정』에서 크리스천의 생애를 행려자로, 나그네로, 순례자로, 그리고 이민자로 표현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인지 모른다.

그런데 우리가 더욱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본래 ‘나그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의 신이 아니었다. 야훼 하나님은 언제나 유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한 발 앞서서 산으로, 들로 옮겨 다니시던 나그네의 신이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난 후에 두고두고

겪은 큰 시련이 무엇이었나? 가나안 토착종교인 바알종교와의 대결이었다. ‘소유’를 뜻하는 ‘바알’ 신은 텃세의 신이었다. 특정 지역과 특정 주민을 지배하는 ‘터줏대감’ 신이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 하나님을 그와 같이 만들려고 했던 것은 어쩌면 자연스런 토착화 과정의 하나였는지 모른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예언자들이 분연히 일어났다. 하나님 당신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왕정을 세우려 할 때, 혹은 거창한 성전을 건축하여 거기에 당신을 ‘모시려’ 할 때에 전혀 달가워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순례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은 나그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기독교 신앙의 모범을 보여준 초대 교회 크리스천들은 스스로를 ‘거리의 사람들’이라 불렀다. 가진 것을 다 팔아 나누면서 그들은 특정한 지역이나 혈통, 계급이나 성별에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유대인이거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고백했다.^(갈 3:28)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 전체를 관통해 흐르는 한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 그것은 곧 우리의 하나님이 순례자의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길손들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이다.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살았다. 이곳은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였다. 여기서 출발한 아브라함은 정치 없이 떠돌다 팔레스타인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다. 당시 이곳은 그가 살던 문명권에서 변두리 중 변두리였다. 그런 의미에서 그의 순례길은 ‘중심부로부터 주변부로 이동’이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떠났다. 성공할지, 실패할지, 그리고 자신의 결정에 대해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할지 상관하지 않고 떠났다. 그냥 길을 떠났다. 믿음 하나만 가지고 떠났다. 그런데 성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새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아브라함의 순례로부터 하나님의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런 순례의 전통 위에 서 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다시 순례의 길을 떠나려고 한다. 믿음 하나 가지고 떠나려 한다. 그런데 오늘 날처럼 교통과 통신이 발달한 시대에 우리의 순례는 꼭 아브라함 때처럼 지리적으로 장소를 옮기는 것만을 의미할 필요는 없다. 우리의 순례는 문명의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다수자의 문화에서 소수자의 문화 속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정

의와 평화와 생명이 부인되는 삶의 현장 속으로 나아가는 것이어야 한다. “돌봄으로 정의, 나눔으로 평화”를 이루는 생명길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순례는 지리적 이동이라기보다 가치관의 이동이자 존재의 이동이다. 그리고 신비로의 여행이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겸허하고 용기 있는 응답이다.

순례길은 버리는 길

스페인에는 ‘까미노 데 산티아고(Camino de Santiago)’라는 순례길이 있다.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일컫는 곳이다. 과거에는 예루살렘과 로마에 이어 유럽의 3대 순례지로 번영했던 곳인데, 이베리아 반도 북서쪽 꼬트머리에 위치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성당’까지 가는, 수백에서 수천 킬로미터의 여러 다른 길들을 가르킨다. 보통 한국인들은 프랑스에서 출발하여 한 달 남짓 걸리는 길을 가장 많이 선호한다고 한다.

산티아고란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야고보의 라틴어 이름으로 ‘성 야고보’라는 뜻이다. 그는 당시의 ‘땅 끝’인 이베리아 반도 끝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후 서기 9세기에 접어들어 스페인의 기독교인들이 이베리아 반도 회복전쟁을 벌이던 중, 반도의 북서쪽으로 별이 떨어지는 사건이 있었는데, 놀라서 달려가 보니 거기서 야고보의 유해가 발견되어 그 위에 성당을 세웠다는 것이다. 이 성당이 바로 이 순례길의 종착지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성당’이다. 콤포스텔라란 ‘별이 떨어진 땅’이라는 뜻이다. 별이 떨어진 땅에 있는 성 야고보 성당이란 뜻이다.

이 순례길을 다녀온 분의 이야기를 감동 깊게 들은 적이 있다. 언젠가 한 번은 꼭 다녀올 작정인데 순례길 곳곳에는 ‘알베르게’라고 하는, 순례자를 위한 숙소들이 있다고 한다. 거기에 가면 소박하지만 잠잘 곳도 있고, 먹을 것도 있으며, 마실 것도 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례자들은 처음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들을 잔뜩 지고 길을 걷는다고 한다. 나름대로 줄이고 줄여서 꼭 필요한 것들만 담는다고 하지만 어느새 가방은 묵직하고 무겁게 된다고 한다. 하지만 몇 개의 알베르게를 거치면서 순례자들은 하나씩 버리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다. 한 알베르게에서 다른 알베르게까지 오직 빵 두 조각과 물 한 모금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비로소 버리고 비우기 시작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서서히 우리의 인생길 역시 그렇게 버리고 비우는 길임을 깨닫는다고 한다.

순례길은 ‘창조적 크리스천’이 되기 위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창조적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순례길에서 다음의 네 가지를 떨쳐버려야 한다. 첫째로, 길들여진 습관에 대한 익숙함이다. 둘째로, 과거의 업적에 대한 도취이다. 셋째로, 이미 획득한 소유에 대한 집착이다. 그리고 넷째로, 미래에 대한 불안이다. (이주연 목사의 산마루 서신 2006년 2월 27일자 “창조적 크리스천이 되기 위하여” 중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를 과감히 버려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

나그네란 ‘새로운 변화에 열린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그네의 하나님이신 것도 바로 이 이유이다. 하나님은 옛 것에 집착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옛 일에 머물러 꾸물거리지 않으신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만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사 43:18-19) 과연 누가 이 은총에 가장 잘 응답할 수 있겠는가? 움직이는 사람, 이동하는 사람, 순례하는 사람이다. 버릴 줄 아는 사람 비울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순례는 신앙의 본질이다. 순례는 신앙 그 자체이다. 순례는 창조적 크리스천이 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그러니 조그만 터전에 안주하려는 유혹을 이겨야 한다. 힘겨워도 순례의 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순례자의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同行)해 주실 것이다.

순례길은 걷는 길

순례자 혹은 나그네는 영어로는 “pilgrim”이다. 이 말의 어원은 라틴어의 “per agrum”인데, 그 뜻은 ‘들판을 가로질러’라는 뜻이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성스런 목적을 위해 대지를 걷는 나그네의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다. 그렇다. 순례란 버스에서 내리는 것이다. 기차에서 내리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두 발로 ‘대지를 걷는 것’이다. 영혼의 나침반을 따라 내 발을 대지 위에 대고 걷는 것이다. 제38회 전국대회에 그려진 것처럼 “생명의 시작과 근거가 되는 땅”(황토색), 거기에 두 발을 딛고 하늘(파란색)을 우러러보며 생명의 길(녹색)을 걷는 것이다.

순례길은 걷는 길이다. 그 길은 속도에 집착하지 않고 천천히 걷는 길이다. 여기에는 오늘 우리 문명에 대한 심오한 비판과 대안이 숨어 있다. 우리 시대는 ‘속도(speed)’에 집착하는 시대이다. 사실 이 ‘speed’라는 말처럼 오늘 우리 문명의

병든 곳을 정확히 표현해 주는 말도 없다. 영어권에서는 각성제 종류의 마약을 ‘speed’라고 한다. 그러니까 빠른 것, 그것은 곧 현실을 잊게 해주고 찰나적인 환희를 주는 마약과 같다.

체코 출신의 세계적인 작가 밀란 쿤데라(Milan Kundera)는 그의 유명한 소설 『느림』에서 우리 시대 스피드의 의미를 이렇게 짚어낸 적이 있다.

속도는 기술혁명이 인간에게 선사한 엑스터시의 한 형태다. 오토바이 운전자와 달리, 뛰어가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육체 속에 있으며, 끊임없이 자기 발에 생긴 물집들을, 그리고 가쁜 자신의 호흡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인간이 기계에게 속도의 능력을 위임하자 모든 것이 달라졌다. 이때부터 그의 고유한 육체는 관심 밖에 놓이고 대신 그는 비신체적 속도, 순수한 속도, 속도 그 자체, 속도의 엑스터시에 몰입하게 된다.

참으로 깊이 있는 성찰이다. 쿤데라는 이어서 속도와 기억, 속도와 망각의 관계를 설명한다. 만일 우리가 길을 가다가 무언가를 생각하려고 하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을 늦춘다. 생각해 내기 위해서다. 느림은 곧 기억과 하나, 혹은 생각과 하나라는 말이다. 반면에, 길을 가다가 자신이 겪은 어떤 끔찍한 일이 떠오른다고 하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나도 모르게 발걸음을 재촉하게 된다. 빨리 그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이다. 빠름은 곧 망각과 하나라는 말이다. 주마간산(走馬看山)이라는 한자성어는 말을 타고 빨리 달리면 산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뜻이다. 빠르면 잊게 된다. 생각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스피드는 곧 망각이고, ‘생각 없음’이며, 한 시대에 대한 순종이자 굴종이다.

유대인으로서 20세기 나치의 전체주의적 폭력을 몸소 경험한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는 그런 끔찍한 폭력이 다름 아닌 인간의 ‘사유하지 않음’, ‘생각 없음’에서 나온 것임을 강력히 증언했다. 악명 높았던 전범 아이히만(A. Eichmann)의 재판 과정을 추적하여 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그녀는 ‘악의 평범성(banality of evil)’을 이야기한다. 아이히만은 원래 악마적 존재로 태어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생각 없이’ 히틀러를 따르면서 그는 반인륜적 범죄의 하수인이 되었던 것이다. 우리 역시 ‘생각하기’를 멈춘다면 불행한 역사의 오명을 남길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 시대에 느림은 곧 ‘생각하기’이고 ‘성찰하기’이며, 이 시대를 넘어서려는

‘초월하기’이다. 그래서 느림은 우리 시대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문제제기이고 새 문명에 대한 멋진 상상의 시작이다. 순례는 대지를 천천히 걷는 것이다. 그것은 스피드의 찰나적 환희를 탐닉하는 이 시대를 치유하는 가장 깊은 영적인 길이다.

우리의 인생길은 ‘도로’가 아니라 ‘길’에 비유할 수 있다. 고속으로 달리는 도로가 아니라 숲속에 난 오솔길이다. 도로는 질주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특히 고속도로는 어느 한 지점에서 다른 한 지점으로의 이동만을 위해 만들어졌다. 거기에는 시작과 끝만이 존재할 따름일 뿐 과정은 생략되어 있다. 거기에는 오직 질주만이 있고, 쫓고 쫓기는 추격전만이 있을 뿐이다. 뒷차에 쫓기고, 옆차에 쫓기고,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쫓긴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길은 오솔길과 같다. 그 길에는 아름다운 꽃이 주변에 피어있기도 하고, 진흙탕 길도 있으며, 힘들게 오르다가 쉬이 내려갈 수도 있는 길이 있다. 그 길을 천천히 걸을 때 그 순례가 나를 치유하고 이 시대를 치유할 것이다.

지구별로의 순례길

또한 우리의 순례길을 지구별로의 순례길이라고 말하고 싶다. 고도의 물질만능주의 시대에 평생을 가난하게 살면서 순수한 시를 읊었던 천상병 시인은 ‘귀천(歸天)’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한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외 달으면 스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평생 자유인으로 살았던 시인에게 인생이란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이었다. 그것은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뛰노는, 멋진 소풍과 같은 것이었다.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고 싶은, 너무도 소중하고 가슴 벅찬 것이었다. 그의 시는 결코 도피적이지 않다. 그의 시는 결코 저 세상만 바라보고 있지 않다. ‘귀천’이라는 그의 시에서 그는 역설적으로 봄나들이 소풍 같은 우리의 짧은 삶을 보다 깊이, 그리고 아름답게 긍정하고 있다.

천상병 시인의 시를 생태적인 관점으로 확장하여, 우리의 삶이란 ‘지구라는 예쁜 초록별에 보내진 순례’와 같다고 말하고 싶다. 우리는 창조주께서 사랑으로 지으신 온 우주, 곧 ‘하나님의 집(oikos)’에 살고 있다. 이 광활한 하나님의 집 안에서 우리는 아주 작고 푸른 지구별로 보내심 받았다. 여기서 생명을 일구고 지구를 돌보며 사랑하며 살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이 말은 우리의 순례가 결코 이 세상 밖으로, 이 우주 밖으로, 혹은 이 역사 뒤로 숨는 도피가 아니라는 말 씀이다.

발터 라우센부쉬(Walter Rauschenbusch)라는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우주라는 놀라운 집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광대함과 풍요로움, 그 위에 넘치는 생명의 풍성함과 우리를 그 일부 되게 하심으로 인해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공창을 이루는 하늘과 복된 바람으로, 흘러가는 구름과 높이 솟은 별자리들로 인해 당신을 찬미합니다. 소금기 (가득한) 바다와 시냇물, 영구히 흐르는 구름과 나무와 우리 발 밑에 펼쳐진 풀들로 인해 당신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감각을 주셔서 아침의 장엄함을 보게 하시고, 기쁨 가득한 사랑의 노래를 듣게 하시며, 봄날이 숨 쉬는 향기를 맡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간구합니다. 이 모든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향해 활짝 열린 마음을 우리에게 주소서. 그리고 근심에 빠지거나 정욕으로 눈이 멀어, 길가의 가시나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타오르는데도 보지 못하고 무심히 지나치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기서 라우센부쉬는 길가의 가시나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타오른다고 노래한다. 참으로 놀라운 영성의 소유자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 우주 밖에 따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수 지으신 만물 안에 깃들여 환히 빛나고 있음을 그는 노래한다.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는 바로 우리의 지구에 대한 이런 성례전적 감수성, 생태학적 감수성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지금 우리는 우리의 고향별에서 길을 잃었다 할 수 있다. 지금 인류는 기후 변화로 인한 총체적 생명의 위기 앞에 서 있다. 기후변화를 대중이 피부로 느끼기 시작하면 이미 늦은 것이라는 과학자들의 경고가 사실이 아니길 난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다. 기나긴 지구의 생명의 역사 안에서 어쩌면 우리에게 지금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여섯 번째 대멸종의 시기가 막 시작했는지 모른다. 지금 인류는 동과 서, 북과 남을 떠나 ‘정말 우리가 이 지구상에 더 존재할 수 있는가?’라는 공통의 질문 앞에 서 있다. 아무도 이 ‘절박한 생명의 위기’라는 시대적 상황을 피해갈 길은 없다. 신학적으로 이 위기는 ‘하나님의 집(oikos)’의 위기다. 지금 하나님이 지으신 집, 즉 우리와 다른 모든 생명체의 삶의 공간이 우리 인간의 탐욕으로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사다리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 하나님을 뵈려고 해서 는 안 되겠다. 거꾸로 그 사다리를 타고 내려와 이 세상 만물 안에 빛나는, “만유 안에 계시는”(골 3:11, 고전 15:28), 그래서 “우리의 숨결보다 우리에게 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뵈러, 지구라는 예쁜 별로 소풍을 떠나야 한다.

우리의 근대 역사는 ‘시간’에 의해 ‘공간’이 정복당한 역사라고 말할 수 있다. 근대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공간’ 안에 살았다. 하지만 근대 문명은 ‘시간’에 집착했다. 진보와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선진과 후진을 구분하기 시작했고 진보와 발전에 대한 집착이 오늘날 경제와 생태와 평화의 위기를 낳았다. 무한한 성장을 추구하는 이 문명이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은 것임이 드러났다. 이제는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할 때다. 새로운 생명의 체제, 새로운 생명의 어울림을 근원적으로 다시 상상할 때다. 그 새로운 사유의 시작은 바로 대지에 발을 딛고 초록 지구별을 순례하는 나그네들에게서 나올 수 있다. 우리의 순례길은 곧 지구를 살리는 생명의 길이 될 것이다.

순례길은 경주길

순례길은 걷는 길이다. 지구의 대지 위에 두 발을 딛고 천천히 걸으며 우리의 삶과 역사를 근원적으로 성찰하는 새 생명의 길이다. 그런데 이 길은 또한 경쟁의 길이다. 그러나 이 세상의 경쟁의 원리와 전혀 다른 새로운 경쟁의 길이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 떼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 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달음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우

리 신앙의 순례길을 달음질, 혹은 경주에 비유하고 있다. 인생의 순례길은 아무도 없는 산책로를 홀로 걷는 길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구름 떼와 같은 수많은 증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여럿이 함께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 달음박질하는 경주에 비유할 수 있다.

한 때 “부자 되세요”라는 말이 인사말처럼 유행한 적이 있다. 이럴 때 미국에서 목회하는 엄대용 목사님이라는 분이 한 칼럼에서 만약 당신이 다음의 10가지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어야 진정한 부자라고 강조한 적이 있다. 다음의 질문에 몇 개나 예라고 답할 수 있는지 손꼽아 보기 바란다. 8개 이상이 예이면 거부이고, 4~7개면 중산층이며, 3개 이하면 가난한 빈곤층이다.

- ① 친구의 일과 사업이 성공적일 때 마음이 흐뭇하고, 나보다 예쁜 친구의 용모에 대해 샘이 안 나면 그는 부자이다.
- ② 남을 위해 돈을 쓸 때 주저되거나 아까운 생각이 안 나면 그가 부자이다.
- ③ 아들이나 딸들이 보통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면 그는 부자이다.
- ④ 식사 기도를 드릴 때 끼니마다 진심으로 그 음식에 대해 감사한 마음이 든다면 그가 부자이다.
- ⑤ 자연의 아름다움이 눈 속에 들어오고 새의 노래 소리가 스피커를 댄 것처럼 크게 들리면 그가 부자이다.
- ⑥ ‘모자라다, 더 있어야 한다’는 생각보다 ‘이만한 것도 얼마나 감사한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가 부자이다.
- ⑦ 남을 비판하는 횡수보다 축복하는 횡수가 더 많으면 그는 부자이다.
- ⑧ 현재나 과거를 후회하는 생각보다 그 마음이 내일이라는 미래의 집에 살고 있으면 그가 부자이다.
- ⑨ 가장 바쁠 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으면 그가 부자이다.
- ⑩ 죽음에 대해 자신이 있으면 그가 부자이다.

우리의 순례길은 바로 이런 부자가 되기 위한 경주길이다. 이런 멋진 경쟁, 이기면 이길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아름다워지는 이런 사랑의 경쟁길이 우리의 순례길이 되어야 한다.

순례길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하지만 우리의 순례길을 언제나 평탄한 길이 결코 아닐 것이다. 종종 우리는 우리의 순례길에서 험한 눈보라와 시련을 만날 수 있다.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시계 제로의 위기상황도 만날 수 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떤 사람이 알프스를 등반하다 길을 잃었다.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눈보라

속에서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무조건 한 쪽 방향으로만 똑바로 가자. 그러면 구조될 수 있을 거야.’ 현명한 판단이었다. 그는 하루 12시간씩이나 굶주림과 추위와 싸우며 한 쪽으로만 한 쪽으로만 나아갔다. 그러기를 무려 13일, 그는 극적으로 구조되었다. 그런데 병원에서 구조대원과 이야기를 나누다 그는 매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신은 분명 한 쪽 방향으로 계속 걸어 구출될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는 길을 잃는 지점을 중심으로 불과 6km 안에서만 뱅뱅 맴돌았던 것이다. 왜 그랬을까.

한번 눈을 가리고 앞으로 걷는 실험을 해보라. 사람은 눈을 가리면 똑바로 걷지 못한다. 20미터를 걸으면 약 4미터의 간격이 생기고, 100미터를 가게 되면 결국 원을 그리며 한 바퀴 빙 돌게 된다. 이런 현상을 ‘윤형방향(circle wandering)’이라고 한다. 그래서 앞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똑바로 걷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비결이 있다. 첫째는 과감한 발걸음으로 성큼성큼 걷는 것이다. 똑바로 가겠다고 조심조심 걷다가는 오히려 더 비뚤어지게 된다. 둘째는 약 30보 정도를 힘차게 걸 어간 다음 잠시 멈추었다가 새 출발의 기분으로 또 다시 30보를 걷는 것이다. 이 말은 소신을 가지고 과감하게 전진하되 종종 새 출발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순례의 길에서 과감하게 성큼성큼 앞으로 나아가자. 그러나 30보쯤 가서 잠시 멈추어 서자. 거기서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 성큼성큼 앞으로 나아가자. 그리고 다시 멈추어 하나님께 기도하자.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것이 똑바로 나아가는 방법이다.

순례길에서 유혹을 이기는 법

우리의 순례길에는 험한 눈보라가 닥칠 수도 있지만 휘방자가 나타날 수도 있다. 유혹자가 나타날 수도 있다. 순례의 길을 그만 멈추고 편히 쉬라는 달콤한 유혹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스의 서사시인 호모(Homer)가 지은 『오디세이(Odyssey)』라는 작품이 있다. 이 작품은 오디세우스(Odysseus)라는 사람의 오랜 방랑과 모험을 그린 작품인데, 서양에서는 지금도 널리 사랑받는 고전 중의 고전이다. 이 작품을 읽다보면 트로이 전쟁을 마치고 고향을 향해 배를 띄우는 오디세우스에게 키르케(Circe)라는 이름의 마녀가 ‘사이렌(Siren)’이라는 바다요정을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대목이 나온다.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사이렌은 너무도 달콤한 노래로 뱃사람들을 유혹

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바다의 요정이고, 이 사이렌의 모습은 ‘반인반조(半人半鳥), 즉 반은 사람이고 반은 새인 모습이다. 길을 걸을 때마다 마주치게 되는 스타벅스 커피숍의 로고를 한번 유심히 보길 바란다. 거기 그려져 있는, 긴 머리의 여자가 바로 그 바다의 요정 사이렌이다. 실제로 스타벅스의 창업자는 ‘사람들이 내 커피숍 앞을 지나갈 때 그 누구도 내 집 커피향기의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미에서 사이렌을 로고로 정했다고 한다. 키르케는 오디세우스에게 이렇게 경고한다.

당신은 사이렌이 사는 곳을 지나게 될 걸세. 유혹하는 존재지. 조심성이 없는 사람들은 가까이 다가갔다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만다네. 왜냐하면 사이렌은 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들판에 누워 달콤한 노래로 뱃사람들을 유혹하거든. 하지만 그의 주위에는 회생체물이 된 사람들의 시신으로 가득하도오. 그러니까 당신은 이 사이렌을 그냥 지나쳐야 해! 당신의 선원들이 사이렌의 노래를 듣지 못하도록 아예 왁스로 귀를 틀어막아야 해!

하지만 이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디세우스의 선원들은 사이렌이 부르는 달콤한 노래에 빠져 하나씩 하나씩 바다로 떨어진다. 오디세우스마저도 그 달콤한 유혹에 혼이 나가 거의 죽음에 이르렀다가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게 된다.

그런데 결국 이 무서운 사이렌을 물리친 사람은 오르페우스(Orpheus)였다. 동물이나 새, 그리고 산천초목까지도 음악으로 매혹시켰다는 바로 그 하프의 명인 오르페우스이다. 흥미로운 것은 오르페우스가 사이렌을 이긴 방법이다. 그가 어떻게 사이렌을 물리쳤을까. 오르페우스는 무력이나 강제로가 아니라 노래로 사이렌을 물리친다. 사이렌이 부르는 달콤한 유혹의 노래보다 ‘더 아름다운 노래’로 사이렌을 물리친다.

오르페우스가 배를 타고 항해를 시작한다. 갑자기 어디선가 너무나 달콤한 노래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다. 사이렌의 노래다. 그렇게 주의를 쫓긴만 그의 선원들이 차례로 이 노래에 넋이 나가 바다에 떨어진다. 그 때 오르페우스는 자신의 하프 앞으로 달려간다. 그리고 하프를 켜며 노래를 부른다. 사이렌의 노래보다 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달콤한 죽음의 노래보다 더 아름다운 생명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그러자 선원들이 하나씩 둘씩 그의 노래에 귀 기울이고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한다. 결국 그들이 탄 배는 죽음의 앞바다를 무사히 빠져나가게 된다. 그러자 처음으로 싸움에서 진 사이렌은 돌연히 힘을 잃

고 그 자리에서 돌덩이로 변하고 만다. 오르페우스가 이긴 것이다. 노래로 노래를 이긴 것이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달콤한 노래보다 더 아름다운 생명의 노래로 사이렌을 이긴 것이다.

YWCA의 자료를 살펴보다가 감동 받은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YWCA가 이미 ‘생명의 노래’를 즐겨 부르는 단체라는 사실이다. YWCA가 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다. “날마다 낮은 데로 임하며, 서로 눈물을 닦아주며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Y 운동체로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몽클한 감동이 전해져 왔다. ‘아, YWCA는 이미 생명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구나’, ‘악을 이기는 것이 악이 아니라 선임을 알고 있었구나’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는 것은 무력이 아니라 아름다운 생명의 노래라는 것을 알고 있었구나!’

우리의 순례길은 바다 위의 항해로도 비유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항해길 앞에는 반드시 사이렌의 노래와 같이, 달콤하지만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유혹이 존재한다. 순례를 그만 멈추고 이제 쉬라는 유혹이 늘 따라올 것이다. 하지만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억지로 우리의 귀를 틀어막아도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그 유혹은 우리 내면을 통해 공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순례길에서 우리가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노래를 불러야 한다. 유혹자의 노래보다 더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야 한다. 한 찬송가의 가사처럼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야 한다. (구찬송가 469장) 찬송이 내 앞에서 끊이지 않아야 하며 유혹하는 자가 부르는 달콤한 노래보다 더 아름다운 생명의 노래를 불러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할 것이 하나 있다. 사이렌이라는 요정은 오늘날 더 이상 ‘반인반조’의 기괴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교묘한 사이렌은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특히 ‘돈’의 모습으로 다가온다.

화폐란 본래 금화나 은화와 같이 그것 자체에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지폐의 발명 이후 오늘날 우리의 돈은 더 이상 그 자체로 물질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 이제 완전히 추상적인 수치요 가치의 상징이 되어버렸다. 금괴는 마음대로 양을 증가시킬 수 없지만 지폐는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 그래도 과거 금본위제(金本位制) 시대에 발행된 지폐는 물질적 가치를 가진 금과의 관련에서 보증되었다. 하지만 1971년 닉슨독트린으로 국제통화 달리는 금과의 연계가 단절되었고, 이후 닷을 잃어버린 달러가 온 세계를 표류하면서, 각국의 통화와 달러가 상품으로 거래되는 ‘머니게임’의 시대가 열렸다. 소위 ‘금융자본주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제 우리는 가게에서 빵을 사기 위한 '구입대금'으로서의 돈과 주식거래소에서 취급하는 '자본'으로서의 돈이 사실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이질적인 돈임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전자와 달리 후자는 증가하고 성장한다. 특히 선진국의 자본은 멈출 줄 모르고 계속 증가하면서 세계 인구의 대다수를 가난하게 만들고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자본의 성장은 어디선가 누군가의 희생을 요구하는 메커니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 화폐를 실제의 노동이나 물적 가치의 등가물로 되돌려놓는 일은 인류가 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앞으로 생존할 수 있느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가 되었다.

실로 오늘날 자본으로서의 돈은 신의 반열에 올랐다. 오래된 문화도시 중심에 신전이나 사원 혹은 교회가 있듯이, 오늘날 대도시의 중심에는 은행이라는 건물들이 우뚝 솟아 있다. 여기서 만들어지는 돈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돌을 빵으로 변화시키기도 하고, 빵을 돌로 변화시키기도 한다. 이렇게 종종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는 돈은 불멸이라는 속성까지 가지고 있다. 실제의 물건이나 재화는 시간이 지나면 소멸하지만 자본으로서의 돈은 소멸되지도 않고 늙지도 않는다.

사실 우리는 - 그리고 심지어 대부분의 경제학자들도 - 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잘 모른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돈은 정부의 조폐장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은행이라고 하는 '사기업'에 의해 매일 막대한 규모로 만들어지고 있다. (폴 그리닝, "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녹색평론」113호(2010년 7-8월호)) 우리의 잘못된 상식과 달리, 은행은 자신이 번 돈이나 예금자가 맡긴 돈을 대출해 주지 않는다. 은행은 돈 그 자체가 아니라 자신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돈을 준다는 약속을 할 뿐이다. 즉 은행은 돈을 빌리는 사람의 상황 서약을 근거로 대출을 하면서 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은행이 대출을 할 때마다 전혀 새로운 돈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소위 '통화승수(通貨乘數)'라 알려진 메커니즘을 통해 은행은 코도 안 풀고 돈을 만들어 낸다.

정부의 조폐장에서 끊임없이 돈을 찍어내는 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정부가 만드는 돈은 대개 총통화의 5% 이하를 차지할 뿐이다. 이 말은 오늘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돈의 95% 이상은 누군가가 은행에 부채를 짐으로써 만들어진 돈이라는 말이다. 그 결과 오늘날 정부, 기업, 소기업, 가정에 이르기까지 누구 하나 엄청난 빚을 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없다. 그 원인은 은행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채를 발행함으로써 돈을 만들어내기 때

문이다. 그리고 부채는 잠정적으로 무한정한 것이기 때문에, 돈의 공급도 무한정이다.

문제는 이렇게 손쉽게 '무한정' 만들어지는 돈이 '무한정'의 생산과 거래를 구조적으로 강제한다는 점이다. 화폐공급이 증가하는 데 실제 세계에서 생산과 거래량이 같은 규모로 성장하지 않는다면 돈의 가치는 갈수록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실제 경제가 영구적으로 성장해야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의 자원과 에너지 사용이 영구적으로 가속화되어야 한다. 자전거가 쓰러지지 않으려면 오직 달리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서라도 매년 갈수록 더 많은 자원이 쓰레기로 변해야 하고, 더 많은 사람이 날마다 채무자로 탄생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지구 생태계에 어떤 변화를 불러왔는지 러시아의 바이칼 호수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다. 바이칼 호수의 사람들은 그 지방에 지폐가 도입되기 전에 나름 '좋은 삶(good life)'을 살고 있었다. 매일 자신들의 식탁에 물고기를 올리고 남은 일부를 팔 수 있는 만큼의 양을 잡아 생활했다. 부유하진 않았지만 넉넉했다. 하지만 어느 날 지폐가 도입되면서 은행의 대부가 이루어졌다. 어부들은 대부금으로 큰 배를 샀고 효율 높은 어로기술을 채용했다. 냉동 창고가 세워지고, 잡은 물고기는 더 멀리까지 운반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모든 어부들이 경쟁적으로 큰 배를 사고, 더 효율 높은 어로기술을 사용하여 물고기를 더 빨리, 더 많이 잡게 되었다. 대부금 이자에 원금을 갚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오늘날 바이칼 호수에는 물고기의 씨가 말라버렸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 하지만 오늘날의 화폐경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파괴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로 오늘날 우리 모두가 생활을 위해 사용하는 물건과 서비스에 은행 돈이 가하는 압력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오늘날 산업국가에서 물가의 약 30%는 이자분이다. 이 압력 때문에 경제는 계속적인 성장을 강요당한다. 물론 한정된 경제규모 안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착취함으로써 은행 빚을 갚을 수 있다. 하지만 일정한 한도를 넘으면 흔히 다음 세대의 몫까지 미리 끌어당겨 쓸 수밖에 없게 된다. 이것이 바로 환경오염과 환경파괴를 수반하는 경제개발이다. 이러한 경제개발은 다른 말로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이다. 하지만 이것도 저것도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으면 최후의 수단이 전쟁이다. 근대 이후 거의 모든 전쟁은 근본적으로 바로 이 금융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21세기 새로운 생명사회를 원한다면 우리는 오늘날 생명 파괴의 구조적 뿌리를 치유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을 물어야 한다. 계속 가속적인 성장을 하지 않으면 기능할 수 없는 현재의 화폐시스템 대신에 어떤 지속가능한 대안적 경제를 상상하고 실천할 수 있는가? 바로 이 질문이 생명의 문제의 요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평화의 문제의 요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막연히 생명과 평화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일찍이 톨스토이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한 바 있다. “화폐는 새로운 형태의 노예제다. 화폐가 오래된 노예제와 다른 점은 그것이 비인격적이라는 사실, 즉 주인과 노예 사이에 아무런 인간적 관계가 없다는 사실에 있을 뿐이다.”

21세기 새로운 생명사회는 우리가 화폐 문제를 근원적으로 성찰하고 ‘화폐주권’을 회복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사회이다. 우리는 화폐를 교환수단으로서의 본연의 기능을 떠나 축적수단으로 삼을 때 온갖 비극과 재난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수께서는 일찍이 그것을 “너희가 하나님과 맘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말씀으로 가르치셨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빛)진 자를 용서[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빛)을 용서[탕감]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라 가르치신 ‘주님의 기도’가 절실한 때이다.

사이렌이 부르는 죽음의 노래를 물리치려면 오르페우스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사이렌보다 더 아름다운 생명의 노래를 부르면 된다. 탐욕과 소비와 황금만능주의로 가득찬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가난의 영성과 청빈의 영성이다. 가진 것 없어도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보오니”(시편 8편)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영성이다. 이런 영성의 노래를 부르자. 그것이 우리가 불러야 할 생명의 노래이다. 돈의 모습으로 다가온 사이렌의 노래가 여러분의 귓속을 깊이 파고들 때마다 이 노래를 불러야 한다. 입을 크게 열고 부르자. 오르페우스처럼 하프를 타며 부르든, 다윗처럼 깃털 장단에 맞춰 부르든, 사이렌의 노래보다 더 크게, 더 아름답게 부르자. 사이렌이 패하여 돌덩이가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저 새 하늘과 새 땅까지 무사히 향해갈 것이다.

“돌봄으로 정의를, 나눔으로 평화를”

2011년 제 38회 YWCA 전국대회 부제가 “돌봄으로 정의, 나눔으로 평화”이었다. 여기서 나는 ‘돌봄’을 ‘정의’와 연결시키고 있는 YWCA의 통찰력에 많이 놀랐

다. 그리고 그것이 성서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정의’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난 40년 간 신자유주의가 휩쓸고 간 세계 곳곳에서 지금 정의를 향한 울부짓음이 들려온다. 그 외침은 하나님을 향한 외침이다. 그 외침은 하나님마저 떠나버린 것 같은 밑바닥 상황에서 하늘을 향해 울부짓는 절규다. 독일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Jürgen Moltmann)은 이런 절규로 가득 찬 이 세계가 정의롭지 않은 체제이며 그 안에 사는 우리 역시 죄에 연루되어 있음을 고발한다.

우리는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적 구조 속에 살고 있다. 우리는 인간을 승자와 패자로 양분하는 경쟁 사회 속에서 일하고 있다. 우리는 강자와 약자를 분리해 놓은 정치적 체제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는 이 땅의 자연을 체계적으로 파괴하고 동식물의 다양한 종을 매년 감소시키고 있는 인간 사회 속에서 먹고 마시며 살고 있다. 우리는 미래 세대를 회생시켜 가면서 우리의 현재를 즐기고 있으며,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의 잘못된 때문에 비싼 대가를 치루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다. 이러한 체제는 정의롭지 않은 체제이며, 그 체제 안에서 먹고 일하고 사는 우리를 죄인으로 만든다. ... 이 체제 안에서는 우리가 행하는 악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지 않는 선이 우리를 고발한다. (위르겐 몰트만, 광미숙 옮김, “하나님의 이름은 정의이다,” 『세계 속에 있는 하나님(동연, 2009)』을 참조함)

우리도 연루된 이런 정의롭지 않은 체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정의의 울부짓음이 들려온다. ‘하나님의 정의’를 호소하는 갈급한 절규가 들려온다.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정의인가?

성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정의는 단순히 선과 악을 판별하여 선엔 상을 주고 악엔 벌을 주는 정의가 아니다. 성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정의는 ‘공의를 바로 세우고 굽을 것을 곧게 하는 정의,’ 곧 ‘치유하고 구원하는 정의’이다. 구약성서에서 하나님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폭력의 희생자가 된 사람들을 위해 공의를 세운다. 그 하나님은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공의를 세우시고”(시 146:7, 103:6), “과부와 고아의 권리를 변호하시며”(신 10:18, 시 82:3, 사 1:17), 이방인의 권리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의 권리를 되찾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자비의 또 다른 이름이다. 그가 정의를 세우시는 것은 그가 자비하시기 때문이다. 그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것은 그가 정의로우시기 때문이다. 이런 하나님을 말라기 예언자는 ‘정의의 태양’이라고 불렀다(말 4:20).



이스라엘이 기다린 언약의 메시아는 “가난한 사람들을 정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에게 바른 판결을 내리시는”(사 11:4) 분이시다. 그 분은 “못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사 42:1)이며, “세상을 정의로 심판하실”(시 96:13) 분이시다. 실로 예수님의 시선은 특히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사회에서 배제된 사람에 주목하셨고, 그는 우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와 자신이 하나라고 선언하셨다. 그리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의해 멸시 당하던 사람, 공동체 바깥으로 내몰린 사람, ‘죄인’으로 낙인이 찍혀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사람들, 특히 여성들을 “받아들여” 주시고 “돌보아” 주셨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권리를 되찾아주셨다. 그것은 그들에게 영적인 치유와 사회적 회복을 의미했다. 돌봄은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의 구체적 실천이었던 것이다.

함께 가는 순례길

우리의 순례는 땅을 걷는 길이기도 하고, 바다를 건너는 항해이기도 하며, 또한 하늘을 나는 비행으로도 비유할 수 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계절마다 수 천 수 만 리 길을 비행하는 기러기를 통해 우리의 순례길에서 소중한 배움을 얻을 수 있다.

밀튼 올슨(Milton Olson)은 기러기의 이동생태를 깊이 연구한 학자다. 그는 가을 하늘 위로 V자형의 대형을 이루며 먼 길 떠나는 기러기의 비행을 통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전해준다. 첫째, 기러기들은 V자형의 형태를 유지하며 비행하는데 그 이유는 장거리를 날기 위한 에너지를 보존하기 위해서이다. 앞에 나는 선두 기러기의 날개 및 뜨는 힘, 즉 양력에 의하여 바로 뒤에 오는 기러기의 힘은 훨씬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비행하게 되면 혼자 날 때보다 무려 72%나 멀리 날 수 있다고 한다. 때문에 기러기들은 V자형의 대형에서 이탈되어 공기저항을 느끼면, 즉시 제자리로 돌아와 본래의 대오를 형성한다. 둘째로, 앞서 날던 선두 기러기가 피곤하게 되면 이 기러기는 맨 뒤로 돌아가고 대신 바로 그 뒤를 따르던 기러기가 앞으로 나아가 선두를 인도하여 흐트러짐 없이 대열을 유지한다. 참으로 놀라운 리더십의 순환이고 협동이라 생각한다. 세 번째로, 긴 거리의 비행 중에 맨 앞의 리더 기러기는 뒤따르는 기러기들이 지치지 않도록 늘 격려의 울음소리, 즉 “honk” 소리를 계속 낸다고 합니다. 어떤 조직에서 리더의 격려와 칭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대열에서 날던 기러기 중에서 한 마리가 아파서 뒤처지거나 충에 맞아 땅에 떨어지면, 반드시 두

마리가 대열에서 빠져나와 뒤처진 동료들을 도와준다는 사실이다. 낙오된 동료의 죽음을 확인하거나 혹은 소생하여 다시 날 때까지 곁을 지켜준다는 것이다. 참으로 놀랍고 감동적이다.

우리의 순례길은 기러기의 비행과 같다. 오직 하늘의 별자리와 지구의 자장을 참고삼아 수 천, 수 만 리 길을 날아가는 비행과 같다. 우리 YWCA의 순례는 기러기들의 비행을 닮으면 참 좋겠다 생각한다. 앞선 순례자들이 험한 바람을 헤쳐주어 뒤 따르는 순례자들의 길을 열어주면 좋겠다. 앞선 순례자들이 계속 “honk” “honk”, ‘아자, 아자’ 격려해 주고 칭찬해주어서 뒤 따르는 순례자들이 새 힘을 얻도록 도우면 좋겠다. 그러다 지치면 뒤 따르던 순례자들이 앞서 나가 모진 바람 헤쳐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의 머나먼 믿음의 순례길에서 설사 낙오하는 분이 생기더라도, 그 분들이 다시 소생하여 본진에 합류할 때까지 땅에 내려가 돌보고 위로하고 감싸주면 좋겠다. 그래서 한국YWCA의 순례자들은 한 분도 낙오함 없이 이 먼 순례길을 모두 성공적으로 비행하면 좋겠다 생각한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거든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가려거든 함께 가라” 순례길은 혼자 빨리 가는 길이 아니라, 모두 함께 멀리 가는 길임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제38회 YWCA 전국대회의 주제로 돌아가 보겠다. 주제가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이다. YWCA가 진심으로 깊은 신앙적 관점과 열정에서 순례의 길을 떠나고자 준비한다는 것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주제라 하겠다.

1983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요트 경기인 America's Cup이 하루 동안 연기된 적이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모든 준비는 다 완벽하게 갖추어졌다. 수 없는 리허설을 통해 돌발 상황에 대한 대비까지 다 마쳤다. 그런데 정작 요트 경기에 필요한 단 한 가지가 없었다. 무엇이었을까? 그 날 바람이 한 점도 불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의 순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아무리 많은 회의와 토론을 통해 이제 모든 준비를 다 마쳤다 하더라도, 단 한 가지,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없으면 우리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그 한 가지는 바로 이번 대회 주제 맨 앞의 그것이다. 하늘로부터 불어오는 “생명의 바람”이 바로 그 성령의 바람이다. 생명을 살리고 불의를 불사르는 그 하나님이 숨 바람이다. 그 바람이

붙어주지 않으면 제 아무리 완벽한 준비와 진용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YWCA라는 거대한 돛단배를 단 1미터도 옆으로 움직일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바람은 자유케 하시는 바람이다. 덧없는 것들에 묶여 있는 짐착의 고리를 끊어 해방하시는 바람이다. 향해할 줄 모르고 마냥 정박해 있는 배의 닻을 끊어 순례케 하시는 바람이다. 때로는 광풍으로 때로는 미풍으로, 박힌 돌처럼 움직일 줄 모르는 우리를 뿔아 일어나게 하시는 바람이다. 그런데 자유케 하심에는 목적이 있다. 성령의 바람에는 방향이 있다. 발 닿는 대로 아무 곳이나 유랑하는 바람은 성령의 바람이 아니다. 자유케 하심에는 목적이 있고 순례케 하심에는 목적이 있다.

누가복음 4장 17-18절에 예수께서 공생애를 맨 처음 시작하실 때, 주님께서 회당에 들어가 이사야 61장을 펴셔서 당신의 임무선언(mission statement)을 낭독하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성령의 바람이 분 것이다. 예수님의 낭독이 이어진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성령의 바람은 일정한 방향으로 흐른다. 성령의 바람은 우리의 삶과 역사의 현장, 고통과 슬픔과 억압과 파괴의 현장으로 분다.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신다. 생명의 바람은 자유케 하시는 바람이나 그 바람은 우리를 주께서 가신 갈릴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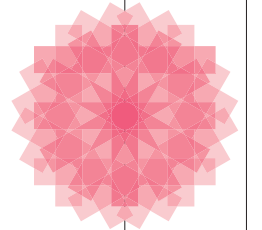
나아가며

세상이 혼탁하고 어둡다. 사람들은 대책도 없고 방법도 없다고 말한다.

한국YWCA의 지도자 여러분, 세상이 어둡지만 대책이 없다고 말하진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대책을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이다. 바로 YWCA를 만드셨기 때문이다. 혹 우리 앞에 아무 대책이 없다고 낙심하여 순례길을 주저하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 ‘대책이 없더니 무슨 말이나? 나는 틀림없이

정의로운 여행은 (Justice Tourism) 가능한가?

임영신.
이매진스 대표



2009년 1월, 1,400명이 사망하고, 4,5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한 가자지구 공습의 이유를 묻는 말에 이스라엘 사람 세라는 간명하게 대답했다. “선거 때문이죠.” 2009년, 1월말 가자 공습이 멈추자마자 그 땅을 들어간 분쟁지역 전문가 김재명 씨가 만난 하마스 대변인도 같은 답을 했다. “그들은 선거를 위해 가자를 제물로 삼고 있다.” 그리고 곧 치뤄진 선거의 결과는 그들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선명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2009년 1월 치루어진 이스라엘 총선을 통해 가장 많은 결실을 거머쥔 것은 극우정당, 베티테이 누이당이였다. 1999년 출범한 이 당은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늘리기 위해 팔레스타인 땅을 점거한 정착촌의 확산과 팔레스타인 경계에 대한 재논의, 아랍계 주민의 시민권 제한을 주장해 온 극단적 우파였다. 당의 창설자이자 대표인 아비그도르 리베르만이 이번 선거에서 내진 구호는 “충성없이 시민권도 없다”였다. 아랍계 주민들에게 충성서약과 충성도 시험을 치러 이스라엘 군에 입대시킬 것이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시민권을 박탈하겠다고 협박했다. 또 의회의 아랍계 의원들 가운데 하마스와의 접촉한 이들을 처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 1월엔 “2차 대전때 미국이 일본과 싸우던 것처럼 하마스와의 계속 싸워야 한다”고 말해 핵폭탄 사용을 시사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선거의 결과는 그들에게 시민들의 지지가 몰려 노동당을 제치고, 이스라엘 제3당이 되어 새로운 정국을 주도할 주요 계파가 되었다. 아랍계 사람이 이스라엘 군인이 된다는 것은, 팔레스타인 사람의 손으로 팔레스타인 사람의 집을 허물고, 땅을 빼앗고, 올리브를 뽑아내고, 총을 당기게 하겠다는 뜻이었다. 그런 충성을 바칠 수 없다면 시민권을 반납하게 하겠다는 그들의 정책에 시민들은 표를 얹어 주었다. (한겨레, 2월 11일 기사)

이스라엘 여행분

가자지구의 공습이 계속되는 가운데도 텔아비브로 취항하는 항공편은 단 한편도 취소되지 않았다. 이스라엘 정부는 항공사들에게 안전을 약속했고,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의 카스피 대사는 “가자지구 분쟁으로 이스라엘이 위협하다는 우려가 가중되고 있지만 한국이 안전한 것처럼 이스라엘 역시 안전한 국가”라고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안전을 강조했다.

2009년 1월, 텔아비브에 도착해 가장 먼저 확인 한 것은 그의 말처럼 가자지구 바깥의 이스라엘은 무서우리 만큼 안전하다는 사실이었다. 가자지구에서 폭격으로 수 천명이 죽거나 다치는 사이 텔아비브의 지중해 연안 바닷가에서는 시민들이 낚시를 하고, 요트를 타며 지중해의 햇살과 바람을 즐기고

있었다. 또 아프리카에서 유럽에서, 러시아에서 밀려드는 성지순례의 걸음 또한 어떤 장애도 없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1948년 이스라엘 건국당시 단 60만 명이었던 인구는 2008년 720만 명(유대인 85%, 아랍-팔레스타인 15%)로 늘어났다. 그 사이 약 400만 명이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 중 300만 명이 난민이 되어 이스라엘을 떠나 요르단이나 레바논 같은 주변국으로 삶의 터전을 옮겼고, 이제 이스라엘 내에 남은 팔레스타인 인구는 가자와 서안지구의 150만 명 정도가 전부이다. 지난 60년간 변화가 일어난 것은 다만 인구만이 아니었다. 1948년 이스라엘의 영토 55%, 팔레스타인 영토 45%였던 비율은 2006년 분리 장벽 건설 이후 이스라엘 87%, 아랍지구 13%라는 어마어마한 수치를 기록했다.

이스라엘의 공식 인구는 유대인 540만,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의 아랍 지역 인구 150만 명이다. 대한민국 약 5분의 일 크기, 가로 두 시간, 세로 500킬로미터, 차로 6시간 남짓이면 종단이 가능한 작은 땅 이스라엘, 그것도 국토의 절반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이스라엘을 찾아오는 전 세계의 관광객 수는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다.

550만 인구의 이스라엘에 찾아드는 300만 관광의 물결

이스라엘 관광부에 따르면 2008년 이스라엘을 찾은 관광객은 270만 명, 2007년 대비 40%나 성장한 것이었고, 이스라엘의 관광은 이스라엘의 주요 외화 수입원으로 자리를 차지한 지 오래였다. 키부츠들은 호텔과 각종 레저 프로그램을 개발해 관광객을 유치해 농업과 더불어 다양한 수입원을 모색했고, 예루살렘의 오성급 호텔들은 늘 방을 얻기 어려운 호황이었다.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의 카스피 대사는 “한국인 관광객의 비중은 아시아 관광객 중 1위라며, 2009년에는 더 많은 한국인들이 이스라엘을 찾아주길 바란다”며 환대의 메시지를 전했다. 분리장벽 문제에 대해 묻자 그는 가볍게 이렇게 답했다. ‘이스라엘의 분리 장벽은 한국의 DMZ과 다를 바 없다’며 2008년 복항된 대한항공을 직항편을 통해 보다 많은 한국인들이 이스라엘을 찾아줄 것을 요청했다.

2008년 한국인 이스라엘 관광 인구는 3만 명, 2009년 그의 기대치는 5만 명이였다. 주로 개신교와 카톨릭의 성지순례 패키지 여행객이었고 때문에 이스라엘 한국관광청 홈페이지에는 한국의 성지순례 패키지 여행사들을 메인페이지에 링크까지 잡아 소개해 주고 있었다. 성지순례 여행자들이 머무는 곳은 예루살렘 단 파노라마 호텔이나 키부츠 호텔 같은 고급 호텔이었고, 전용버스로 이스라엘 곳곳

에 퍼진 주요 성지에 편안하게 데려다 주었다. 개신교든 카톨릭이든 기독교 신자 중 성지순례를 한 번 꿈꾸어 보지 않는 이는 거의 없고, 성지순례 시장은 계속 성장해 2008년 기독교방송(CBS)는 대형 크루즈로 일천명을 태운 이스라엘 성지 순례프로그램을 기획 진행해, 이스라엘쪽에서 깜짝 놀라기도 했다.

그러나 그렇게 성지순례자들이 늘어나는 사이, 이스라엘의 관광이 붐을 이루며 40%라는 가파른 성장을 하는 사이, 550만이 아니라 나머지 150만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그 관광의 물결은 무엇을 가져다 주고 있는 걸까?

그건, 장벽너머의 일일 뿐이죠

이스라엘을 찾은 280만 명의 관광객들의 대다수가 성지순례 여행자라면, 그것은 이스라엘 뿐 아니라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향해서도 동시에 열리는 기회의 창이었다. 무엇보다 성지순례의 여정에 빠질 수 없는 예루살렘 성을 비롯, 베들레헴의 예수탄생 교회, 헤브론의 막벨라굴, 여리고성이 있는 제리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야곱의 우물이 있는 나블로스, 물로 포도주를 만든 가나의 혼인교회, 예수의 고향 나사렛 같은 주요 성지들이 위치한 곳은 유대인 지구가 아니라, 팔레스타인 영토인 서안지구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또한 성지 뿐 아니라 팔레스타인의 행정수도 라말라는 요르단 부자들이 여름 피서지로 찾는 유명한 관광지였으며, 갈릴리와 골란 고원 역시 중동 사람들의 여름휴양지가 된 관광 지역이었던 것이다.

프랑스의 팔레스타인 전문가 오드 시놀의 연구에 의하면 평화협정이 진행되던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팔레스타인의 주요활동 분야 중 상업과 관광업은 경제활동인구의 18%로 제조업 16%, 농업 14%를 앞지르는 주요한 수입원이었다. 그러나 2000년 제2차 인티파다가 일어나고 2002년 장벽이 건설되면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철저한 봉쇄정책을 펴기 시작했고, 그것은 자국 내에서 만의 폐쇄가 아니라 국경과 장벽의 통제를 통한 외부와의 단절이 포함된 것이었다.

실제로 이스라엘 입국 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숙소를 잡았거나, 팔레스타인 쪽에서 운영하는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입국하는 경우라면 그 사람은 보안요원에 의해 몇 시간이 될 지 모를 심사를 따로 받아야 하며, 입국 여부마저 불투명해 진다. 그것은 단순히 입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출국 시에도 보안요원은 이스라엘에서 머무는 동안 어디를 방문했고, 누구를 만났고, 어디에 묵었으며, 어떤 일을 했는지, 누가 가방을 싸 주었는지까지 묻는다. 만약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묵었다면 역

시 그는 별도의 조사를 거쳐야 한다.

그런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고립 정책이 팔레스타인의 관광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팔레스타인 관광 전문가인, 팔레스타인 대안여행그룹(Alternative Tourism Group in Palestine) ATG의 프레드(Fred Schomka)는 2008년 8월, ‘이스라엘 관광붐, 그것이 팔레스타인들에게 무엇이란 말인가?’(Alternative tours in English 게재)라는 글에서 정확히 짚고 있다.

이스라엘만 여행하게 하라

PCBS(Palestine Central Bureau of Statistics)에 따르면 2008년 상반기 동안, 서안지구를 찾은 관광객은 76만 9천명이었다. 그중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은 서안지구의 도시는 방문율 66%를 기록한 베들레헴이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대부분의 방문객들은 이스라엘 여행사들이 주관하는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베들레헴을 단 몇 시간 동안 방문하는 단순 방문여행으로 베들레헴에 찾아왔을 뿐이었다. 또 이스라엘 측은 이스라엘 버스는 서안 지역을 자유롭게 오가도록 하면서 상반적으로 팔레스타인 여행사들의 버스가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가 관광객들을 픽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관광객에 대한 접근 자체가 차단되고 있다.

프레드는 또한, 관광 붐 속에서도 팔레스타인 호텔들의 객실 점유율이 낮고, 관광수입이 베들레헴이나 서안지구에 큰 도움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대부분의 여행자들이 이스라엘 여행을 통해 짜여진 틀에서 움직이는 패키지 여행자들일 뿐이고, 설사 그들에게 자유시간이 주어진다 해도 이스라엘 가이드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은 위험하기 때문에 숙박은 커녕 쇼핑이나 식사마저도 자제해야 한다는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고 있다.

그것은 기사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여행자건 베들레헴에 잠시라도 가본다면 마주할 수 있는 살아있는 현실이다. 베들레헴에서 만난 택시 기사 칼래드는 그들의 현실을 이렇게 들려준다.

“이스라엘의 관광버스를 타고 온 여행자들이 베들레헴에 머무는 시간은 길어야 고작 2-3시간이죠. 예수탄생교회, 마리아 우물교회, 그리고 목자들의 들판교회 이 세 교회를 둘러보고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코스가 짜여져 있으니깐요. 버스에서 내려주면 둘러보고, 사진찍고 바로 다음 장소로 이동해야 하는 딱딱한 일정이니 그들이 아무리 많이 온다한들 베들레헴에서 차 한잔 마실 기회조차 없죠.”

그 결과 베들레헴의 주요 호텔들은 객실이 텅 비기 시작하고, 삼백 개가 넘는 식당들 대부분은 문

을 닫고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은 이제 30개 남짓이라고 했다. 이것이 서안지구를 찾은 관광객 66%가 방문했다는 베들레헴 관광의 현실이었다.

다른 여행은 가능하다.

그러나 그 깊은 그늘 속에서도 '다른 여행'을 꿈꾸는 사람들이 존재했다. 팔레스타인 대안여행그룹 (Alternative Tourism Group in Palestine) ATG가 시작된 건 1995년이였다.

ATG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은 물론, 헤브룻, 나사렛, 가자를 포함한 지중해지역, 여리고, 갈릴리 지역까지 포괄하는 대안적 성지순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들의 파트너는 미국의 평화운동단체인 CPT(Cristian Peace Makers), 이스라엘 평화운동단체, 이스라엘 정착촌과 키부츠 등 다양했다. 또 일반적인 여행프로그램으로는 베들레헴 근처의 와이너리, 가나지역의 와이너리를 탐방하는 특별 프로그램,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지역의 문화유산을 경험하는 여행, 조사와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학자, 언론인, NGO를 위한 깊이 있는 안내, 교회와 학생들을 위한 여행과 배움, 국경을 넘어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만나고 소통하기 원하는 연대를 위한 여행 프로그램 등 깊이와 넓이를 갖춘 전문가들의 네트워크였다.

그들이 꿈꾼 여행은 어느 누구도 꿈꾸어 보지 않은 새로운 것이었다. '정의로운 여행(Justice Tourism)', 관광을 통해 정의를 추구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묻는 이에게 그들은 이렇게 답했다.

“관광을 통해 지역 공동체에 경제적 기회가 주어지고, 여행자와 지역 공동체 사이에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교류가 일어나는 거죠. 또 사람 뿐 아니라 환경이 보호되는 여행이어야 하구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 여행을 통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갈등과 현실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갖게 되는 정치적 역사적 배움이 일어나는 여행이에요. 그렇게 사람과 사람이 얼굴을 마주하며 서로에게 귀 기울일 때 일어나는 이해와 공감, 타인의 고통에 대한 연대야말로 평화를 가져 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죠.”

무엇보다 ATG는 개인 여행자들에게 마음의 중심을 두고 있다고 했다.

“우리 여행의 중심은 개인들이 갖게 될 깊은 여행의 경험이에요. 팔레스타인에 오기 전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에 대해 수많은 오해와 잘못된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죠. 그렇게 깊이 박힌 잘못된 인식과 이미지를 바꾸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더디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팔레스타인을,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마주하며 경험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여행은 가장 효과적인 평화의 수단인 거죠.”

그들의 여행 프로그램은 일방적으로 팔레스타인의 아픔과 현실을 보여주는 정치적 프로파간다가 아니라 경계를 넘어서기, 타자의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보기,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보기, 만남을 통한 연대와 같은 그 세심한 과정을 통해 여행자 스스로가 평화에 대해, 정의에 대해 고민해 보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뿐이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나드는 여행을 통해 여행자들은 우리가 인간의 존엄과 평등에 대해,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해, 사회적 정의의 문제에 대해 깊은 인식을 갖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만나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를 양측의 시선으로 이해하고 평화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때문에 그들의 여행 프로그램 속에는 팔레스타인 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정착촌, 국제활동가들, 이스라엘의 군인들, 팔레스타인 농민들, 기독교와 무슬림의 성지들, 동과 서 예루살렘 등을 오가는 다양한 만남과 여정이 자리하고 있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여행자들의 단순한 '경제적 기여'가 아니라 '사회적 정의'예요. 관광은 물론 지역에 경제적 수입을 가져다 줄 소중한 기회죠, 그러나 거기 정의가 빠져버린다면 그 돈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죠. 관광을 통해 지역에 흘러 들어오는 돈들이 지역을 빠져나가지 않고, 또 그 사회의 양극화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돌보고 통해 사회적 정의가 구축되는 일을 위해 쓰일 때, 그걸 정말 대안적인 관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팔레스타인의 눈으로 쓴 최초의 가이드 북, 「팔레스타인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들은 점점 높고 길어져 가는 분리 장벽의 그늘 속에서도 끊임없이 어떻게 저 막힌 담장에 창을 내, 이스라엘을 찾아오는 수백만의 여행자들이 경계를 넘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넘나드는 여행을 하게 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다. 그 고민의 결과는 한 권의 책으로 나왔다.

최초로 팔레스타인 사람의 눈으로 팔레스타인을 바라보고 여행할 수 있는 개인 여행자를 위한 가이드북 「팔레스타인,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것은 무려 436페이지에 달하는 아름답고 깊이 있는 책이었다. 그 안에는 여행자를 위한 숙소와 식당, 볼 것과 살 것에 대한 안내는 물론, 정착촌, 분리장벽, 시온주의 같은 팔레스타인의 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정치적 주제들에 대한 설명도 담겨 있다. 그런 주제들이 왜 가이드 북에 포함되었느냐 묻자, '오픈 베들레헴 캠페인'의 디렉터이며 ATG멤버인 다

뭉찌(Ms. Daboub)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에게 정치는 여행이에요”

올리브를 추수하는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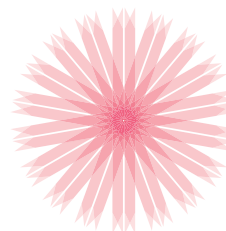
ATG에서 시작되는 여행 프로그램들은 시장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역의 요구에 기반한다. 2001년 시작된 올리브 추수 캠페인은 희망을 위한 여행이었다. 이스라엘 정착촌 근처에 밭을 둔 농민들은 이스라엘 정착촌 사람들의 방해, 검문소의 봉쇄, 막힌 길들로 다 익은 올리브를 제때에 추수하지 못했으나 농민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올리브 숲에 추수를 위해 마을 주민들이 내려서면 이스라엘 정착촌 주민들은 그들이 테러를 저지를 수도 있다며 ‘정당방위’를 빌미로 총을 쏘는 일도 허다했다. 결국 농부들은 애써 수확한 올리브가 땅에 떨어져 썩어가는 것을 눈물을 흘리며 보아야 했다. 그때 시작된 것이 올리브 추수여행이었다.

ATG는 동예루살렘의 YMCA, YWCA와 더불어 2001년 가을 올리브 추수 캠페인을 시작했다. 그것은 팔레스타인에 와서, 함께 올리브를 따 달라는 여행으로의 초대였다. 그들은 이스라엘에 머물고 있는 국제단체들 뿐 아니라 국경너머 먼 곳의 여행자들을 향해서도 초대의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들의 초대에 미국의 글로벌 익스체인지, 영국의 올리브 협동조합, 이탈리아의 생협, 일본의 피스보트가 응했다.

세계 각처의 수많은 이들이 이스라엘로, 팔레스타인으로 찾아들기 시작했다. 그들이 한 일은 시위도 집회도 아니었다. 다만 팔레스타인 농가에 머물며 함께 올리브를 추수한 것... 그들은 다만 일주일에서 열흘의 수확기간 동안 올리브 농부들의 집에 함께 머물렀고, 함께 밭에가 추수를 하고 밥을 먹고, 잔치를 열었다. 백인과 흑인, 동양인과 이스라엘인, 수많은 사람이 뒤섞인 올리브 숲을 향해 이스라엘 군인들은 총을 쏠 수 없었고, 나무에서 떨어져 내리던 올리브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눈물, 올리브 오일이 되어 주었다. *

글을 쓴 임영신은 이미진피스대표 침례신학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했으며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을 졸업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의 간사, 녹색연합 간사를 거쳐 아름다운 재단 기획 및 모금팀장을 역임했다. 2003년에는 이라크 평화네트워크의 대표로 이후 분쟁지역 평화도서관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저서에 ‘평화는 나의 여행’, ‘희망을 여행하라’가 있다.

건강한 음식으로 사람과 생태계를 살리자



이종임.
한국YWCA연합회 실행위원

한 나라의 식문화는 자연과 기후 조건을 활용하여 다양한 먹거리를 얻을 수 있다. 더욱이 현대사회는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 과학화로 식품의 생산, 저장, 가공, 유통기술 발달의 영향으로 풍성한 먹거리를 제공받고 있다.

또한 식문화는 종교, 관습, 연령, 직업, 가족형태, 개인적 기호, 레저패턴의 다양화, 소비주축인 젊은 신세대의 출현, 여성의 사회진출, 주5일제 근무 등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소득수준의 향상, 경영기술의 개선, 여가시간 증대 등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도 나라마다 독특한 식문화가 형성되어 그에 따른 정체성을 갖게 된다.

1900년대만 하더라도 그 나라 지역에서 생산되는 로컬 푸드가 대부분이었지만, 점차 세계화된 거대도시들이 탄생됨에 따라 로컬 푸드로만 해결될 수 없을 만큼 입맛의 국제화에 따른 유동적인 시스템을 즐기게 되었다. 또한 다른 나라의 식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한국에선 파스타를, 일본에선 김치찌개를, 유럽과 서양에선 초밥을 즐기려는 사람들에 의해 이미 국경이 사라진 음식의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외식산업이 양적, 질적으로 발전하고 보수

적인 입맛에서 소비의 주축인 젊은 층의 다양한 식문화의 체험과, 보다 독특한 소비습관으로 인해 외식산업이 급격히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다.

외식산업은 21세기 가장 유망한 산업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미화되기 시작했고, 외식산업관련 컨설팅 교육프로그램, 해외 연수 프로그램 등 외식산업의 새로운 운영기법이 등장하면서 단순히 요식업, 음식업이 아닌 외식 서비스 산업으로까지 발전해왔다. 예전엔 집에서 만든 집밥이 가정식의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가정 외에서 조리 가공된 음식들이 상품화되어 외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편의점, 슈퍼마켓, 대형마트에서 가정식사대용(HMR), 테이크아웃 푸드, 반조리식품, 그리고 무점포배달전문점, 배달비즈니스등 주식(主食)의 개념으로 판매되는 시판도시락, 반찬류, 주먹밥, 죽집, 샐러드, 샌드위치를 비롯한 포장형태의 음식들, 전자레인지나 뜨거운 물에 바로 데워 먹을 수 있는 냉동식품, 가공식품 등 반조리 가공식품들이 우리의 식탁을 점령해가고 있다.

젊은 층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과 소비패턴 가치관을 이용한 비즈니스 및 여성의 사회참여증가로 인해 외식의 개념이 시간과 돈을 절약하고 오로지 편리성만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크게 문제시되고 있다.

“사람은 먹는 대로 된다(You are what you eat)”라는 유대인의 속담은 “사람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라는 의미이다. 유대인들이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곧 인생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먹거리가 내 인생을 바꿔 놓을 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먹으면 좋은 음식과 먹으면 몸에 해가 될 수도 있는 음식이 있어 선택과 절제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

우리 식탁에서 범람하고 있는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식품첨가물이 다량 첨가된 가공식품들, 무절제한 외식습관들은 점차 도시인들을 비만과 각종 질병으로 몰아가는 도시병이 되어 우리 몸을 병들게 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 땅에서 나는 친환경농산물을 이용하여 엄마의 정성이 담긴 집밥인 안전한 밥상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농약에 찌든 채소, 어두운 축사에서 곡물사료와 동물사료로 길러낸 육류, 유전자조작농산물과 각종 첨가물로 범벅이 된 유해식품, 가공식품은 맛과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서서히 우리의 입맛과 건강을 해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우

리가 얻는 값진 것은, 농민과 소비자가 함께하는 유기농산물이라는 새로운 대안 먹거리의 발견인 것이다. 이제는 자연과 환경을 지속적으로 지키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인 LOHAS(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의 삶을 우리 모두가 실천해야 할 때이다.

로하스(LOHAS)를 추구하는 삶이란,

첫째, 친환경적인 자연 속에서 쾌적함을 취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안전한 먹거리를 통해 건강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둘째, YWCA가 전개하고 있는 생협, 농산물 직거래, 도농공동체운동, 녹색농촌 만들기, 지역농산물 이용 등을 통해 도시와 농촌이 함께하는 공정한 사회를 이루는데 동참하는 것이다.

셋째, 자원을 지키고,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폐기물도 에너지로 재사용하고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함께 생태계를 지키기 일에 앞장서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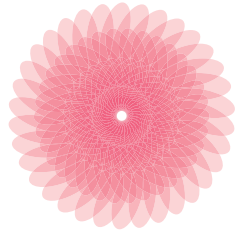
우리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져 생태계의 균형을 이루고 더 나아가 다음 세대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고 그 속에서 건전한 먹거리를 취해야 한다.

건강한 음식을 통해 맛있는 생활을 즐기고

자연을 지키며 더불어 즐기는 풍요로운 유기농 생활을 실천해야 할 때이다.

유기농산물로 만든 안전한 먹거리로 생명을 불어넣는 밥상을 차리는 것은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일 외에도 우리의 땅과 물과 지구를 오염되지 않게 하여 다음 세대에 깨끗한 자연환경을 물려준다는 큰 뜻을 포함하고 있다. 즉 모든 생태계와 사람을 살리는 일이며 지속적으로 건강한 삶을 키워가는 일인 것이다. 서로 나누고 배려하는 생활 속에서 나와 사회, 환경, 그리고 지구를 건강하게 하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희망한다. *

인간 존엄에 대한 윤리적 성찰 이루어지도록



정동신.
연합회 실행위원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21세기는 과학기술의 시대, 생명공학기술의 시대라고 전망하고 있다.

또 이러한 현대 생명공학의 발전은 전통적인 생명공학과는 달리 그 연구범위가 넓어져 오늘날의 생명공학의 힘은 인간생명의 수태과정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의학의 거의 모든 분야에 인간의 개입을 가능하게 했다. 생명문제와 생명현상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제조하는 기술까지 발전한 것이다. 이것은 난치병 치료, 질병예방, 건강증진, 수명연장으로 질병 없는 세상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희망을 주며 시대의 주도권을 확보해오고 있다.

이로 인한 의료영역에서의 의료문제도 생태학적 위기와 더불어 생명윤리문제를 야기해 잠재적 문제와 해악도 엄청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과학자들은 끊임없는 생명연구와 시도를 하고 있다. 예컨대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것으로 예상했던 핵에너지가 지구촌 곳곳에 자연재앙을 불러와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이것이 또한 핵무기가 되어 인류와 지구파멸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2005년 5월에 국내의 한 연구자가 치료용 배아줄기세포 배양에 성공했다는

발표를 해서 난치병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며, 온 국민들이 감탄과 찬사를 안겨주었던 일이 있었다. 이어서 같은 해 10월에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개설된 '세계줄기세포허브(Hub)'가 세계적인 줄기세포 네트워크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게 되리라는 전망과 함께, 우선 척수손상, 파킨슨병, 루게릭병 등 신경계난치병과 당뇨병 환 등을 우선적으로 한정하여 임상실험하며 치료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여 많은 치료대상자들에게 기대를 갖게 하였다. 그런데 이때에 체세포기증과 줄기세포 배양에 필수적인 난자도 기증받은 것으로 알려져, 일부 여성단체들에 의한 강력한 윤리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물론 연구자의 비윤리적 연구과정과 결과로 인해서 연구는 중단되었고, 온 국민은 충격을 받은 바 있다. 이때 생명관련 연구자들에게 생명윤리의식 및 성찰이 강력히 요구되었다.

의료윤리 역사는 이미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윤리적 문제들에 대한 1948년 세계의학총회의 제네바 선언, 1957년 미국의사협회의 의학윤리원칙이 있었고, 현대의 생명의료윤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의학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등장했다. 이때 환자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기술이 등장하였고, 1960년대 후반부터 현대의료윤리문제가 대두되었다. 그리고 1970년대부터 각국에서는 생명의 존엄성과 생명윤리가 활발하게 논의되었으며, 생명과학기술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하여 생명윤리교육 강화와 생명윤리를 지키기 위한 법들이 제정되었다.

1971년 가톨릭 의료기관의 '윤리 및 신앙지침'과 1974년 영국의사협회의 '의사-윤리정의와 원칙', 1983년 WMA(World Medical Association)의 '의료윤리에 관한 국제협약', 대한의학협회의 '한국의사의 원리', 그리고 생명복제와 관련된 종교적 입장과 각국 정부 및 기관들의 입장이 발표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서 1993년 국제생명윤리학회 설립, 1995년 아시아 생명윤리학회가 설립되었으며, 각 국가들과 더불어 우리나라도 여러 윤리학회를 설립하는 등 윤리의식의 중요성이 확산되어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 생명공학과학기술의 시대는 인간에게 풍요로움과 편리함,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끊임없는 생명

연구와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결과, 이에 동반될 수 있는 과학기술 연구자들의 도덕적 헤이상대, 생명경시현상은 큰 우려의 목소리를 낳고 있다.

의료현장에서는 심장이식 성공과 뇌사 환자의 장기이식, 그리고 뇌사의 죽음 인정 여부에 대한 새로운 문제가 제기 되었고, 그 외에도 임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윤리적 문제와 또 지난해 논란이 되었던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가 의학계는 물론 사회, 종교 및 전 국민적인 논란이 있었다. 2011년 당시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의 한 노인환자에 대한 연명치료중단사건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의식의 회복가능성이 없고 생체기능의 상실 및 짧은 시일 내에 사망가능성과 회복불가능이라는 명백한 진단에 따라서 연명장치를 제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그 노인환자는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후에 자발적 호흡을 하게 되었으며 일반 환자 수준으로 돌아가게 되어 생명윤리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었다.

최근에는 의약품 재분류 중심에 서있는 응급피임약의, 처방이 필요 없는 일반 약 전환 전망에 따른 의학계, 약사회, 여성계, 종교계 등의 찬반 입장이 대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된 각 단체들의 첨예한 대립 가운데 하나로, 한 의료단체는 사후피임약에 대한 최근 공식 자료에서 “의학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여성 호르몬제의 혈전증, 심혈관계 부작용 등은 에스트로겐 성분 약물을 장기간 복용할 때 나타나며 1회 복용으로는 문제가 없다”라고 한데 반해, 한 의료단체는 “사후피임약은 일반피임약의 10~30배에 달하는 고용량 호르몬 제제”라며 오남용 시 호르몬 체계가 교란돼 불임에 이를 수 있고 골반염 등 부작용이 심각할 수 있다는 주장과, 부정 자궁출혈과 배란장애가 빈발하고 난소기능에까지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도 2012년 6월 5일 입장을 발표했다. 즉, 응급피임약제들은 인간 배아를 죽이는 작용을 하는 것 이외에도 의학적인 측면, 성윤리적인 측면, 여성의 건강권의 측면 등에 광범위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을 안고 있는 약제들이라는 것이다.

이준연 천주교 청주교구 생명위원회 위원장도 “사후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은 생명존중문화를 퇴보시키고 죽음의 문화 확산에 앞장서는 것이며, 실상 이

약은 조기 낙태 또는 화학적 낙태를 초래한다”고 했다.

사실 인간생명의 초기 발육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신비한 창조세계를 볼 수 있는데, 관련학자들에 의하면, 정자와 난자가 결합한 1일에 하나의 세포가 형성되고 모든 세부적인 인간의 특성 즉, 성, 머리털과 눈동자 색깔, 키의 크기, 피부 빛깔을 결정하는 유전적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 이어 3~4일은 수정란 착상, 5~9일 영양분 섭취, 20일에 뇌, 척추 및 신경계통의 기반이 이미 형성되며 21일에 심장의 고동이 뛰고 28일에 등뼈, 근육 형성과 팔, 다리, 눈, 귀가 나타난다고 한다. 이것이 얼마나 신비하고 아름다운가?

성서를 통하여서도 생명이 하나님의 창조세계 안에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주께서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 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며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나를 보고 계셨습니다”(시편 139: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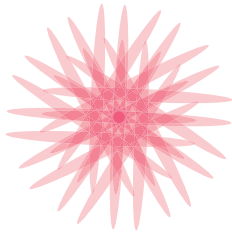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고귀하고 존엄하며 신비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생명 그 자체가 이미 신성한 것이고 존재 그 자체만으로 경외심을 주며 신성하다.

김근진은 그의 책 「모든 인간의 생명은 귀중하다, 신학적 입장에서 본 생명의 존엄성, 본질과 현상」에서 “현대사회에서 무엇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살고자 하는 다른 생명들의 권리와 존엄성을 인정하는 일이다. 나의 생명만 가치와 존엄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가치와 존엄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힘의 의지를 제한함으로써 다른 생명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특히 ‘책임윤리’로 잘 알려진 한스요나스(Hans Jonas)도 ‘인간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일차적으로 간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인간이 다른 존재보다 권리상 우위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다른 생명에 대한 책임을 자신의 책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능력을 그의 책임성 속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현대생명공학과 인간생명이해」의 저자 박충구는 “이제 생명윤리 없는 생명공학의 폐기와 ‘생명윤리와 함께하는 생명공학’이라는 원칙으로 되돌아가야 하며 사회각계계층의 생명공학이 나아갈 길을 조명해주는 생명윤리학적 지표와

글을 쓴 정동신은 한국고통대학교 보건생명대학 간호학과 교수로 재직중으로 생명의 존엄성 및 윤리관련 논문을 지속적으로 쓰고 있다. 대한 간호학회 기본 간호학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성과 건강', '생명 윤리' 논문 외 다수가 있다. YWCA의 지도력 발굴과 성장에 관심이 있어 Y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YWCA 정의운동의 신학적, 시민운동론적 배경과 의미



최만자,
전 한국YWCA연합회
실행위원

정의에 대한 관심 증대와 '정의'에 대한 이해

근래에 우리사회에서는 일종의 정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들 교수의 강의를 정리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판매 1위에 까지 올랐고 때맞춰 정부 차원에서도 공정한 사회 지향을 내세웠다. 공정성은 합헌성, 절차의 적절성, 모든 정의 담론이 존재하고 있는 사회계약에 기초하고 있는 국민적 동의, 또는 정의 담론이 풀어야 할 미래적 가치에 대한 이상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면, 공정한 사회, 더 나아가 정의로운 사회로의 지향은 우리 모두의 바램일 것이다. YWCA에서도 정의 포럼을 열고 '정의'를 중심 과제로 생각하게 된 것은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감지하면서 자신의 활동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필요로 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사실 Y는 이미 그 목적문에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의 세상을 건설함을 표방하고 있어 '정의'주제의 과제를 오히려 그동안 소홀히 하였다는 자성과 동시에 더 깊고 확장된 '정의'운동의 전개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정의'의 주제는 우리나라가 70~80년대 군부독재에 의한 인권탄압과 폭력적 사건들이 난무할 때 그 불의에 저항하는 상황에서 심각하게 두드러져 나온 주제였고 사람들의 가슴속에서 '정의로운, 동시에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에 대한 소망이 간절했을 때의 절박한 주제였다. 그럼에도 정의에 대한 말을 쉽게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1980년도 중반부터 철학적으로 학자들의 논문이나 저서에 등장하였던 주제였다. 그러다 갑자기 최근에 공정성과 관련된 이야기가 이슈가 되고 정치적 문제가 되고 '정의' 주제가 사람들의 관심의 중심이 된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야기 되고 있는 것은 70-80년대 한국사회가 불의에 저항한 그런 정의와는 좀 다르다. 요즘은 절차나 배경 등의 어떤 기회균등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아졌고 지금 거론되는 공정성의 개념은 삶의 안정과 전망에 대한 불만에서부터 시작된다. 달리 말하면 '정의, 공정성'의 문제가 일상적 삶과 깊숙이 연결되고 그 담론이 대중화 된 현실인 것이다. 정치권이 '공정성'을 내세움은 이런 대중의 의사를 반영한 표집기 관심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아무튼 정의 담론이 대중화되었고 그것은 바람직하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은 '무엇을 정의로 말 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이다. 정의 담론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며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도 상황에 따라 다양한 결론들이 나올 수 있으므로 '정의'를 정의하기는 매우 어렵다. 하지만 정의를 구성하고 개념화하는 구성 원리인 '공정성/공평성', '공동선', '평등', '기회균등' 등의 가치로 핵심 혹은 기준을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샌들의 경우는 인간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존재하는 공동체 구성원이나 공동체를 구성하는 시민으로서의 덕목, 공동선을 지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의 담론의 요체는 결국 좋은 사회를 만드는 시민들의 덕목, 즉 좋은 시민을 양성해 가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공공선에 대한 이상을 얼마나 풀어 낼 수 있느냐 라는 것은 정의에 대한 담론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어떤 의미에선 종교와 신학이 이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주장해 온 부분이 아니겠는가 싶다. 공공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세상의 가장 낮은 이들에게 얼마나 햇빛이 돌아갈 것인가를 기본으로 사회를 보는 일이 될 것이다.

한국YWCA 역사와 목적문을 통해 본 '정의' 주제의 배경

1. YWCA역사에서 보는 정의 운동

한국Y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서 그 전개 해 온 활동들이 '정의' 주제로 조명할 때 어떤 내용이 될 수 있으며, 어떤 의미와 과제를 남기는가를 생각해 본다.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양한 답들이 나올 것이고, 여기에는 필자 본인의 지극히 주

관적 해석임을 밝힌다.

① ‘평등’ 운동을 통한 정의의 실현 추구

Y의 창립 자체가 여성들을 위한 것이었고 그 여성들은 지독한 남녀차별의 문화에서 억압적 상태에 있는 여성들이었다. 그들의 법적, 사회적 지위향상과 생활환경의 개선, 삶의 질의 변화, 더 나아가 양성평등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수많은 활동을 초창기부터 줄곧 실행하여 왔다.

②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 활동

‘정의’ 주제로 조명 해 볼 때 Y 역사를 통해 전개 해 온 활동들은 한마디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근거하여 있으므로 공공선을 추구해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초창기부터 Y가 문맹퇴치를 위한 교육 계몽활동에 주력했고, 당시의 낙후된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열악한 조건의 지역을 찾아가 활동했으며, 특히 여성들의 참혹한 삶의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운동을 전개하였음은 이미 언급된 바이다.

Y역사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운동으로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지 각자 찾아보자.

2. 목적문을 통해서 보는 ‘정의’ 주제의 신학적 배경

Y목적문의 마지막 단락에서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것은 1997년 ‘창조질서의 보전’이 추가되었고 그 이전에는 ‘평화와 정의의 세상’으로 되어 있었다. 이 목적문에서 언급하는 정의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당시의 목적문 작성 과정을 알아야 하겠지만 비록 일반적인 의미에서 ‘정의’ 주제를 내세웠다 할지라도 그것은 70~80년대 불의한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과 동시에 세계 교회협의회(WCC)의 신학적 영향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그런 의미에서 목적문과 관련된 ‘정의’ 주제 이해를 위해서는 세계교회협의회(WCC)의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 신학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① 하나님의 선교신학(Missio Dei)

1948년 세계교회협의회가 창립된 이후 1952년 5월 국제선교위원회의 국제대회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이 말은 엄청난 종교개혁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 핵심적 내용은 첫째, 신앙(교회)과 세상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한 것과 둘째, 세상에 대한 교회의 역할에 대한 전적인 새로운 설정이었다. 하나님의 선교신학은 우선 철저하게 교회가 가지는 세상에 대한 이해를 이전의 <세속-악, 부정되어야 할 곳>으로부터 <세상-하나님의 피조세계, 긍정적 장소,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야 할 곳,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는 곳>으로 바꾸었다. 그것은 신앙이 현실변혁적이어야 하며, 하나님은 역사 안에 개입하시고 활동하시는 분으로 알아야 하고, 하나님은 세상 안에서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하도록 일하시는 분임을 강조하였다. 예수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며 하나님의 통치는 ‘살롬의 세상’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은 망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방주 교회로 끌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섬기고 변혁시키는 일 곧 그것이 선교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세상과 관계하신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학이 1950년대 이후 1960년대 세계교회협의회(WCC)의 운동방향이 되었고, 1960년대 로마 가톨릭의 제2 바티칸 공의회 이후 개신교와 함께 가톨릭도 방향을 같이하게 되었다.

②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Justice, Peace, and Integrity of Creation)

세계교회협의회(WCC)는 하나님의 선교신학의 구체적 과제로서 JPIC 신학을 결정한다. 1966년 제네바 대회에서 국제적 사회문제에 대한 책임을 절감하면서 당시의 기술과학의 발달로 인한 사회문제들과 경제개발이 초래하는 개발국, 개발도상국들 간의 정치적 갈등, 불의, 부정부패 등의 사회문제들, 개발정책으로 인한 국가와 인권의 문제들, 제3세계 국가들을 냉전의 도구로 사용하는 강대국들 간의 문제, 그로 인한 베트남, 한국 등 전쟁들 중 수없이 발생하는 사회문제들과 자국의 안전보장을 위한 핵개발의 확대, 국제간의 전쟁과 폭력, 그리고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말할 수 없는 사회문제들의 발생 앞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과 자세, 교회의 책임을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제시된 신학이다.

이 상황에서 교회는 우선적으로 현재의 자신을 깊이 참회하고 방향 전환을 고백하며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촉구한 것이다. 1968년 옴살라 대회를 거쳐 1975년 나이로비 대회에서는 인권침해, 성차별, 인종차별주의 등을 범죄로 지적했고 정의롭지 못한 사회구조들의 문제-경제착취, 정치적 조작, 군사적 세력, 계급 지배 등의 구조적 폭력에 대해 저항과 투쟁을 말하게 되었다. 나이로비 총회에서는 불의로 인한 제3세계의 고난만이 아니라 천연자원의 고갈, 자연환경

의 오염, 그리고 핵전쟁에 의한 생태계 및 인류의 파멸위기가 총체적으로 인식되었다. 이제는 제3세계 개발이 과제가 아니라 선진 산업국도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를 벗어나야 함이 선교의 과제가 되었다.

그러므로 세계교회협의회는 ‘정의, 평화’를 늘 묶어서 생각하였고, 1980년대 이르러 창조질서의 보전을 이에 협하여 하나님의 선교의 과제로 삼게 된 것이다. Y의 목적문 내용은 이러한 신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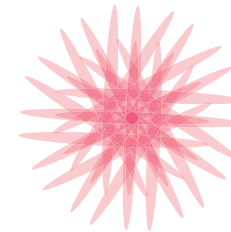
‘정의’ 주제로 보는 Y의 시민운동론적 의미

21세기 시민운동의 특성을

- ① 정부와 국가, 그리고 기업의 논리와 정책에 대한 비판과 감시의 기능을 하는 것
- ② 민주적이며 자발적인 개인, 회원의 참여에 의해 이루어져 나가는 운동
- ③ 시민 주체적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는 운동
- ④ 생활 이슈 중심의 운동
- ⑤ 시민 권익과 21세기 사회에서 배제된 약자를 배려하는 운동
- ⑥ 대안문명운동-인간, 자연의 공조, 여성주의적 시각, 새로운 문명 지향 등

이와 같은 시민운동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Y 활동이 얼마나 시민운동적인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 회원Y, 그리고 참가자들의 자평이 필요할 것 같다. 위와 같은 특성들이 ‘정의’ 주제로 묶여질 수 있는 해석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YWCA 역사와 목적에 기초한 YWCA 정의 운동 제안



정유진.
한국YWCA연합회
실행위원

한국YWCA의 정의운동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난 역사 속에서 한국Y가 어떤 운동적 변화를 경험해 왔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Y는 시대적 상황과 요청 속에서 역사적으로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 운동적 변화를 경험해 왔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시기는 초창기 에큐메니칼 운동의 영향을 받았던 시기이다. 한국Y는 1922년 우리나라 기독교 여성대표(김활란, 김필례)가 처음으로 세계대회에 공식적으로 참석한 세계기독교학생연맹(WSCF)회의를 계기로 창립되었으며 그 이후 한국Y는 에큐메니칼 신학과 운동의 깊은 영향 하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함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선교신학의 과제를 안고 YMCA, KSCF 등 관련 단체들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의운동을 전개하였다.

두 번째 시기는 한국Y가 본격적으로 여성운동체로서 활발한 성장을 이룬 시기이다. 한국Y가 결정적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것은 1968년 ‘대학YWCA 결의문’과 한국Y의 ‘대학YWCA 독자성 유지결의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하면서라고 생각된다. 당시 한국Y는 에큐메니칼 기독교학생운동 그룹이었던 YMCA, YWCA, KSCF 세 단체의 통합논의 속에서 ‘다양화한 시대에 있어서는 각 기관의 독자성과 특유성을 강화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 하에 국내 유

일의 여성단체로서 여성의 주체성과 여성지도력에 대한 임무를 확인하며 세 단체의 통합논의에서 빠지게 되고 그 이후 운동의 중요한 영향을 받고 있던 에큐메니칼 기독교학생운동과 관계가 약화되면서 아울러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 따라 운동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 시기를 통해 한국Y는 조직적 확대와 여성운동체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며 여성이 주체로 여성의 시각과 방법으로 여성들의 정의운동을 전개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 세 번째 시기는 시민사회운동의 등장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1990년대 한국사회는 민주화의 성과 속에서 다양화되고 시민사회가 확대되면서 시민사회에 대한 논의와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그 속에서 오랜 역사를 이어온 한국Y는 다시 시민사회운동체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요청받고 있다. 한국Y는 과연 어떤 그리고 어떻게 시민사회운동을 하는 운동체인가? 지난 짧은 시민운동의 현장 속에서 실험한 경험을 토대로 한국Y는 이제 스스로 시민운동적 자기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그에 맞는 운동방식과 내용을 더욱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시민운동단체로서의 자기 정체성 확인이 선행되었을 때 비로소 YWCA의 정의운동의 목적과 내용과 방법이 구체화될 수 있다.

한 가지는 이 세 시기를 통해 한국Y가 이뤄온 중요한 성과가 있는데, 그것은 조직적 확대와 회원참여적 운동의 성과이다. 80~90년대를 지나면서 한국Y는 괄목할만한 조직적 팽창을 이루어 전국 54개 회원YWCA를 비롯하여 수많은 부속시설을 갖춘 조직으로 성장했다. 아울러 한국Y는 지금은 많이 약화되었지만 한때 활발했던 청소년, 대학, 청년, 주부 등 연령별 클럽 활동을 통해 다양한 회원참여적 운동을 경험한 바 있다. 이러한 운동적 조직적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 한국Y는 새로운 사회를 여는 시민운동체로서 어떤 목적과 조직과 내용을 담을 것인지 논의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Y는 여성이 주도하는 기독교시민사회운동체이길 소망한다. 역사적으로 한국Y는 기독교 여성 정체성에 기반한 회원운동체로 성장해 왔으며 이제 이 모든 것을 종합한 시민운동체로서 새로운 탈바꿈을 모색한다면 그것은 여성이 주체가 된 기독교시민사회운동체라 생각한다. 기독교적 시각에서 한국사회와 시민운동을 평가하고 건강한 기독교시민사회운동을 통해 한국사회와 교회에 건강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한국Y가 담당해야 할 시민운동의 과제라 생각한다.

이러한 결론을 가지고 한국Y가 시민운동적 정체성을 가지고 전개해야 할 정의운동을 위해 몇 가지 과제와 운동의 주제를 제안해 보고자 한다.

먼저 회원운동으로의 재정비와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한국Y는 80~90년대를 거치면서 조직적인 확대를 경험하며 다양한 계층의 대중들이 참여하는 전국적인 조직력을 갖춘 여성회원단체로 성장했다. 현재 한국 사회의 시민운동이 소수의 엘리트 중심, 이슈 중심 운동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Y는 보다 폭넓은 자발적 민주적 회원참여를 통한 시민운동을 전개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그렇기에 이제 한국Y가 다시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운동의 주체로 세우고 교육하고 훈련하며 함께하는 진정한 회원운동체로 회복되기를 소망한다. 프로그램의 수혜자로 전락한 회원이 아닌 삶을 변화시키는 운동의 주체로 성장하고 서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결단해야 할 과제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여성 회복과 회원이 참여하는 회원운동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적 과제일 것이다. 최근에 한국Y가 조직을 시도했던 민들레조직활동은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 회원 개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조직기반을 만들고 기독교영성으로 회원 활동을 이끈다면 한국Y는 여성이 주도하는 기독교시민사회운동체로서 구체적인 정의운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지금까지 한국Y가 이뤄온 시민운동적 성과를 평가하면서 보다 깊고 넓은 시민운동적 전략을 짜야 할 것이다. 한국Y는 백화점식 운동을 경험해 왔다. 한국Y 안에는 많은 운동영역과 성과와 경험들이 산재해 있다. 이것을 평가하고 종합하고 조직하여 한국Y다운 시민운동론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많은 활동과 운동들에 이론적 배경을 붙이고 운동적 비전을 수립하여 넣음으로 전국의 회원Y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운동을 전개하도록 할 때 보다 큰 운동적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시대에 한국Y가 중점을 두어야 하는 정의운동의 주제는 무엇인가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한국Y는 다양한 주제의 정의운동을 전개해 왔다. 특별히 그동안 한국Y가 중점적으로 전개해 왔던 소외된 여성들의 권익보호와 향상 등 여성을 위한 정의운동과 오랫동안 성과를 거두어 왔던 환경정의 운동은 지금도 유효하게 중점을 두어야 할 운동영역이며 지속적으로 깊이를 더해가며 전개해 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크게 2가지의 운동주제를 덧붙여 제안하기를 원한다.

하나는 청년정의운동이다. 한국Y가 청년운동체이기도 하지만 청년정의운동이 더욱 절실한 이유는 현재 청년들은 정의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청년을 대변할 조직이 없다는데 있다. 여성은 많은



여성단체들이 존재하고 노동자들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청년은 성인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아직은 경제적 사회적 약자로 스스로를 대변하기에는 미숙하다. 그러나 그들의 처한 상황은 너무나 열악하다. IMF 이후 청년 실업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고액의 대학 등록금 대출문제는 젊은 대학생들을 그들이 사회에 발을 내딛기도 전에 수천만원의 채무자로 전락시킴으로 미래를 상실한 절망감으로 결국 그들을 자살로 몰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정의 운동은 시급하며 청년운동체로서 한국Y가 관심해야 할 주제라 생각한다.

또 다른 하나는 통일을 준비하는 사회정의의 문제이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대한민국은 언젠가는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 한 민족, 한 핏줄로서 하나된 조국을 위해 지금도 많은 고민과 숙제를 안고 있다. 한국Y 역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통일을 염원하고 준비하고 있다. 그렇다면 통일된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될 것인가? 예상컨대 많은 사회적 갈등과 부적응, 혼란이 초래될 것이다. 이를 위해 통일된 조국이 보다 나은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 우리가 준비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1년을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국Y가 새롭게 정의운동에 관심하고 있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 그러나 정의운동은 사실 많은 불편을 주는 운동이다. 왜냐하면 정의는 문제를 묻고 지적하고 따지고 나아가서 그것을 그냥 감수하자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요구하고 강제하고 때론 강압해야 하는 과정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관계가 불편해진다.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관계가 깨어지게 될 때도 있다. 그러한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 정의운동이다. 그래서 정의문제를 다룰 때 우리는 “옳은 것이 좋은가?” 아니면 “좋은 것이 옳은가?” 갈등하게 된다. “옳은 것이 좋지만” 때론 “좋은 것이 좋지 않을까?” 주저앉고 싶을 때가 생긴다. 그러나 분명 우리가 이뤄야 할 정의로운 사회는 “옳은 것이 좋다”는 데서 주어지는 보상일 것이다.

언제가 기독교인으로 시민사회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 실무자들의 공부모임을 진행한 적이 있다. 그 때 한 동료는 자신은 옳은 것이 좋다고 끝까지 물고 갔는데 결과적으로 관계적 아픔을 경험하고 이렇게 된 바에야 좋은 것이 좋지 않았을까 생각했다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다. 우리도 정의를 다룰 때 동일한 문제 앞에서 고민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은 것이 좋을 때” 우리는 정의에 한 발자국 더 앞서 가게 될 것이다. 앞으로 한국Y가 정의운동에 관심할 때 심히 불편한 마음과 자세와 태도로 “좋은 것이 좋지 않았을까?” 후회하는 정의운동을 전개하길 기대해 본다. *

사회
김기동
연합회 실행위원, 정론지 편집위원장

참석자
김석순
한살림 서울조합원
농산물위원장

박혜숙
한살림 서울조합원
활동실장

이영이
전 광명YMCA 사무총장,
범씨학교 교장

오현숙
대전YWCA 사무총장

최만자
여성신학자, 연합회 위원

신희운
연합회 부회장

유성희
연합회 사무총장

이은영
연합회 실행위원

정동신
연합회 실행위원

박은실
연합회 운동국장

정서연
연합회 간사



정론지 기획대담

‘정의’를 묻는다

일시
2012년 4월 27일 금요일
오후 4시

장소
연합회 회의실

사회자(김기동) 한국 YWCA가 길을 걸어온 지 올해로 90년을 맞이했습니다. 한국 Y는 목적문에서도 표방하듯이 이 땅에서의 정의와 평화의 실현, 창조질서의 보전을 향해 지금도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은 사실 한국 Y만이 가진 가치가 아니라, 바로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바임을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공감하고, 또 함께 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함께 정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정의로부터 시작할까?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에 무엇보다도 전제되어야 할 것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눌 분들은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민운동가들입니다. 지역운동가로서 정의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를 좁혀갔으면 합니다. 지역 복지, 지역 환경 등 이미 지역사회에서 지역을 '살리는' 운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지역운동을 '정의'의 차원에서 돌아보고자 하는가? 지역에서 정의를 찾는 이유는 지역에서 정의롭지 못한 무엇이 있기 때문이 아닌지, 또 '지역'의 범주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먼저 이야기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석순 저는 현재 한살림 서울조합원 활동실장으로 한살림 운동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지역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내가 살고 있는 곳의 생활환경이겠지요. 그런데 한살림에서 일하는 나는 내 생활환경을 거주지를 중심으로 한 범주를 넘어 '한살림'이라는 확장된 범주로 이해합니다. 전국에 한살림에 속한 생산자와 생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역의 범위는 생활환경을 넘어 활동범주가 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지역을 활동범주로 이해할 때 우리의 생활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치·교육·법·문화 이런 것들이 모두 지역운동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역활동은 이웃들이 모여 서로 관심사가 있는 분야의 이야기 말문을 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지역에서 한살림 운동은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관심 분야를 공유하고 그 분야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욕구가 생겨,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함께 모여 지역 안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협력점을 찾게 됩니다. 나와 관계없는 분야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상 속에서 직면하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찾으려 노력하고 어려운 점들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라는 거지요. 그럴 때 각 개인에게, 어쩔 수 없는 문제로 여겨졌던 사안에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지역운동은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관심이 가는 일들에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으면 지역운동으로 펼쳐질 수 있습니다.

사회자 지역운동의 구체적인 예도 들어 함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영이 이 대답의 주제가 지역정의라는 말을 듣고 사실 지역과 정의를 어떻게 연결시켜야할지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의는 옳고 그름을 가르쳐 되는 것인데, 동네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되면 이웃으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지역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부터가 고민입니다. 광명 어느 동네 산꼭대기에 넝쿨도서관이라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이 사는 달동네에 있는 도서관입니다. 10년 전에 도서관이 만들어졌는데, 아주 우연한 계기로 세워졌습니다. 그 동네에 사는 광명YMCA 어느 회원 한 분이 자기 아이를 찾으러 나갔는데, 추운 겨울에 문도 달려있지 않은 친구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때 너무 충격을 받았고, 광명YMCA 소그룹 모임에서 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안타까움을 느꼈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이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넝쿨도서관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내 이웃의 문제는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가 내 자녀와 연결되어 있어 외면할 수 없는 문제더라는 겁니다. 나의 문제, 너의 문제를 구별하지 않는 순환고리를 형성하는 관계망이 있는 곳, 바로 그곳이 마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지역'하면 큰 개념이지만, 마을, 동네라고 하면 가깝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이야기를 듣다보니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역운동의 시작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의해 지역의 문제와 필요성을 보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정동신 조금 전, 지역과 정의가 서로 결합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이영이 정의는 옳지 않은 것을 극복하고 옳은 것을 향해 방향설정을 하는 것인데 사실 지역이라는 곳을 들어가 사람들과 직접 부딪치면서 인간의 면면을 겪다 보면, 실제로 사람들의 행동패턴에는 정의롭지 못한 면들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의롭지 않다는 이유로 그분들을 만나지 않겠다고 외면하는 순간, 동네에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지역, 동네, 마을에서는 운동가, 활동가가 아닌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3자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동네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람 사이의 신뢰는 정의로운 행동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을 부딪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서 비롯합니다. 정의의 관점을 넘어서서 인간적으로 만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안에서는 다른 관점에서의 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동네를 그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뛰어드는 것이 정의입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 정의운동은 지역에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현숙 여기를 오면서 '지역정의'라는 말의 부담이 컸습니다. 그래서 지역정의 대신 지역운동으로 풀어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지역운동은 나로부터의 시작이다, 어떻게 건강한 나를 만들어갈 것인가, 가정, 이웃과 함께 어떻게 소통하면서 건강하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지역운동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회자 먼저 지역운동은 다음 두 가지로 정의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 지역운동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또 외부자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역민, 즉 사는 사람의 관점에서 접근할 때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구체적인 사안이 있고, 사는 사람의 관점에서 출발하는 지역 운동으로서의 '지역정의'에 대해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최만자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들과 연관시켜 볼 때, 지역정의는 생활, 삶 속에서의 정의 문제, 즉 국가권력이나 거시적 담론보다는 구체적 삶 속에서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정의란 한마디로 우리가 사는 지역이 바로 인간적인 삶의 터전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는 의견에 공감하는 토론자들. 광명YMCA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역에서 정의문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지역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의의 개념을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삶 속에서 정의는 아주 구체적으로 생활과 관련된 문제들에서 비롯됨을 보게 됩니다. 가령 먹거리 문제, 아이들 교육문제, 장애 등으로 차별받는 사람들 등등, 이러한 것들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문제점들을 찾아내어 이슈화하고 또 지역의 삶 속에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찾으려 노력하는 것이 지역정의를 향한 운동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의로운 지역을 이루기 위해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 지역이 가진 절박한 상황에 대한 자기동일시, 참여,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이 당면한 문제에 동참할 때, 정의로운 삶의 태도의 차원에서 '어떻게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될 것인가'라는 것을 찾아야 하고, 예를 들어, 어떻게 생명먹거리를 지키고, 약자를 위한 관계망을 구축할 것인가를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어떻게 나와 주민들의 삶의 태도를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 기반을 가진 YWCA, YMCA, 한살림같은 기관은 정의로운 기관이 되기 위한 자기 성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의의 일은 내가 지역주민으로서, 지역주민 주체의 활동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볼 때, 각 지역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은영 저도 말씀에 동감합니다. 지역정의라는 말 자체가 어렵게 다가오는데, 정의로운 사회나 국가 차원의 정의나 모두 지향하는 바는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역정의도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다보니 지역정의도 그 지역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잘 사는 상생과 비슷한 뜻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사회의 뿌리는 갈등이 있을 때 타협점을 찾아 모두가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지점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특히 마이너에 속하는 취약한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지역 구성원으로 권리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만드는 것이 지역정의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역에서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사회적으로도 의사결정이나 정책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힘의 논리로 인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자의 권리가 무시되지 않는 그러한 마을과 지역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어떤 경우에는 모두의, 다수의 선과 배치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지역에서는 함께 잘 살아야 하기 때문에, 약자가 아닌 사람들은 취약한 사람들(어린이 여성 장애인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지역에서 이루어야 할 정의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느끼지 않는 사람에게 어떤 것은 사소하다고 생각될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들도 지역 안에서 관심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자 지금까지 논의를 통해 지역정의를 거대담론 즉 문제들, 이슈들을 가지고 국가에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어떻게 하면 삶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로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는 지점이라고 하는데 의견이 모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고민이 있습니다. ‘함께 사는 공동체’로서의 지역을 생각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참여와 연관됩니다. 지역민들 스스로 자발성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무거운 짐으로 다가옵니다. 여기 모인 우리는 모두 YWCA, YMCA, 한살림 운동을 하는 사람들로써 각 기관의 그 가치들을 가지고 지역 속으로 가는데, 그 가치들을 가지고 어떻게 마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김석순 지역 안에 네트워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신뢰를 회복하고 쌓아가는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의 경우는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기까지 ‘시민단체’로 접근하지 않고 사람, 이웃으로 만났습니다. 인간적인 관계가 바탕이 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네트워크에 들어오고, 혼자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가는 주체자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2005년부터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절대 조직의 내용을 강요하지 않았고 상대에 대한 신뢰를 쌓아 가는데 주력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색깔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힘은 이끌어주는 손입니다. 그런데 그 손은 한번으로 끝나면 안 되고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같은 주제의 이야기를 가지고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주민의 자발적인 힘들이 나오지, 그것이 없이 잘하는 사람이 앞서서 하면, 못하는 사람들은 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자발적으로 하고 싶도록 끌어내는 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은실 이영이 선생님께 묻고 싶습니다. 지역활동가로서 자기 지역의 문제에만 집중하게 되는데, 보다 큰 이슈들 예를 들어, 북한문제, 구림비 마을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점을 찾으시는지요?

이영이 우리가 지역에서 지역운동을 하고 생활세계의 이슈를 가지고 진정으로 고민할 때 우리는 거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라크 전쟁도 우리 삶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운동이라고 해서 자기 지역에 매몰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모양이든 이러한 운동과정의 핵심은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지구는 보다 큰 의미에서, 무엇보다 모순덩어리로 가득 찬 지역사회입니다. 가장 극단적 모순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 셈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이러한 모순덩어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자각하지 못합니다. 이 모순을 자각하고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식 교육만을 통해서만 사람들이 깨닫기는 어렵습니다. 지역에서 사람들이 변화할 수 있는 것은, 작은 단위에서부터 자신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경험을 했을 때 생깁니다. 문제를 가지고 스스로 사람을 만나서 ‘된다’는 것을 경험할 때 말입니다. 자기들이 움직이면서 된다는 것을 경험하고, 자기가 주체로 세워지는 경험, 앞에 나서서 해보니 되는 경험 등 말입니다.

저는 한국사회 교육을 바꿔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범씨학교 1994년 광명YMCA 어린이교육을 시작하면서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인간으로 자라나도록 돕는 교육을 하고자 노력한 결과, 2001년에 세워진 초등과정 대안학교를 세웠는데, 사실 저에게도 처음 가보는 길이기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과 함께 할 때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함께 참여한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무엇인가 하고 있고, 자기 삶을 주체로서 꾸려나간다는 소중한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무엇을 해결했는가라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국가권력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힘으로, 작은 단위에서 여기에서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문제를 해결하자라는 이슈를 가졌다고 합시다. 시작은 소박합니다. 함께 고민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가정 경제를 꾸려나갈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 고민을 통해 내가 살고 싶은 방향이 세워지고 그것에 따라 가정경제를 꾸려나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생각은 공동체를 생각하며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고민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례를 만들어 나가게 되겠지요. 자원봉사 개념이 아닙니다. 내 가족, 내 가정경제의 주역이면서 내가 살고 싶은 대안적인 삶의 방향의 범주를 자연스럽게 내가 사는 마을, 동네, 지역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지요. 지역정의는 제 3자의 시선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의 구체적인 삶을 사는 것에서 비롯합니다.

오현숙 저도 동감합니다. 생활중심적 운동, 내 생활 중심의 운동, 내 중심의 변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것들은 선전이 아니라 대화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자각한 주체, 1대1의 수다, 그 수다가 많은 수다들을 만들어내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지역에서 소통의 구조와 대화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신희은 Y가 반성해야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90년 된 Y라고 하면서 역사를 자랑하고 뿌듯하게 생각하는데, 과연 우리가 이웃과 함께 눈물 흘리며 같이 해왔는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최만자 Y는 지금 시점에서 체질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비대해지면 생명력 있는 것들이 태어나기 어렵습니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진심으로 고민하고 뼈를 깎는 아픔이 없다면 Y의 생명력이 점차 희석되고 어려워질 것이라 봅니다. 정말 체질개선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프로그램을 잘 하지만, 왜 프로그램을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박혜숙 한 사람이 앞서가는 것보다 옆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거대해지면 세밀한 부분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유성희 너무 많은 기득권,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지역운동을 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지역활동을 하다보면 가장 큰 어려움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실패해도 값진 거야라고 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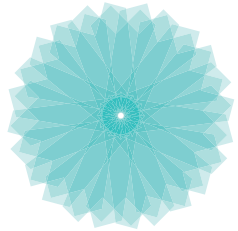
있게 지역을 보아줄 때 꽃이 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실패·성공 모두 허용 되지만, 작은 성공들을 다 같이 축하해주고, 아름답다, 해냈더라는 사례들을 많이 발굴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는 것을 지역 속에서 많이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이영이 지역에서 일을 하려면 적어도 10년을 살 작정을 해야 합니다. 지역운동의 중심에는 '사업'이 아니라 '사람'이 들어와야 됩니다. 사람이 목적이요, 중심이 되면 사업 성패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세웠느냐에 초점을 맞추다보면 이슈나 아젠다가 달성되지 못한다 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지역에서 지칠 때 위로를 주는 것이 한 사람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사회자 너무나도 유익한 말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안에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대답을 준비하면서 지역정의가 무엇을 이루려는 것인지 그 실현의 결과와 열매에 초점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문제는 열매가 아니라, 뿌리의 문제이며, 정체성의 문제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나는 내 삶의 터전에서 어떤 모습으로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꿈꾸며 살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Y를 생각할 때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에 뿌리내린 52개의 회원 Y, 10만의 회원이 먼저 지역을 사랑하고 그 지역 공동체의 주체로 거듭난다면 그것이 바로 작은 지역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출발이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모두 이 시대, 이 땅에 살아가는 여성들로서 함께 세상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이웃이 되길 바랍니다. 오랜 시간 말씀과 생각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

정도의 정신 담는 정론지 여·세 출간에 큰 기대를

김재화.
성공회대 명예교수
명예연합위원



그 동안 <YWCA 월간> 발행 기간이 꽤 오래 됐음에도 뭔가 아쉬운 점이 있었기에 <정론지>를 구상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Y 지도력의 선하고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정론은 말 그대로 큰 대로 같은 정도(正道)의 정신을 담겠다는 뜻일 것이다. YWCA 역사란 처음부터 지향한 기독교정신의 사회운동체로서 보다 나은 세상을 꿈꾸며 펼친 봉사의 기록이다. 이 기록이 공명정대하지 않으면 꾸밈의 유혹으로 자기치장을 한 것일진데 그래도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스스로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정직하게 정도의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한다.

한 나라의 역사 기록에서도 우리가 읽게 되는 것은 대개 큰 줄기의 역사의 흐름이다. 아무리 한 개인의 재능이 뛰어난다 해도 T.S. 엘리엇이 예리하게 지적한 명언처럼 그 사회의 전통에 합류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야 그것이 역사가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론>을 말할 때 YWCA 전통을 먼저 깊이 있게 알고 그 시대마다 생명력 있게 큰 줄기 속에 함유한 활동들이 왜 기록될 수 있었는가를 새삼 점검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더구나 오늘 날의 우리 사회처럼 정치적 이념의 대립 및 사회 각층의 다양한 백가쟁명(百家爭鳴)의 자기주장들이 분분할 때 Y의 정론지마저 마치 그것들을 새로운 목소리라 하여 걸러내지 않고 중심 이슈로 옮겨 신는 작업은 정론과 부합되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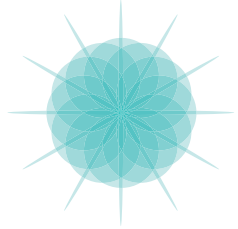
또한 정론지의 글은 신선해야 한다. 기존의 진부한 글, 자타가 익숙히 아는 문제를 되풀이 이야기하는 글을 편집자는 냉정하게 가려내야 할 것이고, 또한 나만의 용감한 소리라는 독불장군의 시각도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해야 하는 신중함이 필요할 것이다. 그것은 YWCA 이름이 적힌 한, 우리 사회에 Y의 목소리로 인식되고 통용될 수밖에 없는 제한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작업은 편집실의 부단한 관심과 연구에서 축적된 폭 넓은 지식과 통찰력을 요한다. 쉽지만은 않은 공들이는 작업일 것이다.

그럼에도 근본적으로 기도처럼 순수하고 성숙한 열린 마음이 작용하면 좋은 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시대보다 네 배의 속도로 지식의 지평을 열어야 개인의 능력도 정신도 깨어 있게 될 오늘의 시대란 생명력이 넘치면 서도 그 만큼 책임이 따른다. 폭 넓게 조언을 얻고 사랑의 협력을 받는다면 귀한 자산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좋은 글은 독자의 공감대를 훈훈하게 감동으로 울려준다. 새로운 정보지식을 나누어 독자로부터 감사의 마음이 우러나게 한다. 공명정대한 비판의식에는 독자가 저절로 메아리가 되어 이웃에게 전하면서 바른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 이렇게 될 때 YWCA 회원들뿐 아니라 보다 넓은 세상에서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정신적 교류를 이루고 우리 사회를 보다 밝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좋은 필자들과 만나게 될 독자의 설레는 기대감은 축복인 것이다.

바른 논제로 토론하여 유대감을 확장하여 이 시대의 역사의 목소리로 기록되기를 바라면서, YWCA 정론지 출간에 큰 기대와 함께 아낌없는 격려와 찬사를 드리는 바이다. *

‘경계를 넘어서는(Beyond Borders)’ 운동을 위한 건강한 지상 토론의 장 되기를



원영희.
한국YWCA 실행위원
세계YWCA 이사, 성공관대 교수

한국YWCA가 새로 발행하는 여성정론지 《여세》는 올곧게 Y다운 잡지이기를 기대한다. YWCA가 지난 90년간 여성운동 차원에서는 척박하던 이 땅에 여성과 소녀들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어진 단체임은 분명하다. 수많은 NGO단체들이 순간의 필요에 의해 생겨났다 사라지거나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시간의 굵은 바늘로 든든히 짜인 우리 YWCA의 브랜드 파워만한 단체는 흔치 않다. 신생 단체들의 참신하고 전혀 새로운 운동개념 개발, 의식화, 참여의 역동성에는 미치지 못하는 면이 없지는 않지만 언제나 YWCA는 거기에, 즉 어려움에 처한 우리들의 이웃 곁에 있었다. Y운동이라는 나무의 탄탄한 뿌리 위에 무성해진 가지와 잎을 바라보며, 이제 한국YWCA가 발행하는 여성정론지 《여세》는 그 열매가 되리라는 꿈을 꾸다. 《여세》안에는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평등한 세상의 숲을 위하여, 또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건강한 사회를 세우기 위한 여성들의 생각을 이끄는 열매로써의 논단으로 가득하길 기대한다. 《여세》에 바라는 특별한 소망 몇 가지가 있다.

무엇보다도 ‘더 많은’ 여성자원봉사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어, “나를 넘어서는(Beyond Myself)” 이웃을 위한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정론지이기를 바란다.

둘째, 한국의 젊은 여성들이 세계를 무대로 하는 YWCA운동의 “국가를 넘어서는(Beyond Nation)” 사랑 실천 운동에 자발적이며 역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끌어 내어, 그들로 하여금 가슴 뛰게 만드는 지상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

셋째, 여성들이 자신의 권리를 바로 알고 찾으며, 이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성을 넘어서는(Beyond Gender Limit)” 운동의 논리를 깨우칠 수 있는 힘의 공간(Empowerment)이기를 바란다.

넷째, 논단의 수위조절에 주의를 기울이기 바란다. “지적 수준을 넘어서는(Beyond the Intelligent)” 유익하면서도 재미있는 정론지이기를 기대한다. 충분히 자신의 이론과 실천에 확신이 있는 실력 있는 스승은 참으로 쉽게 강의를 하면서도 우리들에게 많은 지혜를 남겨주듯이, ‘여세’는 논단의 지적(知的) 수위를 잘 조정하여 ‘더 많은’ 자원 여성 운동가들이 “구체적으로” 용기를 얻고 분연히 자신의 정체성을 위해 일어 설 수 있게 해주는 책이기를 바란다.

다섯째, NGO로서 용기 있는 자성(自省)의 글도 필요하다. 즉, 발전을 위한 비판의 글은 자성의 논조이어야겠다. 최근까지 스러져간 많은 NGO들은 한시적인 정치적 성향으로 도태할 수밖에 없었다. YWCA는 “C(Christian)”가 표명하듯 기독교 단체이다. 우리가 시작하고, 또 연대해 참여하는 모든 운동의 존재 이유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 우리 Y의 운동이 영원하길 바라는가? 그렇다면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운동의 잣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자. 특정 정당이나 시류에 따라 흔들거리는 여성 NGO로서 Y운동체가 되지 않기를 바라기에, “정치를 넘어서는(Beyond Politics)” 자성과 비판의 글을 실음에 있어서도 모든 NGO들의 선두주자가 되는 ‘여세’이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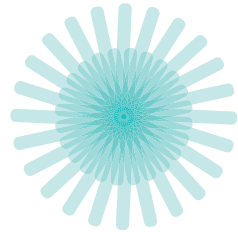
여섯째, “핵을 넘어서는(Beyond the Nuclear)” 운동을 새로운 환경운동으로 주창하는 정론의 장이길 바란다. 생명사랑공동체 운동으로 “핵을 넘어서는” 운동의 절실함과 그 실제적인 가이드라인을 사회를 향해, 세계를 향해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일곱째, 한반도의 통일을 준비하는 “두 개의 한국을 넘어서는(Beyond two Koreas)” 길을 제시하는 정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

Y를 생각하면 나무가 떠오른다. ‘Y’라는 영어 철자가 ‘나무’모양이기도 하고, 나무는 쉴 수 있는 그늘과 산소를 제공하는 등, 인간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참으로 질긴 생명력의 상징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넓게 팔을 펴고 서서 모든 생물들이 쉬었다 가도록 허락하고, 동지를 틀어 갖들게도 하는 나무. 게다가 그 열매까지 만나면 더욱 감사할 수밖에 없는 나무 같은 Y! 한국YWCA가 발행하는 여성정론지 《여·세》를 통해 수많은 여성들을 위한 주창의 열매가 주저리주저리 열리기를 기도한다. *

묵은 술을 담은 새 부대를 기대하며

최승자.
한국YWCA 실행위원



먼저 한국YWCA 정론지를 창간하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Y와 함께 한 시간이 나의 가장 아름다운 생의 한 가운데에 있었기에 Y를 언제나 사랑의 마음을 담아 생각할 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YWCA 목적문 일부) 하나님 나라를, 이 사회를 향하여 확장하려는 Y의 목적문에 동의하며, 굴곡 많은 한 시대를 함께 아파하며, 그 사

회에 작은 불을 던지려 한 Y의 수많은 운동성을, 그리고 그 꾸준한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90년의 세월은 다 칭찬받을 일만 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려는 많은 한국Y의 회원들이 있었기에 현재의 Y가 있을 수 있었다고 확신한다. 미래의 꿈을 본 Y의 선배들, 그리고 끊임없이 회원Y를 섬기고 있는 포기하지 않는 Y의 지도력들이 함께 어울려, 100년의 비전을 바라보게 된다.

사회는 너무나 많은 시민단체들의 소리들에 오히려 힘들어하며, 지쳐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한국Y는 이제 그 많은 소리들 가운데 어떻게 아름다운 소리로 사회를 이끌어 나가야 할까를 고민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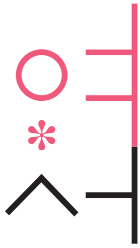
Y의 정신은 긴 세월을 통하여 오래 묵은 향기로운 포도주처럼 되었는데, 이 시대와 사회는 새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너무 오랫동안 익숙한 옷을, 그리고 편한 옷에 길들어 진 부분이 있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우리는 이제 새 옷을 입어야 할 시간이 되었다. 새 술을 담은 부대에 담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교훈을 역설적으로 풀어보았다. 오래 묵은 좋은 술을 새 부대에 담아 이사회에 보여 주고, 새 바람을 일으킬 수는 없을까? 생명력 있는 Y의 정신을, 이 시대가 환호할 좋은 명품으로 만들어가는 작업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이라 본다.

K-POP에 열광하는 젊은 세대와 이 사회를 향해 우리가 만들어야 Y의 명품은, 그리고 그 가치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감히 Y를 처음 꿈꾸었던 처음 사랑과 마음을, 우리 모두 찾아 나서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 나라 확장의 운동성을 회복하는 일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외형을 중시하는 이 시대의 파도를, 과감하게 넘어 서는 힘을 하나님께 구하고, 복잡한 Y의 활동을 조금은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활동할 수 있는 Y의 즐거움을 되찾는 것, 그것은 젊은 세대가 Y를 떠나지 않고, 향기로운 묵은 술을 담은 새 부대로 만들어가는 새 지도력으로 자리잡을 것이라 본다. 가치성 있고 즐거우면 그 곳은 항상 젊은 꿈이 자리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Y 정론지 여세가 그 마중물이 되어 주기를 기대해 본다. *

편집후기



여성이 살리는 세상
창간 준비호
summer 2012

여·세의 꿈에 무한의 점을 찍어주세요

여·세는 여성의 꿈을 담아 여성의 힘으로 이웃과 세상을 살리고자 하는 영적 갈망과 지혜를 수렴하는 장입니다. 겨울에 다시 만날 여·세 1호 winter 2012 구독 신청해 주세요.

구독신청서

이름 : _____ 전자우편 : _____ @ _____

주소 : _____

유선전화 : _____ 휴대전화 : _____

연락처 02-774-0230, 9703 팩스 02-774-9724 구독료 1년 2만원(발송료포함)

납입 예금주 한국YWCA 연합회 농협 386-17-000052
여세○○○의 형태로 입금해 주세요

주소 서울시 중구 명동1가 1-3 한국YWCA연합회 여·세편집팀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주시거나 전자우편(ymagazine@hanmail.net)으로 보내실 때도 양식을 참조하여 주세요.

대책을 세워놓았다. 내가 김활란을 불렀다. 내가 유각경을 세웠다. 내가 김필레를 보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 있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렀다. 내가 너를 나의 대책으로, 나의 동역자로 세웠다. 나와 함께 순례의 길을 떠나지 않겠니.

순례자의 하나님, 나그네의 하나님께서 우리 YWCA를 축복하시고 이 순례길 끝까지 동행해주실 것을 믿는다. 모든 영광을 이렇게 좋으신 우리의 하나님께 돌린다. 아멘. *

104 page 이후로 넘친 원고입니다.

방향을 제시해야한다.”고 말한다.

한국YWCA의 90년 역사는 참으로 자랑스롭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모든 피조세계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세우고 섬겨온 역사였기 때문이다. *

119 page 이후로 넘친 원고입니다.

진취성과 열정을 이어받아 역사의 새장을 여는 비전과 사명감으로 힘차게 전진하여야 한다. *

22page에서 넘친 원고입니다.